朝鮮日報

夕刊 二日(月)

本紙朝夕刊十二面

編輯兼發行人 方應謨 印刷人 [illegible]

發行所 京城府太平通一丁目 株式會社朝鮮日報社

◆本社定期刊行物◆ 月刊『朝光』 『女性』 『少年』

社說 朝鮮經濟展望 —産業開發의役軍이되라—

一

戰勝의 봄을 마지하야 兵站基地로서의 朝鮮經濟를 展望함에잇서 一層의 奮發과 決意를 促하는바이다。回顧컨대 昨年은 戰爭最高調期로 統制强化의 一年이엇스니 自由主義經濟에서 本格的 統制經濟로 百八十度 轉換하야 가진辛苦를 맛보해이엇다。그러나 이가튼 時局轉換下에 잇서서도 朝鮮의 經濟는 發展의자최를 보이엇다。産業의大宗인米豊作과 米價高로 農村方面이 比較的潤澤하엿스며 時局關係의 産業部門도 若干 活況을 呈하는等 計數的으로 보아도 躍進을 表示하엿다。即 鮮銀券發行高는年末에 三億二千萬圓臺로 創設以來의 大增發이엇스며 總貿易額도 二十億圓을 바라보는 新記錄이오 金融機關의 預金은 激增되는等 資源과 勞力의 活用에依한『朝鮮景氣』란것을 呈하엿다。

二

그러면 所謂『朝鮮景氣』란 그 支柱가 어디 잇는가 軍需景氣를 차저내일수업는 朝鮮에서의 景氣는 亦是 農業基本에 잇다 해도 過言이 아니다。人口의 八割인 農民이 戰時 食糧充足에 努力한 때문이다。勿論 우리는 近代産業의 勃興을 이길수업다。物的資源이 多種多樣이어서 棉은 그輸入을 抑止하고 金을비롯한 各種鑛業의 開發、鰮漁를 筆頭로한 水産業의 大企業化、化學工業을 爲始한 金屬機械工業의 勃興等 可謂 朝鮮의 産業界는 百花撩亂의 觀이 잇다。이리하야 朝鮮은 大陸루ー트의 要衝으로서 兵站輸送의 萬全을 期하야 作戰軍에게 物資供給에 努力하며 時局産業의 生産力을 擴充하는中에잇서 農工併進의 大理想下에 重要鑛物의 增産과 鑛物資源의 工業化의 線에 向하야 邁進中이다。

三

그러면 朝鮮人經濟는 어떠한 活動을하엿스며 하려하는가。農民을 비롯하야 鑛夫 漁夫 職工들의 血汗의 結晶을 尊重한다。이것이 朝鮮産業經濟를 살찌게하며 一面戰爭·一面建設下 朝鮮으로서 負荷된 重責을 다하는데 큰힘이 되는것을 잇지 안는다。그러나 이가티 수먹으로 일하는사람들을 빼노코서 사랑할것이무엇이냐？우리는 資本이 업슴을 逃하고 時局의重壓을 짊게 한다。조그만한 돈이라도 모아서 이해보겟다는 생각이 不足치안흔가？時局下에서도 얼마든지 할수잇는것 도리어 이때이야말로 일하기조흔 事業이 잇다。말로만 時局認識을 떠들엇지 統制緩和를 꿈꾸지안햇던가？『戰爭의卒富』가 되기를 은근히 바라지안햇던가？統制强化의 過渡期에 잇서서의 一時的目前에 滿足치안햇던가？大資本으로 軍需工場을 세울수업는줄은안다。그러나 一例를 들자。朝鮮人의 天才的 손재조와 朝鮮特有의 資源을 利用한 特産品振興 및 輸出을 目的한企業가튼것을 해볼생각은 나지안는가？이非常時局은 오늘來日 今年 明年에 못씃날것이아니다。아프로는 정말『經濟戰』이다。時局이 要請하는 産業은 어쩨든 이러나야하고 物資不足은 各家庭살림사리를 威脅할것이오 中小商工業者는 時局打擊이 더욱 해질것을 覺悟하면서 忍苦、時艱克服 써 朝鮮産業開發의 役軍이 되라。

四

以上과가튼 重務를 遂行함에는 民의힘만 가지고서는 그成果를 期키 어렵다。官의政策이 適宜하여야할것이다。産米增殖을 復活하라。蠶繭、南棉北羊을 擴充하라。副業을獎勵하라。그러나 農山漁村의 更生向上을 이저서는 안된다。內地政策參入에 給與할것이아니라 朝鮮事情에 適合토록하라。高利貸를 撲滅하라。大衆을 苦케하는 庶民金融機關을 擴充하라。中小産金業者에게 試堀權을주라。中小商工業者의 轉失業對策을確立하라。國策에順應할 産業進軍은써 官民一致 萬遺憾업시 遂行되기를 期하자。이것이『東亞新秩序建設』의 大目的을 貫徹하는 方途이오 이래야만 洋洋한 前途를 大望할수 잇슬것이다。

汪精衛派二百餘名 國府當局에서監禁 國共合作去益露骨化

【香港一日發同盟】當地에達한情報에依하면 汪精衛의今番行動에 關連하야汪精衛派一의黨으로알려진張道藩等二百餘名은 當局의手에監禁되고 國民黨의中堅인 陳果夫는 重慶을떠나 어데로갓다고傳한다 一方國民黨主戰派는共産黨主戰派와呼應하야 陳誠 孫科 于右任을 中心으로 益益結束을 굿게하고잇다고 傳한다

四川東南方에 中央軍五十萬集結

【香港一日發同盟】確實한側消息에依하면 蔣介石軍의 四川東南北各省境 即 湖南 西部貴州、湖北陝西南部에 集結한 中央軍은 合計七十個師 約五十萬에達한다고한다 此等諸部隊는 繼續四川貴州方面을 向하야 移動中이다 右는 蔣이前番重慶軍事會議의決定에基하야 實力에依하야 新抗戰段階에잇서서의 中央의 地盤인 四川을 確保하는同時에 汪精衛와 連絡하엿다고傳하는 劉湘系四川軍閥과 龍雲의 雲南軍에對한 豫備的軍事行動으로 解釋된다

國府要人三名 河內向重慶發

【香港二十九日發同盟】二十九日의 차이나메일紙重慶特電에依하면 二十八日 國民政府要人三名이 飛行機로 突然重慶을 出發 河內에 向하엿다고한다 그들三要人의 目的에關하여는 全然不明이나 汪精衛와 무슨關係가잇지안흔가보인다

明年度總督府豫算 六億四千餘萬圓 比今年一億二千餘萬圓增

【東京電話同盟】昭和十四年度의 特別會計豫算中 朝鮮總督府 臺灣總督府 南洋廳 樺太廳等 外地各特別會計豫算에對하야는 三十日夜大藏省 拓務省의 折衝을 經하야 內定을보앗다 그槪要는如左하다(單位千圓)

(計數整理의結果 若干異動을볼수도잇슴)

一、昭和十四年度歲入歲出豫算

◆朝鮮總督府

	昭和十四年度豫算	前年度에比較增減
歲入		
經常部	四二六、〇三九	三五、九七七
臨時部	二一七、一六八	七六、五五五
計	六四三、二〇八	一二四、三二三
歲出		
經常部	二五五、八三九	四四、五五三
臨時部	三八七、三六九	七九、七七二
計	六四三、二〇八	一二四、三二三

昭和十四年度歲出豫算中 主要新規事項金額

鐵道建設及改良	七四、一〇〇
航空施設	七一〇
産金獎勵施設	一三、一五〇
重要鑛物增産	一三五〇
人造石油獎勵等	一、七〇〇
米穀生産擴充	四〇〇
國際貿易改善施設	五、六〇〇
羅津廳新設其他羅津에關한施設	一、九〇〇
國民精神總動員運動	二四〇
軍事援護	三〇〇
招魂社創立	一〇〇
國民貯蓄實施	二二〇
職業紹介國營	五、一〇〇
療養所介置	三八〇
京城北朝鮮間通信施設擴充	二、〇〇〇
災害復舊費	六、〇〇〇
産業獎勵	四二〇
臨時防空及警備費	六四〇
臨時軍事費의特別會計에의繰入	三三、八五三

政府米買入成績發表

【東京電話同盟】農林省에서는 去二十一日 米穀出廻를 調節코저 二百萬石의 米穀買入을 發表한바 이買上成績에關하야 三十日 左와가티 發表하엿는바 滿額의 好成績이다

農林省發表 昭和十三年十二月 農林省告示第四百六十六號에依한 米穀出廻調節을爲하야 實施한 買入成績은左와갓다(單位石)

買入米種類	買入事務所	買入數量
內地米	東京	一六三、二七二、八
同	大阪	一三八、七三六、〇
同	酒田	一五五、六七六、八
同	秋田	一三一、六〇四、〇
同	門司	一二三、五五五、二
同	新潟	一五六、〇
同	名古屋	一〇七、七三三、六
同	小樽	六、一五五、六
同	仙臺	ナシ
同	金澤	九三六、〇
同	神戸	一〇七、〇六六、四
同	岡山	四八六、〇
同	廣島	二、〇八四、〇
同	熊本	二、四〇三、六
同	青森	ナシ
同	松江	四、九〇八、〇
同	佐賀	一、六六〇、〇

臺灣米、臺北 [illegible]

合計 [illegible]

(朝鮮米는別揭와갓다)

朝鮮米買入 決定數量

今回의 朝鮮米買入決定數量은 左와갓다(農林省京城米穀事務所發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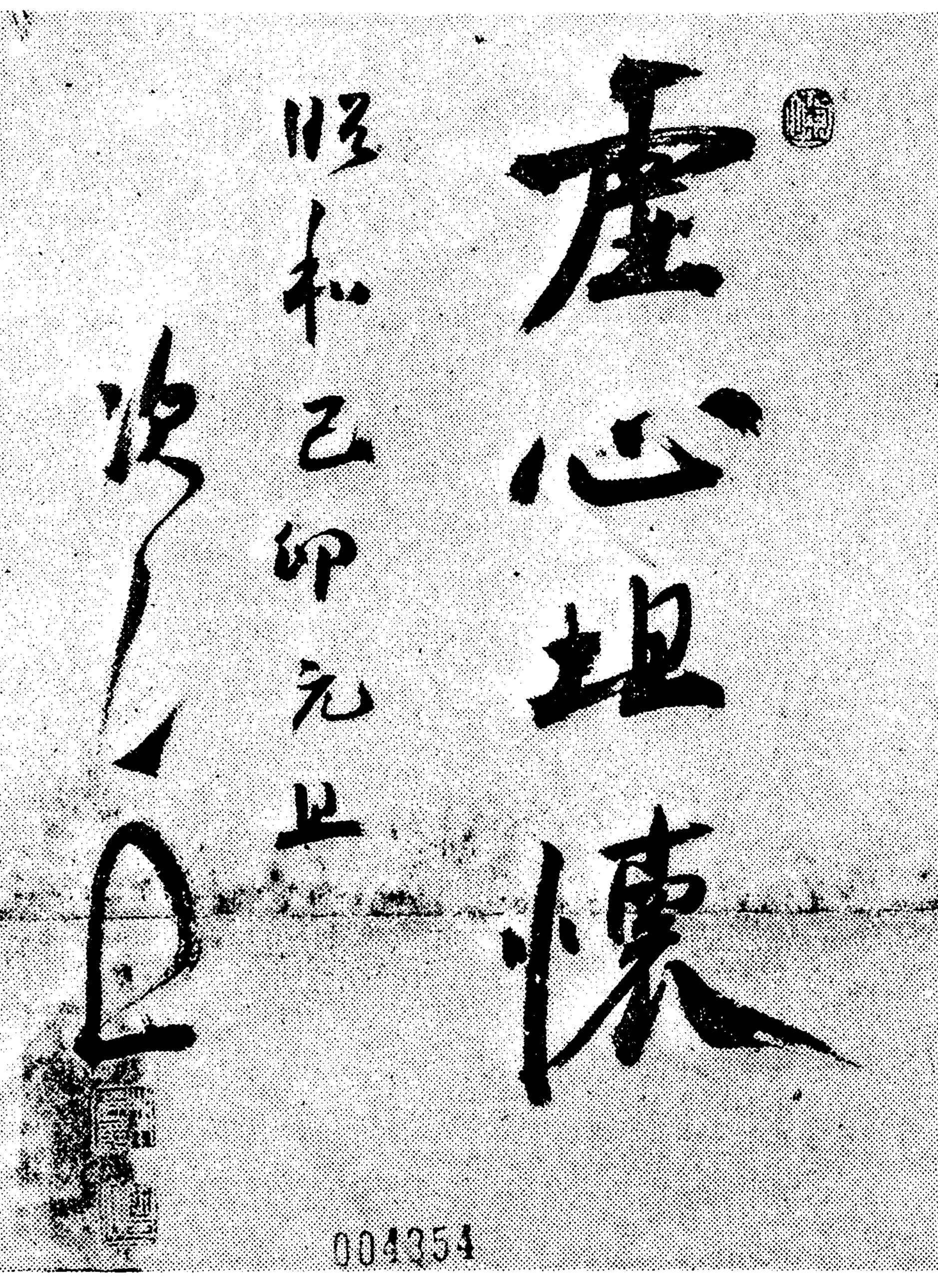
玄米 一、三六九、一三〇叺

買入事務所別內譯

京城	四〇八、三〇〇叺
群山	八九八、一八〇叺
釜山	六二、七五〇叺

政府賣渡鹽價改正 (朝鮮總督府專賣局)

朝鮮內食糧用輸移入鹽은 近年産地에서의 勞銀諸物價及船運賃關係等으로 因하야 相當히騰貴되야 政府의 賣渡鹽價보다도 高價이나 專賣局에서는 特히價格을 引上하지안코 赤字를참어와던바 輸移入量의 價格은 當分低價를 引上하야 昭和十四年一月一日부터 施行키로되엿다 可望이업스며 또 朝鮮産鹽의 配給에 要하는 運賃其他의 諸費用이 漸次騰貴한때문에 더욱 赤字가 增加되는 實情에 鑑하야 「이저 不得已最少限度의 價格 一等鹽 二等鹽(百斤)에對하야 六〇錢 十五錢 十八錢 引上하야 … 一人當一個月에겨우 二乃至 四厘程度의 負擔增加를 招來한데不過하다



南總督 新年揮毫

新年頌(下) 李勳求

朝鮮의 二千三百萬同胞는 南總督의 內鮮一體的 統率下에 幸運의新年을 마지하엿다 一體의 論理과 實際는 盟大宣明한바로 蛇足의解釋이 必要치안타 政治의 要諦는 形式을 調整하는데 잇지안코 民心을 悅服하는데잇다 一體의具現化에 向하야 民意를 加一層 尊重하고 民心을 加一層 悅服케하는制度가 實施되고 機構가 組織되어서 一視同仁의 大理想에 邁進하여야할 것이다 이것이 民衆의 希望이요 要求가 될것이다。

客年의 朝鮮은 經濟、産業、敎育、文化等 各部門에 躍進을 거듭하엿다 兵站基地로서의 任務도 充實하엿고 國民精神總動員의 事業도 進就를보앗다 그러나 新年을 마지하는 이날에 過去의 不足과 未洽을 回想하고 將來의 改善을 圖謀하는것은 가장 必要한 일이다 産業部門에 잇서서 民衆은『職域即戰場』의 理念으로 各其自己의 業務에 더욱 充實하여서 生業報國 生産報國의 實을 擧하여야할것이다 農産에 잇서서 工産에 잇서서 鑛産에잇서서 水産에 잇서서 其他 모든 産業에 잇서서 一層더 擴充增大가 잇기를 要求하는바이다。時局의 要求요 銃後의要務다 一緖에 선 마음으로 各自의業務에 勤務盡粹하여야하겟다。그리고 豪華와 奢侈와 放漫과 安逸을 戒防禁遏하야 一切의 無駄費를 節約하고 一切의 費用을 減縮하여야겟다 輸入品出 消費剩餘는 治國治家의 經濟準備다 平和時는 勿論 戰時는 더욱 그러하다。그리고 貯蓄하여야 家經濟에 對備할것이다。

敎育方面의 客年은 敎育令의實施로 朝鮮敎育史上에 劃期的『메킹』이엇다 그러나 義務敎育을 바라고 나가는것이 新年의 第一步다。得隴望蜀 敎育의 前途는 아즉 遼遠한바가 잇다 希望을 達成하기까지 꾸준한努力을 要한다。

社會生活의 改善은 銃後의務로專門만아니라 文化의 向上을 爲하여서도 新年의 한課題다 起居、飮食、衣服은 勿論 日常의 生活凡百에 잇서서 改善과 向上을 하여야겟다 그리고 精神總動員에 統一合致로 大局을 濟美할것이다。

우렁차게 展開된 新年의 劈頭에 過去를 追憶하고 將來의 希望을 바라보고 힘센 武步를내여디디고 나가보기로 하겟다。

海軍에의獻金額 二千五百九十餘萬圓

【東京電話同盟】陸海軍에 對한 銃後國民의赤誠에넘치는 獻金熱은 益益旺昂하야 海軍에의獻金은 事變以來二千六百萬圓에達하는바 聖戰一年에 亘하야 二十日海軍省에서는 國民의熱誠에感激하야 十二年十二月二十日現在의 獻金內譯을 公表하엿다 獻金總額은 二千五百九十一萬六千二圓七十九錢으로 內 國防費一千八百三十萬六千八圓、恤兵費六百二十九萬六千五百四十四圓二十四錢 學術技藝獎勵費二十一萬二千五十四圓四十五錢 慰問品六百六萬六千百八十五錢이라는 膨大한것이다

朝鮮神宮元旦行事 南總督도初參詣

朝鮮神宮에서는 元日午前六時부터 社頭에서 一般參拜者에게 神酒를 주고 午前一時부터는 奉納神樂이 잇섯고 午前六時부터는 또齋和宮司以下가 奉仕하야 新年拜禮式을 執行하고 午前六時半에는 奉實殿에서 大祓祠及國威宣揚祈願祭 午前九時부터는 宮司以下가 奉仕하야 歲旦祭를執行하엿는바 이어서 南總督의初參詣도잇섯다 二日은 午後一時부터 奉實殿에서 神樂을奉納하엿다 三日에는午前十時부터 宮司以下奉仕하야 元始祭를執行하고 午後一時부터 奉實殿에서 또神樂을奉奏하기로되엇다

海軍作戰戰果 大本營海軍報道部公表

【東京電話同盟】大本營海軍報道部公表(昭和十三年十二月三十日午後五時三十分) 聖戰第二年의 海軍作戰經過및成果槪要는 如左하다

一、支那船舶의 交通遮斷及制海權의確保

我海上艦艇은 昨年에 繼續하야 北은 渤海로부터 南은 南支那海에 至하는 海岸一千數百浬支那沿岸에서 寒暑 風濤와싸우며 가진辛酸을 겪그면서 默默히閉鎖作戰에 從事하야 支那船舶의交通을遮斷하는 同時에 我海上交通을 保護하고 水上作戰部隊로하여금 조금도 後顧之憂를 업게하엿다

二、航空部隊에 依한制空權의獲得

我海軍航空部隊는 昨年에繼續하야 支那全土에亘한 要地空襲을 行하야 蔣政權이 昭和七年以來營營建設한 空軍及軍事施設을 破壞하야 全支의制空權을獲得하고 또水陸各方面에 잇서서의 海軍部隊作戰에 協力하는 一方我陸軍部隊作戰에協力하야 敵에甚大한損害를주엇다

內鮮一體縱橫觀 咸尙勳

셋재 敎學振作을 보자。普通學校 高等普通學校名을 小學校 中學校로 統一하고 敎科目을 統一하라하는 差別撤廢思想은 初等敎育擴充十年計劃을 五年으로 短縮하고 昭和二十一年부터 義務敎育을實施할 準備를한다는것은 朝鮮兒童으로서의 言語 風俗 習慣等이 固有하기때문에 이제곳 內地人兒童과 꼭가튼 敎科目을쓰는것은 너무性急한 政策인듯하다 그것은 從來歷代當局이 小中學校에서 內外共學을 하라다 實施치못한 經驗으로 보아 確然하다。況乎等學校의 敎科目統一又는 共學이랴。義務敎育을 이제 即時實施치 못하는것은 內地가 明治初年에 義務敎育令을頒布하야 明治末年에 完成한經驗으로 보아 時期가 늣다생각한다。

志願兵制度의 實施는 劃期的計劃이다。그러나 왜 좀더人員을 增大하야 志願者의 多數를 包容치못하는지 그것이 遺憾이다。

◇

農工併進政策은 朝鮮産業의 發達段階로 보아 當然한 順序다 農業第一主義는 內地가 産業資本의 蓄積過程에 잇서서선 必要할지 모르나 金融資本이 確立하고 戰時體制下에서 重工業이 首位를 占할 現下에 잇서선 그本의 原料工業으로서의 鑛工業이 絶對必要하다。特히 帝國의 大陸政策의 兵站地帶로서의 朝鮮에 軍需工業의 一部를 移植 又는 新設함은 刻下의 急務이다。

◇

다음 庶政一新은 內鮮一體를 떠나서라도 부르지즐 일이다。企畫部、厚生局의 新設이 업고、農村振興課、産金課의 獨立이 업더라도 行政事務의 簡便化、敏速化가 實現된다면 人民의 幸福은 이以上 업슬것이다。面、郡、警察署等 第一線部隊의 對民衆待遇가 얼마나 改善되엇는가。

◇

內鮮一體는 支那事變이란 戰時를 好機로 鍛如한 効果를 보앗다。南總督의『鐵은 다랏슬적에 치라』고 激勵하얏다。事變때문에 內鮮融和 乃至 內鮮一體가 實現된 템포는 過去十年間의 그것과 마찬가지일것이다 今後 事變이 長久하게끌면 끌사록 內鮮一體의 完成을 날은 短縮될것이다。

下村海南은 改造新年號에『日鮮滿支의 民族問題』에서 如左히 말햇다。

『日本과 朝鮮은 이것다는外에 事實 그祖를 가티한바가 만타면 그곳에 밉지못할기틀이 잇다。그엣적 許多한 民族이 相集하야 渾然히 今日의 日本本土國民을 組成하얏슴을 적어도 數世紀後는 眞實로 日鮮一如 가튼 純日本民族으로된 때를 期待할수잇다 羅馬는 一日에 된것이 아니다』。

이것은 西歐와 東洋의 歷史的事實을 듯고 朝鮮人의 內地移住와 內地人의 滿洲에의 移民問題를 들어 結論的으로 含蓄이다。評論家와 政治家와는 보는바가 다르고 特히 氏는 廣田內閣組織時 拓相後補로 되엇든 軍部의 反對로 入閣치 못한이라 現政治家들과 意見이 맛지아니할것은 想像키 不難하다 그러나 氏가 歷史를 듯고 現世界民族問題를 들어 評한것은 一讀할 價値가 잇스며 現當局도 一次는 考慮할 餘地가 잇지 안혼가 한다。悠久한 歷史와 現實과를 잘 調和하는곳에 眞正한政治가 運行될것이 아닐가。(終)

清津貿易總額 一億圓臺突破

【淸津電話同盟】開港三十一周年以來 七萬府民待望의 淸津港貿易總額一億圓臺의 關門은 드듸여十三年度에 樹立되엿다 이一億圓의 貿易總額槪要에 關하야 三十日淸津稅關에서는 如左히發表하엿는데 이數字에依하야 淸津港은 一躍國際港으로登場하게되엿다 移出二千五百二十五萬圓 移入六千六百九十六萬圓 輸出一千二百五十萬圓 輸入六百十五萬으로 總額은 一億一千萬圓이다

八面鋒

事變以來 一年有半 國府要人中엔 汪으로 첫脫落。

◇天下의秋는 落一葉으로 知하며 國府의 瓦解는 汪의一動이 示唆。

◇英米의 借款으로 甘夢에醉한 蔣에겐 新年劈頭頂門에一針。

◇昨年元旦엔 日蘇漁業協定成立이 新正의 快報를 傳하더니 今年은 消息이杳然。

◇해마다 生鮮맛은 不味而可知。

◇年末年始 報國强調 모두가 年末엔 可觀이더니 年始되자 解弛한빗이不無。

◇緊張은 屠酥酒席에서、强調는 떡국자리에서。

今日本紙十六面

小學校卒業 中女學校卒業者의 **成功의登龍門**

自宅세미날制(硏究組制)學校式確實敎授

我國最大의綜合(各科를合한)大學制大組織

高等官·判任官·書記官·鐵道員·警察官

滿洲國司法官·書記官·執行官·律師·警士·警長養成

中學校·商業學校·工業學校卒業資格獲得指導

日本無比最新敎授텔레파칼트

長距離(自宅에잇스며學校에서배우는것과가치)學生(募集)

帝國法政大學院

● 大學部 普通學法律學 兼修科 五百名 修業期間 速成科一個年 六ケ月
● 大學部法律學專修科 二百名 修業期間 一個年
● 高文資格科 二百名 修業期間 十個月
● 中學科 五百名 修業期間 一個年
● 商業科 五百名 修業期間 一個年
● 工業科『機械科』 五百名 修業期限 一個年
● 旋盤·仕上·製圖工·養成科 五百名 修業期間 三個月
● 判任文官養成科 五百名 修業期限 三個月
● 鐵道員養成科 五百名 修業期間 六個月
● 警察官養成科 五百名 修業期間 二個月

最新式テレパ教授 綜合大學制大組織

●我國唯一의綜合(各科를合한)大學制大組織의長距離(自宅에서도學校에서배우는것과가티)最新敎授
●自宅에잇스면서 세미날(硏究組制)制長距離最新式優秀徹底敎授
●各種專門諸學科와 가티 中等普通學全科의(系統的 實踐的)完全指導
●工業躍進時代에 即應하야 工業技術者旋盤工(仕上工 製圖工)으로의 速急指導

新學期開始 세미날(硏究組)制長距離最新式優秀徹底敎授敎授 綜合制 텔레파 帝國法政大學院 各科長距離學生을募集함

大學部(普通學法律學)兼修科 テレパ教授
大學部法律學專修科 テレパ教授
高文資格科 テレパ教授
中學科 テレパ教授
商業科 テレパ教授
(工業科)機械科 テレパ教授
旋盤工(仕上工製圖工)養成科 テレパ教授
判任文官養成科 テレパ教授
鐵道員養成科 テレパ教授
警察官養成科 テレパ教授

●本學各科中 一科를選定하야 即時入學하라

本學은我國最大의綜合制大編成下에適切한長距離最新式優秀徹底敎授法으로써全日本靑少年을爲하야長距離敎授를하여왓스며其指導組織의嚴正과敎學의一大系統을傳하고爾來進展又進展의一途를直進하야擴充又擴充으로實로日本兩地敎育界의王座를占領키에이르렀다。本學은我國最大의綜合大學制組織의一大偉容下에新學期學生의入學申込受付를開始하엿다 全日本의靑少年諸君은本學의新時代에即한進步的이며優秀無比의敎育텔레파칼트에배우라

規則入學案內書 至急『志望科記入』葉書로請求次第無代進呈함

入員에制限잇다 申込順으로願書受付定員締切前入學手續을하라

東京市下谷區上野櫻木町四八 帝國法政大學院

新らしき東亞の建設！

라디오는大陸의文化使節

ナショナル 受信機

松下無線株式會社

꽃과더부러十年 愛人처럼愛兒처럼!

昌慶苑園藝師 嚴道連氏 感懷

아름다운세계 ②

창경원(昌慶苑)이라 식물원— 바가레서는 유희가날한데 여기는 만화방창 여신(女神)의텁시라는『아네모네』가 피엿나하면『씨크라멘』『튜립』가지가지의 날좋꼿들이 포근한 향수(鄕愁)에지처서 옷고잇는 온실(溫室)속이다 칠판으로오르나리는 더운물은 신도로 조절해노코 밝갓파는 전연 절연해버린 별세계를이루엇다 아침날이 흐뭇히처워 기온은 영하십면도를 가르키고있던날 기자는 사시장춘의 어엇울움치저이 곳온실에서 십년이란 세월을꼿과 더부러 청년기를바친 원예사엄도련(嚴道連)씨와 마조안젓다

아방궁속에서 삼천궁녀들의교태에 취하야 살엇다는 진시황(秦始皇)이 아니라면 천사만야에 떠다니며 꼿들을 희롱하는 범나비가 아니엇던가 의심하도록 찌프러보지 못한 얼굴에실업스리만치 너그러운 우슴을띄우며 꼿이야기를들려준다

×

『온실속에잇는 꼿종류만말입니까 일일히 일흠을 이야기 하라면 한이업습니다 종류로 일천오백가지나되고 하나하나 그수호를 헤인다면 사만여본이나되고보니 아모리해도일흠을다외우고 잇지못합니다』

그는복도를 거르며기자에게손짓으로꼿을가리치며 자랑비슷한 어조로 설명을계속한다

『이것은 남아메리카 콜럼비야산인『카테리야』입니다 그다음이『씨네라리야』 그러고 이 성성목(猩猩木)은 인도에서온것이구요 또 저기잇는것이 『베코니야』『안스리드』 중국에서온수선화(水仙花)! 빗갈말입니까 빗갈도 종류와가티 한말로 이야기할수업습니다 보시는바와가티 대체우리사람의말은형용사가저 꼿빗갈과 모양만큼만히못가젓습니다』

그는 수송기가 종류되여잇는 꼿이사귀에 손을대이면서 무엇을생각하는지 한참동안말이업더니 다시입을열엇다

『저는이러케 생각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십년전바로 열일곱살에여기에 드러와서 밤낫으로꼿과더부러 살게되니 꼿치흡사히 애인처럼 생각됩니다 꼿가운데도 귀여운것이잇서서 그것은언제든지 조호자리에다 가저다노코 눈에띄우게합니다 그리고물이라도 한번더수고시프며 정성이더가는개잇스니 이상하지 안습니까 시럽는소리갓슨나 나종에 장가를 간댓자 꼿처럼아름답고 마음이변치안케 언제보아도 사랑스러운 안해가 어더지지안흘것 갓습니다』

절간에서 청춘을 장사지낸수녀(修女)처럼 그의정열은 온실안꼿들이 빼서갓는가 여기에도 피여지지못한 청춘의 부르지즘이 잇는것이엇다

『그리고 꼿치 애기처럼 생각듭니다 빗갈다른꼿의 화분교배를 시켜가지고 그다음 새로운씨를、뿌려서 키우는데 과연어떠한 빗갈의 꼿치되나하고 드려다보는것과 무럭무럭자라는것을 볼때는 내혼과 입김이 그속에 무든것는듯합니다』

그는 생명의 창조에대하야법열을 가지는것이엇다

『꼿가운데 어느것이 조호냐고요、글세요 저는 아네모네를조화합니다 꼿치귀가잇다면 내가온실속에서 이만흔꼿들이 저만밋고 사는데 이런말은 하지안는것이 조흘것갓습니다만은…… 그동안에 절실히 늣겨진것은사람의 노력이 십년을 계속하면 도를통하야 어려운것이 업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이 꼿들을 정말 식물로 생각하지안습니다 사람이라도 아조 친한 사람——아마 유치원보모들이 저가튼 생각을 가질겝니다 지금 난리가난다면 저는 이모든꼿들을 다리고 피난할것이며 길이막히면 꼿들가운데 숙어버릴것갓습니다』

×

이야기를 들르며 문을나올때 여기는 정말 지구우에 모든나라——위도와경도의 구별이업시 한곳에모아다노흔 조그마한 축도임을 새삼스러 느끼면서 이 꼿수인공의 압날을 축복하엿다

正初에들려오는凶報 東海上에風浪禍

漁船十隻遭難、四十名失踪

【江陵支局特電】지난이십구일에 강릉(江陵)으로부터 함경도바다로 명태잡으러나갓든 어선열네채가 풍랑을맛나 바다에서떠돌게되엿는데 그가운데서 네채는 강원도통천군고저(通川郡庫底)어업조합 대신환(大新丸)에 구조되야 함경남도신포항(新浦港)에 드러와다한다 열채는아직 소식을 알길이업스며 그열채에탄선원은 사십여명이나 된다한다

南總督、領事團受賀式

이일오전 열한시부터 남(南)총독은총독부 제일회의실에서 외국사신으로부터 신년 축하를 바덧는데 외국사신의 축하한말에 남총독의 답사가 잇슨다음 잔을들어 서로신년을 축복하고 식을마치엇다(사진은 수하식광경)

臨時急行脫線 十七名重輕傷

舊臘京釜線의慘事

삼십일일 오후네시이십분쯤에 경성으로부터 부산으로 가든림시 세일천급행렬차가 경부선매포(梅浦)신탄진(新灘津)사이를 진행하든중 별안간에 탈선되는동시에 한쪽으로 기울러저서 승객중 열일곱명이 경상을 입엇다 대전철도의원으로 데려다가 치료를 시켜서 아프로 여행을 계속하게하엿다 사고를낸 그렬차는 그날오후열시이십분에야회복되야 운전을 계속하엿다

貨物列車가 疾走中發火

新幕南川間事故

일일오전네시반쯤에 신막(新幕)으로부터 경성으로가든화물열차가 신막 남천(南川)사이를진행하든중 짐을실은 쪽차간에서불이 나서 큰소동을 이르켯다그 불이 꺼지기를 기다려서 겨우운전을 계속하엿는데 이때문에 봉천(奉天)으로부터 경성으로오는 준급행(準急行)제유열차는약 두시간반이나 늣게경성역에 도착하엿다

妓生飮毒

일일오후세시쯤해서부내 광화문통(光化門通)구십사번지 조선권번기생 박비향(朴美香)(一八)이라는기생이『칼모친』을먹고 자살을하랴고 고민하고잇는것을 집안사람들이 발견하고 곳부근 의사를청하야다가 응급치료한결과 생명에는 이상이업다고한다 원인은 요리집에서 손님에게홈빽욕을먹은것을 분하게생각하야 집이가난하야 기생노릇하는가엽슨신세를한탄하고 그와가티극우러든것이라고한다

人妻飮毒自殺

부내 병목정(竝木町)팔십이번지사는 리모(李某)의아해 김은순(金銀順)(二〇)이라는 젊은여자는 이일새벽세시에 아편을먹고 오전여덟시에 드디여 절명되엿다 그는 정월초하롯날에 술을 만히먹엇스므로 남편이너무 만히먹엇다고 꾸중을하고 말다툼을하엿는데 그만 분김에자살을 도모한것이라한다

義州通에大火

四棟全燒

일일 새벽한시쯤해서 부내의주통(義州通)일정목 삼십칠번지 구보전육삼랑(久保田六三郎)의 소유 보덕온천(報德溫泉)이라는 목욕탕에서 불이나서 그목조이층한채를 전소하고 불길은 강풍에 점점더 번저나가서 린접한 구보전씨 경영의 당구장(撞球場)이며 과장집 담배가게 모다 네채를전소식힌다음 한시간쯤지나서 소방대의 노력으로겨우진화되엿다 원인은 목욕탕부엌에서난실화한데 원인에 다소 수상한점이 잇서 방금소관서대문서에서는 목욕탕화부 량중봉(梁仲鳳)(一)하녀 김화선(金花善) 고용인김영길(金永吉)의 세명을 엄중취조중이다

怨情의兇刃 言爭끄테腹部刺傷

背反妻의新家庭을尋訪

삼십일일오후세시쯤해서 부내 예지정(禮智町)일백육십팔번지 김봉학(金鳳鶴)방에 어떤괴한이 침입하야 김봉학이의안해 차범란(車範蘭)(二)이를 붓잡고한참 싱강이를하다가 못내 품고잇던 식도를끄집어내어 차범란의아랫배를찔러서 중상을입힌 사건이 돌발하엿다 거금찍한죄를지은사람은 황해도봉산군서종면 영로리(鳳山郡西鍾面永老里) 오승정(吳勝政)씨집 고용인 조을원(趙乙元)(二七)이라는 사람으로 지난 소화십일년팔월까지 전기 차범란이와 동거를하고잇섯는데 전기 김봉학이와 눈이마저 본남편을 배반하고 어데론지 도망을하고말엇슴으로 조을원이는 이래 그안해를 각지로 차저단이든중 못내 전기예지동에서 살림을하고잇는것을 탐지하고 이를차저가서 차범란이를 자기와가티가자고권하엿스나 듯지안흠으로이와가티 칼부림을한것이라고 한다 소관동대문서에서는 방금가해자와 김봉학이를 인치하여다 가엄중취조중이다

國唱宋萬甲氏 宿痾로別世

朝鮮舊樂의元老

조선구악의 정통적 종파이며 근세에 유일한 국창(國唱)송만갑씨는 노환으로 미류하다가 지난일일 오후열한시 오십분에 시내왕십리정 칠백사십의번지의 이십사호 자택에서 별세하엿다 씨는 만고명창 송흥록(宋興祿)씨의영손으로 선세부터 우리구악의 조종이며 특히원각사(圓覺社)시대에 이동백씨와 함께 명성을떨치게 되여 거연히 우리 구악계에 유일한 대선배의 지위를 차지하엿는데 문하에 허다한명창을 배출식히고 만년에는 조선성악연구회의 교육부장으로서 후진양성에 노력해왓는데 향년은 칠십사세엿다 그리고 오는오일오후한시에 시내 각호정 조선성악연구회에서 영결식이잇겟다고 한다

朝鮮聲樂硏究會 **金容承氏** 談

송선생은 우리성악회뿐아니라 우리구악계의 원로로써우리들의 의망(倚望)하는바가태산과가텃는데 일조에별세를하시니 우리회원으로서 애통한바는말할것도 업고일반우리구악계를 위해서도 여간손실이 아닙니다 씨의후진으로는박록주(朴綠珠)김연수(金演洙)김광순(金光淳)가튼명창잇는 가수들이잇서 선생의 업적을뒤이울만하고가족으로는 이남삼손(二男三孫)이잇서 유족하게 지나니까 선생으로보아서는아모유감될것이업스나 그저후진을위해서 그런분은좀더수를하섯드면 조핫을것을매우 애석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악연구회로서도 그분이 일을보시든교육부장의 후임난이곤난한 문제로되여잇습니다

比島遠征籠球軍 싼大學을또一蹴

【마니라卅日發同盟】第一戰에快勝한比島遠征籠球團의 第二戰은 卅日午後八時半부터 當地에서擧行한바 前半七點을 리—드하엿다가 日本軍은後半戰이 뭇나려할제 스코어의差는 三點까지 接近되엿다가 比人應援團의 熱狂裡에 連勝하엿다

此一戰에 日本軍은 最初부터銳鋒의 對人防禦로 敵의攻擊을封鎖하고 橫山 宗像의野投成功으로前半리—드、後半에舊把한 比島軍은 除히長投를連發成功하야 스코어를接近시키더니 FW吳羽品下의 巧妙한『파로우』奏效하야 五點의差로이것다

第二次戰은 一日에 比島大學軍과對時케되엿다

日本40（18 22…20 15）35

實專蹴球對陣決定 普專軍은明日出戰

◆第一日(一日)第一回戰(A)名古屋高商對長崎高商(B)昭和高商對橫濱高專 ◆第二日(二日)同上球場第一回戰(C)和歌山高商對早大專門(D)高千穗高商對大倉高商 ◆第三日(三日)同上球場(第二回戰)(E)A의勝者對B의勝者(F)普成專門對福島高商(G)東洋商專對高松高商(H)C의勝者對D의勝者 ◆第四日(四日)同上球場(準決勝)(I)E의勝者對F의勝者(J)G의勝者對H의勝者 ◆第五日(五日)東大球場I의勝者對J의勝者決勝戰

한가지일에 전념하기를 십년 흐은 이십년、그래도 지리한 생각을 안갓고 오히려 그일에 새로운맛을 가지고 열과 정을바치는 사람、◆우리사회에서 가장 필요한사람은 이런사람이다 땅이좁아그러치 사람이적어 그러치 어떠한일에나、두고두고 전념하는사람이아주적고 또이대면어제도 오늘도그저 그대로 변화도 전진도업시 지난사람이 대부분이잇슬뿐。 그때문에 도돌다고 공을세운사람의빗은 뚜렷치안하엿다◆그러나 조선사회도 이제 폭이넓어지고 기괴가생겨 복잡한사회에 약간한 일시의 재조만으로는 저 고설수도업고 세상이우리를보아주지안는다 그중에 따라서 사회에 보탐이엽다 그중에빗나는것은오직정성을 다하야 몸을바치한일에전념하야 구든신념을 어든사람이다◆여기에 우리사회에 전진이잇고 향상이잇다 아름다운 새벽은 우리땅에 차저온것이다

라디오프로그람

二日（月曜）

◇午後六時 新春童話릴레이(一)『토끼세상』 尹石重

◇同六時二五分 講演『新年展望(一)』 韓相龍

◇同七時 뉴—스 天氣豫報

◇同七時二〇分 新作才談『옛親舊』—李達作

◇同七時五十分

◇同八時一〇分

◇同八時二〇分 新民謠 一、노들江邊 二、興打鈴 … 四、新高山打鈴 五、늴니리야 六、사발歌 七、방아打鈴 八、梁山道 伴奏 京城放送邦樂團

◇同九時 라디오小說『希望의새해』—方仁根作 卜惠淑

◇同九時三〇分 레코—드音樂

◇同九時四〇分(東) 時報 뉴—스 氣象通報 明日曆 翌日順序

◇同一〇時 地方으로보내는뉴—스

◇同一〇時一〇分 레코—드音樂

三日（火曜）

◇午前七時五一分(東)라디오體操 (第一放送에依함)

◇同一一時五〇分 氣象通報

◇正午(東)時報

◇午後零時五分(東)吹奏樂 一、君ケ代行進曲 吉本光藏作曲 二、喜歌劇『아름다운카라테아』序曲 슈페作曲 三、꿈의姿態 란비—作曲 四、芳草의幻影 江口夜詩作曲 五、軍艦行進曲 瀨戶口藤吉作曲 指揮樂長 內藤淸五 海軍軍樂隊

◇同零時三〇分 뉴—스

◇同一時 唱劇調의午後 一、短歌 楚漢歌 二、唱劇調 沈淸歌中 張水相宅가는데 杖鼓 李東伯 池龍九

◇同四時 뉴—스

◇同六時 新春童話릴레이(二)『토끼세상』— 鄭寅涍

◇同六時二五分 講演『新年展望(三)』 崔麟

◇同七時 뉴—스 天氣豫報

◇同七時三〇分 獨唱 朴景嬉

◇同八時 歌謠大會 實況—京城女子靑年會館으로부터中繼— 伴奏 京城放送管絃樂團

◇同八時一五分 唱劇『春香傳中御使出道하는데』

◇配役 御使 丁南希 卞學道 金世俊 將校 吳太石 郡守 李正業 戶長 金芳淳 春香 朴綠珠 香丹 金素香 唱 林小香 朝鮮聲樂硏究會

◇同九時 音律 靈山會相中 上靈山、中靈山 잔靈山 가락도도리 三絃

◇同九時三〇分 레코—드音樂

◇同九時四〇分(東)時報 뉴—스 氣象通報 明日曆 翌日順序

◇同一〇時 地方으로보내는뉴—스

◇同一〇時一〇分 레코—드音樂

韓仁輔氏被訴

【平南支社發】전 숭실전문학교(崇實專門)가 존폐의 기로에섯슬때、칠십만원의 자기재산을내여 학교경영을 인계하겟다고나섯든 평양기림리 한인보(韓仁輔)씨가 그후 뜻을변하야 그의사를 번복햇섯는데 그처사는사회를 속인것이라고 당시 한인보씨의 학교인계사업을 후원하며 찬하햇든 주간흠(朱幹欽)강병순(姜炳駿)고영한(高永翰)김영필(金永弼)채수현(蔡洙鉉)씨등은 얼마전 평양지방법원 검사국에 전기 한인보씨를 상대로 사기횡령죄로 고소를 햇다리유는학교를 맛기위해 돈을내다고햇다가 안한것이 사기요또 당시성대한 찬하회를 할때기념품삼백여원어치를 주엇섯는데 그후그대로가젓스니횡령이라는것이라한다

曆

▲一月三日(火曜)陰十一月十三日 ▲干支庚子 ▲日出 午前七時四十八分 ▲日南中 午後零時三十八分 ▲日入 午後五時二十七分 ▲月出 午後二時五十九分 ▲月入 午前四時二十四分 ▲滿潮(仁川)午前二時十分 午後三時

天氣豫報

豫報 今夜도明日도 개이고 치웁다 京畿全區도 이와갓다

昨日最高 二度

同最低 零下二度五

二日朝最低 零下九度八

同日正午 零下九度六

京城府南大門通二丁目一二七 內外國織物 毛織 絹布 木綿 京城商會 主 金潤秀 電話本局②一九七三 振替京城一〇四七番 電信略號(ケイ)

京城府鍾路二丁目四四番地 朝鮮鑛務所 主 李明世 電話(光)七八四番

靈泉醫院 朴忠秉 京城府橋北町 電話光三七八五番

京城府鍾路二丁目 白楊堂藥房 電話光一九一三番

京城府授恩町二〇三(團成社前) 金然權齒科醫院 電話(光)一〇七九番

京城府峴底町五五番地 咸濟醫院 電光③一四六六番

華山醫院 金斗鎬 京城府橋北町 電話光二七七五番

賀正

京城府仁寺町七六番地 首陽店 吳允泳 電話光化門一六五番

京城鍾路二丁目二三番地 서울洋服店 洪祀裕 電話光化門二八番

生果 食料雜貨 部產品 海苔 委托 京城府南大門通四丁目七四 金潤濟商店 電本②一八二一番

京城府鍾路二丁目四十五番地(譽元別室) 金溶堦齒科醫院 電話光化門三三〇一番

京城府公平町(和信後) 高級社交場 バー 鈴蘭 電話光化門一三三三番

京城府民館食堂

京城府光化門通一四七番地 高麗ホテル 電光③二三五七番

京城鍾路 高級社交場 白馬 電話光化門③一三九 一六〇七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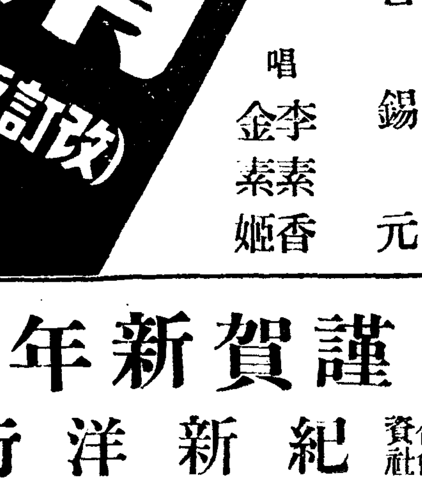
京城府武橋町九二番地 株式會社 漢城券番 電話本局②三五五五番 四五六五番 五二八四番

高麗映畫協會 滿洲映畫協會 提携製作 全發聲 福地萬里 (方今製作中) 全昌根歸鮮第一回監督作品 企劃責任者 李創用 高麗映畫協會 京城府鍾路二丁目 電話光③七八〇番

名唱베스트도렌 一等當選 沈淸(改訂版) 監督 安夕影 主演 金素英 曺錫元 唱 李素香 金素姬

謹賀新年 合資會社 紀新洋行 電話③一七四九番

H.



牛乳石鹼

치위에살결의美가 害저지기쉽습니다 科學的으로純粹하야 作用이至極히 溫和한 牛乳石鹼을愛用해주십시요

紳士의 面刀에도 皮膚를거칠게안코使用感이爽快!

本舖 大阪 共進舍石鹼株式會社

羅津工場地帶用地 二十餘萬坪內定

府內明湖洞을第一先着으로 新年劈頭에發表爲計

【羅津】총독부에 출장중이다가 용무를 필하고 도라오니진전구(田口)부윤의말에의하면 공장용지발표는 작년말내로 공시하려하엿든바 총독부로 부터모방면에까지 초안이경유되는관계로 저도신정초에는 공장용지로 이십여만평이 발표되리라하며 부회에서자문이경유하게되면이해매수에 착수하리라하는바 이십여만평매수대금액이 나진부금고로지출하게되고 대두방유지회사(大豆油脂會社)모수산계(某水産界)재벌이 착공하게되는날에는국제적도시나진항에 또다시 한층더의 나릿것으로 년전 종단항(終端港)결정시이상의 호경기를 능가하리라고 일반은 크게기대한다고한다

中央幼園에曙光

李鳳洙氏새로引繼 經營一新設備도擴充

【馬山】일개년총예산이 세계에서보지못할 일백십수원의 마산중앙유치원(馬山中央幼稚園)이 십수년에 경식인가는 낫스나 경영난은 날로더하야갈뿐 아니라 위선운동장이 좁아서 아동보건상여건가 적지안흐며 운동장이협소함으로 운동기구를 작만할길이업서 그들유치원당국자들의 울분은 스스로 흘러서 새여나옴으로 유치원과 자매관계가잇는 독립교회도들이 빈약한주머니를 짜내여보앗스나 그것으로는 도저히 대지한홀도살수업서 다시 수운(慈雲)가오대 잠겨잇는것을 청년독지가 리봉주(李鳳洙)씨로부터 시급한운동장문제를 해결코저 직석에서 일금일천오백원을쾌척하고 또다시 중앙유치원경영등 동시에인수키로되어서 여러해동안 경영난에 빠저 그운명을 헤아리기어렵든 중앙유치원도 인제는 검고무거운장막도사라지고 인가와함께 리봉수씨가튼 조흔임자를맛나 만년반석우에 정초하엿슴으로 이십일일동유치원에서는 휴원식(休園式)겸 인가축하급 리씨의 감사회를 성대히 개최하엿다고한다

中江鎭警備强化

望樓竣工式擧行

【中江鎭】중강진 경찰서에서는 국경경비진을 강화하기 위하야 당지중요지점산개소에 견고하고 핑장한 망루(望樓)가 준공되엿슴으로 지난이십팔일 오후한시에 경찰서아페서 관민다수가 모혀 준공식을 거행하엿는데 먼저황거요배가 잇섯고 세자(笹子)서장으로부터 금번망루준공에 만흔공헌이 잇는 동아토목계주임소도(東亞土木係主任小島)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고 무도장에서 축하연이잇슨후 폐회하엿다

白米十二石喜捨

京城李完榮氏美擧

【牙山】해마다 연말을 당하야 과세할곡량이없서 곤궁하지내는 적빈자를 위하야 백미 십여석을 희사한 독지가가 잇다 현주소를 경성부 재동정칠오번지(齋洞町七五)에둔 이완영(李完榮)씨는 십여년을두고 한결가티 년말에는 백미 수십석을 내여가지고 자기 고향인 충남아산군 온양면좌부리(牙山郡溫陽面左部里)부근에 거주하는 극빈자의게 백미한말식을 분급하여오더바 금년에도 지난삼십일일에 백미십이석으로 극빈자이백여명의게 한말식배부하엿다는바 일반은 씨의 특지에 감탄함을마지안는다고한다

災民에衣類付送

京畿道驪州上里서

【咸南支社發】경기도에서는 이십팔일 함남도의 수해리재민을 에 나누어 주라고의류등 일백

珠河縣立優級學校

卒業式盛大擧行

【珠河】주하현공립주하국민우급학교졸업식(珠河縣公立珠河國民優級學校卒業式)은 십이월이십칠일 오전열한시에 시작하야오후한시에 마첫다 학부형과 일반유지가 다수참석하엿고 당지학교조합추사 김두선(金斗善)씨외수명의 감격한축사가 잇섯다 동학교졸업생은 남사십사명 여자입명합십오명중 상급의교입의생이오명이요 한국민우급학교졸업생(河東國民優級學校卒業生)

現金九十圓拾得

【車輦館】지난삼십일일 오후영시반경 경의선 차련관역전광장에서 현금구십원팔십전과 위체용지가를 돈지갑을 습득하야절을 신고한사실이잇는대 그습득자는 철산군참면서부동(站面西部洞)최관수(崔觀洙)(ㅁ一)씨이라한다

咸中線實現遲速은 咸南의盛衰를左右

各地住民은初志貫徹에邁進

咸南道篇

벽참기지로서의 가장주요한 코ㅡ스인 소위북선『루ㅡ트』의 핵심을잡고잇는 함남도의 주요성과 비약으로돌립다 더욱이 사정되다시피된 모든자원과 신흥만주국과 북지의안정에따라 그와가장기픈 관게를맷게된 함남도의 군사적사업적내지 련락거점(據點)으로서의 진가는 바야흐로 유패(有覇)에들고 잇다고할수잇다

그러나 이러한것은 그외곽만으로는 가장파상적관찰이고 이반면에이러한 외곽적발전을 추진(推進)시킬만한 요소의 결핍도한 이저서는안된다 추진력이란 외신(外伸)은 잇슬수도업고 설사잇다하드래도 그기산이 극히활발적이다 이런점에잇서지금이비약흐로 비약함남의근시련기에 노히잇스며 도민들이 이근시련을이겨나갈라면 절대한힘파성의를 앗기지마려야할경우세게 해치고싶다

대체함남도의 주요한과제가 무엇인가? 즉무엇이당면한 현안이냐 그것은한두가지 가아니고 또일조에실현될것을 바래기도 어려운문제가만타 위선 그중가장급을요하는 몃가지를 기묘(己卯)신춘에감히 동의하고십다

함중선철도(咸中線鐵道)의부설실현 폐결핵료양소(肺結核療養所)증립 및 약습교정으로는 농촌의화리(禾利)제도의 철저적타파등이다

이것은 모두수년동안 가지고네려오던 현안으로서 주민들의 성의여하와 당국의이에대한 다소의 관심으로서 넉넉히해결할수잇는것으로 기어히 실현시켜야할것이다

함중선철도ㅣ함흥으로부터 평북중강진(中江鎭)간 삼백팔십키로의 소위함남의 중요관통선이다 이철도의주요점은 국내여으로는 물론 종전흥강신으로부터 경제뿔럭의 국제적직선로선이다 다시대안만주국의 임강현 하전 근래 함흥지방을중심으로한 함남현(臨江縣 撫松縣)을거처서 신중부입대 상황(商況)이 그활발 경(新京)까지달하는 실로함만지 성흥입으로 둘이여 빼처나가려는 외곽세력에반하야 외출의비출보이는것은 그원인이 종래 함흥지방의 유일한 상권(商圈)에 드러잇던 장진군등 함남벽지대와 평북후창(厚昌)자성(慈城)강계(江界)등지의 상권을 모조리 빼앗기게된판게라고한다 이점은 면번지상으로서도 소개하야잇거니와 전부터 이지대의 상략(商略)에 전력을다하고 잇던평남에서 이지대와의 교통을 개척하고서 상품을 단시일안으로 반출시켜서 그상권을 한손에거더쥐게된 판게라고한다 그와반대로 함흥으로부터의 상품반입은 그중간에 황초령(黃草嶺)이라는 천연적장벽이 가로노혀잇서 용이히 그반입을 허락하지안코잇다 근래야구(野口)재벌의신흥철도(新興鐵道)가장진 하갈(下碣)까지 개통되고잇스며 함흥택시회사의 평북칠평(七坪)까지의자동차운행이잇스나 전기 신흥철도는 최초회사의 전용선으로 그후 개방된것이나 일반의 이용에는 너무도 운반능력이 적으며 함흥택시회사의 운전자동차는 그수량이 극히적어 혜택이 적다

일방 장진으로부터 평북각지에이르는도로랑 다시 함남풍산(豐山)삼수(三水)까지이르는 도로의시설은 극히빈약하야 아직까지도 사람의등 흑은우마의힘을 비러서 물품를 운반하는상태다 그러므로 함흥지방서내금 부근도시의 전분(澱粉)약초(藥草)등의 소위 고지대를 상대로하는 무역상은 파산자가 속출하고잇스며 일반도매상도 이지방과의 교역(交易)을 중지하는자가 극히만타고한다

실로 함남의상권의 성쇠는전기각지방의 상권(商權)을 한손에 넣는지 못넣는지에좌우될것이다 이러의미에잇서서 함중선의 철도부설은 함남의사활문제가 되지안을수업스며 이것이 하로라도 속히실현되면 될사록함남도의상공계가 밧는이익이를것이다

◇

이철도의 부설운동은 벌써오륙년전부터 함흥을 중심으로하야 처음에는 홍남 서호(西湖)장진(長津)을 포괄하야 기성회를조직하얏스며 그후 평북측에서도 이에호응하야 후창 강계자성군민들까지 각각군민대회를열고서 모두 이운동에 일치매진키로되야 지금은 이도 일부 실개군이나 총단합하야 기세를 올리고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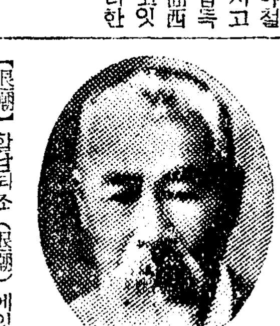
철도국에서도 주민의 성의에 움직인봇시 이철도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작년부터 금년에빠처서 살기로노나서 실지측량을하고잇다 그리하야 이철도의 실현은 시일문제라고할수잇다

난관은 오직부설예산 약일억원의조달이 방금전시체제의 경제로는 중용이지못할것이나 함남도민이 기대하고잇는것은 당국의성의여하에잇는것이다(계속)

咸南特派員 朱洛瑗記

社會에巨金喜捨

退潮張鴻載氏의壯擧



【退潮】함남퇴조(退潮)에잇는 장홍재(張鴻載)씨는 어릴때로부터빈한한 가정에 태여나 무수한 고생으로지나오다가 근검저축으로서·자수성가하야 금일에와서는 퇴조에 오직하나인 수산업자로서 활약하고잇는바 때때로사회사업에 뜻을두어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다대한 원조를안끼지안하여 일반의 칭송이 자자하여왓는데 이번에또한 지난달삼십일 자기의 회갑연에 장자 장일룡(張一龍)씨는 갑연준비를 하려고 할지음에 전기 장홍재씨는 동연중지를 시키고 그비용과다른비용을 아울러 이천칠백오십원이란 거금을 교육기관을 필두로 좌기와가티 각사회기관에 희사하엿다는데 퇴조는물론이요 인근지방인사까지 그의 금번장거에 대하야 칭양함을 마지안는다고한다

退潮尋常小學校 二千圓
退潮消防組 二百圓
寺洞講習所 百圓
夜學校後援會 百五十圓
各村落夜學六個所 三百圓
(사진은 장홍재씨)

母子列車에轢死傷

【宣川】살길을 구하야 만주땅에가잇는남편을 차저 어린것을 등에업고 철리길을 떨다안코가다가그만 실족하야 어린것파한가지 진행하는 열차속에 굴러들어가 사상을당한듯기에도 눈물나는 이야기가잇다

경상북도 상주군 낙동면 운평리(慶北尙州郡洛東面云坪里)삼백팔번지 홍중남(洪鐘男)(ㅁ)은 명해전에 만주에가 현재통화성통화현 동창가(通化省通化縣東昌街)환대(丸大)운송업을 하고잇는 남편조수연(趙壽衍)을차저금년일곱살난아들 성옥(成玉)이를업고천리길을지루하게가다가노하(路下)선천(宣川)간에 이르렀슬때 어린것이 보채여 승강대에 나섯다가 고만 밋끄러저달리는 렬차속에 드러가 중상을입어 현재 인제병원에 입원치료중이요 애기는 그리운 압빠의얼굴도못보고무참히죽고말엇다

가튼도중 중상의몸으로 병원의 신세를 지면서 아직 어린것이 죽은줄도 모르고 드러가는사람마다 애기는 어떠케되엿느냐 어대잇느냐고 뭇는양은심히 애처로워보인다

第一回志願兵에게 慰問金을寄託

【鎭南浦】진남포부 후포리(後浦里)중조원장의 이종섭(李鍾燮)씨는 지난달십일 보병제칠십칠련대에 입영한 제일회 특별지원병 이십삼명에게 위문금으로 뇌호(瀨戶)평남경찰부장에게 백원을 기탁하엿스므로 도경찰부에서는 이십팔일 보병제칠십칠련대에 전달하엿다

勤勞收入으로 獻金美談四題

【咸南支社發】국방헌금하야온근로미담(勤勞美談)

(其一) 함주군상조양면 상한리(咸州郡上朝陽面上閑里)부인회(婦人會)에서는 지난번므로조산에자갈 운반을하야 어든돈여원을 방공기재비로헌금ㅣ

(其二) 주서공립소학교(州西小學校)륙학년생 일동은 실습지생산물 매각대금중에서 일원을 대(國防獻)다섯개를 보내다

(其三) 함주군주서면 신중리(咸州郡州西面新中里)부인부에서는오배평을 공동경작하야 십여원수입으로국방헌금

(其四) 그동리 청년부에서는 "가마니"를짜서 그수입을 국방헌금으로헌금

三眞學校擴充案

理事會組織코活動

【鎭西洞】지지동장로교회에서경영하던 사립삼진학교(私立三眞學校)경영권이 최준의 김홍한(崔俊翼金弘漢)양씨의게 인계되자 첫거름으로 지난삼십일일 저녁여덜시에 본교사무실에 유지이십여명이 회집하야 이사회를 조직하고 오는 해빙기를 당하야 교실을 증축하기로 하얏스며 또는학년을 연장하기위하야 지방유지들이 연서날인하야 도당국에 진정하기로하고 동위원은 원부이사장파 설립자급교장을 선택한후 동십시에 폐회하엿다는데 임원은다음과갓다한다

理事長 金啓瀧 副理事長 張學煥 書記 金仁學 副 金聖九 會計 金學奎 副 金昇鎬 理事 裵晃夏 李信根 金承璿 徐恒直 姜基煜 金鼎鎬 金鎭衛 金桂恒 金智學 林載洙 李基昌 李鍾晩 盧鍾實 韓鳳三 宋仁 金桂燦 韓濱鐸 金昇鎬 閔 金仁學 李偉良 康萬錫

咸興商議所豫算

二萬二千七十四圓

【咸南支社發】함흥상공회의소명년도예산은 면정을마치고 근일총회에상정할터이라고하는데 예산액은 이만이천칠십사원으로금년의 일만육천오백오십여원에비하야 오천오백이십이원의 증가를 보이고잇다 이것은 세민상공상담소가 설치되야 그예산이 포함되얏기때문이라고한다

家庭婦人座談會

各種料理講習會도同時開催

本報慶南支社主催

【慶南支社發】본사경남지사에서는 오는십이일부터 삼일간 초량신사 이십륙번지 곽재상(郭在相)씨댁에서 신춘가정부인좌담회와 각종요리강습회를열기로되엿다 좌담회의 요지는

一、조선의복을 어떠케개량할까
一、조선음식은 어떠케개량할까
一、자녀교육은 어떠케지킬가
一、예의작법은 어떠케하나
一、회장급제조법은 어떠한가

등에대하야 사계의 권위자인진주여자기예학원장 권옥혜(權玉海)여사가 다년간 연구와경험을 토대로 이야기하게 되엿스며 요리강습도 동여사의 독특한 수법으로 조선가정에서 일상쓰는 재료로서 맛잇고 경제적인 조리법을 실지로 강습케하기로 되엿는데 희망자는 회비 일원을첨부하야 일일까지 본사경남지사에 신입하기바란다

長篇小說 林巨正 【197】

洪碧初 作
金能超 畵

평산쌈 (三七)

이때 오위부장(五衛部將)들중의 충좌전위(忠佐前衛)에 매인 연천령(延千齡)은 용맹이 무쌍하고 호분우위(虎賁右衛)에 매인 리의식(李義植)은 무예가출중하야 부장청(部將廳)에서 일음틈이 노랑든까닭으로 여무사람이 뭐피어서 정수익이와 가치가게되엿다 선전관 정수익이 전교(傳敎)와 표신(標信)과 마패(馬牌)를 밧사온후 궐내에서 물러나오며 즉시 부장 두사람을 다리고 황해도 길을 떠나는데 동짓달 치운날에 밤새도록 가기야 하함에 철동주어 송이까지 어한제구(禦寒諸具)를 단단이들 차리엿다 첫날밤을 도적놈들이 평산마산니에 가서 모인다는것이 스무여섯새벽이라니 아모로 어룰동안에 봉산을 사백이십니길을 가서 피병(疲兵)하야가지고 다시 마산니까지 소통하 수빠니 휠길을 가야할터인데 거기다가 금교서 찰방을 보고가는데 지체가 될것이고 또 봉산가서 기병하는데 동안이 걸릴것이라 날짜가 촉박하면 압서서 밤길을 가도 빨리가야할 판이엇다

선전관 일행이 떠나는날 반나절 해로 파주까지 달려와서 저녁밥들을 먹고 파주서부터 밤길을 시작하얏다 횃불을 갈횃불리고 역마다 말을 가려타고 행군과 견마잡이 역졸들이 숙영흡잡들을 치도록 달리엇다 행군과 역졸은 옷이 바찻이라도 땀을 흘리는데 거해부대가튼 말탄량반들은 치워서 덜덜 떨엇다 역에 올때마다 번번이 술로 어한을하고 그리하고도 찰방이 길까집을 깨이럽이키고 방에 틀어앉저서 몸들을 녹이엇다 이튼날 아침 해도들때 금교역말을 당도하얏다 정수익이 우선 객주를 잡고 들어안저서 전교방을고은 사연을 찰방 강려에게 통지하얏더니 얼마동안 지나서 편사로 들어오라고 마중하인들이 나왓다 정수익이 부장들과가티 마중나온 하인들을 따라서 찰방관사에 들어와보니 마당에 향상을 차려노코 향상아페 강려가 모대(帽帶)하고 서잇스며 정수익이 향상여페 와서서뒤 강려는 분향(焚香)하고 북향재배(北向再拜)하고 꿀어안저서 정수익이의 내주는 전교를 공손히 바더서 밧들어읽것다 그전교는 달른것이 아니라 선전관 정수익은 부장 연천령과 리의식을 다리고 황해도와 가서 봉산군수 리흠례와 금교찰방 강려와 상의하야 평산 남면 마산니에 모인다는 도적들을 잡으라는것이엇다 강려가 전교를 정수익에게 돌우주고 일어나서

『인제방으로들 들어가십시다』

하고 어명(御命)을 몸에바든 정수익이를 향하야 팔을 치어들고 먼저 올라가기를 청하얏다 방에 들어와서도 정수익이를 상좌에 안치고 좌정들한뒤로 바게나가 편목을 갈어닙고 초면인사들을 마치고 강려는 다시들어와안저서 정수익이를보고

『그지운밤에 밤길을 엇더케 오섯단말슴이요장사들이시우』

하고 의론말을하얏다

『오늘 봉산을 가자면 또 밤길을해야하지안켓소? 여기서 봉산이 일백몃니요?』

『일백팔십니요』

『그럼 얼른 객주에 나가서 아침시켜 먹구 떠나야겟소』

『아침은 시켯스니 염녀마시구 일이나 의론하십시다 내생각엔 도둑놈들이 내일 마산니서 모인다면 당일에 허터질리는 업스니까 모레 마산니를 드리칠 작정하구 준비하는게 조흘것갓소』

『어떠케 준비한단말이요』

『나는 수하에 군사가업는사람이라 평산가서 부사하구 의논해서 귀병해가지구 평산북면 어수동(御水洞)으루 나갈테니 여러분은 봉산 가서서 군수하구가치 군사를 조발해서 영솔하구 모레 새벽까지 어수동 와서 합세하두룩해보시오』

『어수동서 마산니가 갓갑소』

『봉산서 평산경내까지 왓다가 다시마산니를 나가자면 길을굽것게되오』

『그럼 내일 어수동서 만나두룩해보는게 조치안소』

『군사조발하는데 동안이 얼마나 걸릴줄 압구 그러시우 그나그뿐이요 여러분이 년일빼친길에 점점을 엇더케 하실테요 오늘이구 내일이구 하로밧븐 실컨 주무서야하우』

『아무리나 그럼 모레루 정입하구 준비해봅시다』

정수익이 강려와 의론을 작정한뒤 금교서 아침밥을 먹고 부장 두사람마가치 봉산으로 떠나왓다

東和礦業株式會社

窒素肥料販賣株式會社

活版石版 各種印刷 和洋帳簿 製本一式 東亞社印刷所 京城府西大門町一ノ一六六 電話光化門③三一三一番

圖書出版 合資會社 人文社 京城府光化門通(光化門ビル) 電話(光)二六四四番 振替京城二八六三三番

東洋燃料株式會社 004355

絹織物 綿絲布 卸商 株式會社 廣澤商會 京城府茶屋町八十九番地 電話本局② 長四二七三 五二六四番

白金金銀 寶石細工 美術製作 卸商 金東完商店 京城府中林町一四〇番地 振替京城一四二二一番 長電話本局二二七八番

株式會社 和信
鮮一紙物株式會社
和信連鎖店株式會社
大同興業株式會社

資本金五百萬圓 無盡契約高八千萬圓 朝鮮中央無盡株式會社 京城府永樂町二丁目二五 代表電話本局七一二二番 支店 京城、仁川、開城、水原 出張所 春川、鐵原、江陵、原州

朝鮮取引所
證劵取引員組合
大日本航空株式會社 京城支所

鮮滿運輸計算株式會社
京城 三中井
丁子屋

濟南

金城貿易公司主 濟南朝鮮人會會長 附屬幼稚園院長 濟南國民精神總動員委員 山東興亞協會濟南支部長 片倉生命濟南代理店主 朝鮮日報濟南支局顧問
金大裕 電話一五六六番

濟南市、昇平街 **朝鮮舘本店** 電話二六六二番

濟南市三大馬路緯十路 **朝鮮舘第一支店** 電話一六六二番

濟南市二大馬路緯一路 海陸物產 委託賣買 **河東貿易公司** 主 鄭允鳳 鄭錫楚 電話二八七六番

濟南市三大馬路緯九路二二三 御料理 **金海樓** 主 崔五德 電五五三番

濟南市四大馬路緯一路 朝鮮カフエー **樂園** 主 金斗滿 電二八八九番

濟南朝鮮人會 會長 金大裕 理事 李學烽 書記 韓成丁 保姆 李貞實 外役員一同

濟南市四大馬路緯一路 貿易商 **義德號** 主 金龍淵 金龍源 電話三三五六番 電略キ(又)ギトク

濟南市經二路緯六路二一九號 土木建築請負業 **金工務所濟南出張所** 代表者 金道薛 電話二七三九番

濟南市四大馬路緯二路大觀園七號 海陸物產委託貿易 **東洋商會** 主 白熙鳳 電話二六五六番

濟南市商埠地緯一路緯二路九三號 海陸物產 食料雜貨 委託販賣 **義德貿易公司** 田道永 金聖律 電話九七番

濟南市一大馬路 **盛昌洋行** 主 金善仲

濟南市四大馬路大觀園市 **白根澤**

濟南驛前通 **東洋旅舘** 主 全泓澤 電二一二番 附設食堂

濟南市四大馬路緯門外 **貫基萬**

主濟南市一大馬路 **ウラチオ食堂** 主 金觀德 電一六三番

濟南市四大馬路緯門外 貿易商 **玉信號** 主 韓明鎬

濟南市六大馬路緯一路 **吉永麵屋** 主 金永俊 アジアクーリニンダ 主 具滋銀 電話二八二九番

濟南 **寶來貿易公司** 孫英一 電話二五六番

濟南市三大馬路緯九路二二〇 **松月舘** 主 鄭鳳洙

濟南市三大馬路緯九路六六六 御料理 **太平舘**

濟南市二大馬路緯八路 **平壤旅舘** 主 全辛得 電話二三三番 直營日光洋行

濟南市二大馬路緯一路 活版石版印刷 各種帳簿 **同茂印刷所** 具然佩 電話六七八番

濟南市二大馬路東 貿易商 **永成號** 主 張英坤 電話一七八番

濟南市二大馬路緯五路 **平和旅舘** 電話二八六六番

濟南 **順天醫院** 平壤醫學士 朴應鎭

濟南市二大馬路小緯六路一二 **亞細亞旅舘** 主 李根出 電話二〇三三番

濟南市六大馬路緯一路 **日成公司** 主 白信玉

濟南市四大馬路緯八路二一五 料理屋 **永樂亭** 主 陳介同

濟南五大馬路緯一路 **日の出商會** 主 白榮均

濟南市一大馬路五三四 **光成醫院** 院長 崔永國 電話二六七番

濟南市三大馬路緯四路南 食料品 煙草小賣 化粧品 **金山商店** 電話三四五番

濟南市七大馬路緯二路 **權明善**

濟南市商埠衛先志巷 貿易土產 **金泰公司** 主 南廷浩

濟南市四大馬路緯門外三號 **金文成**

濟南市四大馬路緯二路 **正金洋行** 主 金基煥

濟南市五大馬路緯一路 **新興貿易公司** 主 辛寶鳳

濟南市四大馬路緯門外三號 白米商 **金田商會** 主 文尙呂

濟南市一大馬路緯一路北 **金命赫**

濟南市二大馬路緯四路 時計、貴金屬、蓄音機、眼鏡 **明星商會** 主 權□ 電六〇九番

濟南市二大馬路院新街三六 **第一公司** 主 李昌□ 電二六六八番

濟南市四大馬路大觀園 貿易商 **泰昌號** 主 金成元

濟南市三大馬路緯八路 **東光公司** 主 韓桂□ 電二三九二番

濟南市六大馬路緯一路 **青松公司** 主 車應元

濟南市四大馬路緯一路四七〇 **韓益燮**

濟南市二大馬路緯十一路 **大有公司**

濟南市三大馬路緯九路 **衆樂食道園** 金東斗 朴□鎬

濟南市四大馬路緯八路 各種雜貨 食料品商 **金水洋行** 主 獨孤□植

濟南市四大馬路緯四路 **金井樓**

濟南市四大馬路緯門外 二十一號 **瑞順號**

濟南市四大馬路緯一路 貿易商 **金林號** 主 □昌 電話三四四番

濟南市三大馬路緯九路 海陸物產 食料品 **大同洋行** 主 金亨鎬

濟南市四大馬路緯門外 **大昌號** 主 金義先

濟南市商埠區魏家莊一五四 **大吉商店** 主 卓時彩

濟南市四大馬路緯四路 御料理 **新大和**

濟南市商埠衛先志巷 **協成公司** 主 辛東根

濟南市七大馬路緯一路 **安東洙**

濟南市緯石橋 **新新號** 主 金弘□ 電二六六三番

濟南市五大馬路緯一路 **義成號** 主 金春山 電話二四四七番

濟南市一大馬路東口緯縣街 **德興公司** 主 李廷□

濟南市三大馬路緯九路二〇八 **丸一公司** 主 金濬淳 電話二六一七番

濟南市三大馬路緯九路一八四 **鮮美舘** 電二三六三番

濟南市四大馬路緯門外 **共信號** 主 金亨濬

濟南市五大馬路緯二路 **泰信公司** 主 白東憲

濟南市四大馬路緯門外三 貿易商 **崔永聞**

濟南市四大馬路緯門外一五二 貿易商 **朴明俊**

濟南商埠衛先志巷二一 **和信公司** 主 鄭在希 朴義俊

濟南市鳳翔街一四號 **丸中工業社** 主 孫水石

濟南六大馬路緯一路 **韓錫成**

濟南四大馬路緯一路 **李時雄**

南市

京義線南市驛前 高粱酒 燒酎 釀造業 **東成海** 電話三〇番 振替京城一二四四七番

京義線南市驛前 高等料理 **新迎樓** 卓潤洙

京義線南市驛前 **南市醫院** 院長 許□元 產婦人科 內科 小兒科 眼耳鼻咽喉科 一般外科 紫外線赤外線治療 入院室完備 電話三四番 振替口座京城一六二〇七番

京義線南市驛前 **海東醫院** 院長 崔仁極 崔仁贊 電話二七番

龍川郡外下面南㯰洞 穀物貿易 **益昌精米所** 金熙舜 白柱默 尹元坤

京義線南市驛前 穀物貿易 委託販賣 **新光商會** 李龍守 李炳珠 洪載淳 電話五三番

京義線南市驛前 機械農具商 **龍新機械商會** キセキ籾摺機、チルド式籾摺精米機 各種發動機、揚水ポンプ製材丸木セメント瓦製造 朝鮮ゴムロール販賣 ヤンマーヂーゼルエンヂン特約販賣店 電話五一番 電略(リ)

京義線南市驛前 ◉**朝鮮運送株式會社代行營業所** 電話七番 發受電略〇ポン 振替京城一五六〇五番

京義線南市驛前 **南市穀產組合** 電話一九番

京義線南市驛前 **南市穀物商組合** 電話一一番

平安北道龍川郡南市面內谷井洞一〇四 **安東善** 振替京城一三九七三番

京義線南市驛前 **黃元憲**

南市驛前 **東光醫院** 金尙應

南市驛前 **大生醫院** 醫師 金基炯

京義線南市驛前 穀物貿易 委託販賣 **泰昌商會** 電話五五番

京義線南市驛前 穀物貿易 精白米業 **永隆商會** 李貞根 金竹森

京義線南市驛前 朝鮮燒酎釀造業 明治生命保險南市代理店 前川果樹園 **裕成海** 電話二〇七一番 振替口座京城一〇八九番

京義線南市驛前 精米業 **義成商會** 電話一八番 明治生命保險代理店

京義線南市驛前 綢緞布木 メリヤス及石油 **明山商店** 安宅鳳

京義線南市驛前 **新安齒科醫院** 崔奎瑞

龍川郡外上面松下洞 穀物貿易 **三信精米所** 崔信道 李炳學 崔學根

京義線南市驛前 **永信材木店** 李時俊

龍川郡內中面東山洞 **車德煥**

鐵山郡西林面化炭洞 **嚴國一**

龍川郡外上面安平洞 **金元順**

龍川郡內中面東山洞 **車洪疇**

外上面職員一同

南市農業倉庫 電話一九番

京義線南市驛前 **新盛商會** 電話四八番

京義線南市驛前 玄白米製造 貿易 滿洲物 農具類 **三合商會** 李正甫 電話三五番

京義線南市驛前 蕎麥製粉 冷麵業 **龍江麵店** 主 吳錫□ 電話一二番

京義線南市驛前 雜穀貿易 白米業及商 製繩業 **龍成商會**

京義線南市驛前 食料雜貨卸商 **第一菓子店**

京義線南市驛前 絹綿布 綿織物 **松南商會**

金龍錫商店

京義線南市驛前 穀物貿易商 **三光商會**

京義線南市驛前 綢緞布木 石油販賣 **新光商店** 金春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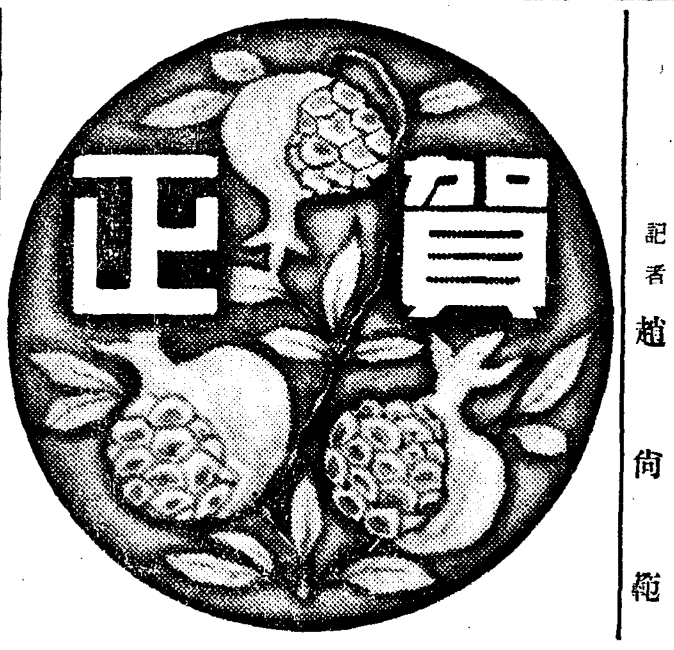
京義線南市驛前 各種自轉車及洋靴製造 **銅鉉商會**

南市金融組合 職員一同

京義線南市驛前 **李允錫商店**

南市和信連鎖店 **東光商店** 電話一六番 **石松旅舘**

朝鮮日報社南市支局 支局長 李鐸秀 總務 李殷洙 記者 趙尙範



永興商店 張世勛

龍川南市 **李元鎭**

京義線南市驛前 高粱酒 朝日清酒 朝日燒酎 **東成海出張所** 文濟達

京義線南市驛前 布木雜貨商 **三合成**

京義線南市驛前 中國料理 **永合園** 電話三三番

龍川郡外上面西林洞 南市金融組合長 東亞日報社顧問南市支局 **李甲會**

陽春舘 李根浩

論山

京城府觀水町 **金弘鎭** 電話光六五八番

論山月曜會 電話二一番

湖南線論山驛前 **㊅大東運送店** 代表者 朴敬卓

論山郡論山邑 芝山共勵組合長 **李英相**

論山郡恩津文藝 直員 **金蘭洙**

忠淸南道 會議員 **裵榮春**

論山邑大榮舖 南一堂 李□□ 徐□□

湖南線論山邑旭町 米穀雜貨 煙草小賣 **東振商會** 金秉漢

湖南線論山邑 **昭和精米所** 金啓洪 電話六六番

論山邑 天誠堂病院長 **郭海鳳**

論山郡城東面 協議會員 **尹德炳** 電話二五番

論山郡夫赤面馬九坪 **鄭載昊**

論山邑旭町 **尹夔炳** 電話二七番

論山邑恩興場 **徐丙周**

湖南線論山驛前 **忠南自動車運輸株式會社** 電話一六二 一〇〇番

論山金融組合 理事 吳舜泳

論山 第一生命支所長 **李海龍**

論山郡城東面 面長 **姜榮培** 喪中欠禮

論山郡論山邑旮里 **金永聲**

論山郡光石面 協議會員 **尹完炳**

論山 邑長 **尹胄炳**

論山邑旭町 米穀商會 **金在祿**

論山本町通 綢緞布木 **尹相濠商店**

論山郡光石面 泉洞精米所 **梁成鎬**

論山邑 **旺山材木商會** 電話六九番

湖南線論山驛前 本社記者 支局長 **徐琦淳**

論山邑大和町 一區區長 **李相植**

論山邑 **李輔建 李輔炳**

論山郡論山邑旮里 **孫進昌**

論山學校組合 議員 **高橋式三郎**

論山郡夫赤面阿湖里 **金永祿**

論山郡光石面恩寺里 **吳淳根精米所**

論山邑 活版石版 カレンダ製造 **文星印刷所** 李斗□

論山旭町 **中央□店**

論山郡彩雲面 連山共勵組合長 **金祝洙**

扶餘郡草村面□□里 **李輔吉**

論山邑本町 振興會長 **張志喆**

論山邑大和町 **金大吉**

論山邑本町 **曺圭鳳**

論山郡城東面 協議會員 **金鋼世**

論山郡城東面定止里 **崔圭玄**

論山郡城東揚水組合 **尹相遠**

論山郡城東面 協議會員 **徐秉勳**

論山郡論山邑 邑會議員 **孫進奎**

論山郡論山邑旮里 **孫進燁**

論山郡光石面葛山里 振興會長 **方鍾九**

論山郡光石面 葛山精米所 **宋贊國**

論山博愛寫眞舘 技師 **金相述**

論山邑榮町 米穀商會 **姜昌熙**

論山邑本町 司法書士 **金炯鉉**

論山大和町 **金昇洙** 電話二五番

論山本町通 **李在鳳自轉車店**

論山邑 **朴丙駿** 電話五八番

論山停車場通 各種カード印刷專門 **徐相樂**

論山邑醫濟局大藥舖 **扈淳珍**

論山邑 **山川寫眞舘** 電話二二番

論山郡城東面 協議會員 **趙陽九**

古邑

財團法人五山學校 五山中學校 五山私立尋常小學校

京義線古邑驛前 **朴天圭醫院** 院長 朴天圭 金周銓 金寅默 尹在淑 李鳳三

京義線古邑驛前 機械農具 木材石物 **古邑商會** 電話一九番

京義線古邑驛前 玄米製造 **定州商會** 電話二七番

葛山面光東洞 **光東學院** 院長 文□□ 張慶子 文基宅 李應三 白光□ 朴東□

德彥面 **金淩相**

德彥面 **金熹聖**

古邑驛前 **金元銓**

京義線古邑驛前 **古邑和信連鎖店** 電話古邑第一〇番 私書函古邑第二九號 振替京城一九六二〇番

京義線古邑驛前 精白米業 穀物貿易 肥料木材 **三合精米所** 電話長五番

京義線古邑驛前 玄米製造 精白米業 穀物貿易 委託販賣 **信成精米所** 支店 南川驛前 電話長六番

京義線古邑驛前 穀物貿易 玄米製造 **泰興商會** 主 金壽銓 電話三三番

京義線古邑驛前 藥種商 **泰土藥房** 取次電話古邑二〇番

京義線古邑驛前南街 **古邑醫院** 院長 金鳳濟 金德娘 電話一六番

京義線古邑驛前 **中央醫院** 院長 金相務 電話二〇番

興麓洞 **興麓學院**

葛山面鼎陽洞 **扶陽學院** 院長 金秉泰

京義線古邑驛前 各種皮物貿易 セメント工業 **金龍精米所 永成商店** 工場 支店

京義線古邑驛前 綢緞布木商 **新興商店** 電話一八番

京義線古邑驛前 **昭和會舘** 電話古邑一五番

京義線古邑驛前 **古邑自轉車店** 主 李春□

京義線古邑驛前 料理 **大成舘** 電話三四番 妓生 金京心 李秋月 崔玉仙 姜山月 宋月仙 朱鳳仙

日新洞 **金起湖**

古邑 **桂致三**

觀海洞 **梁贊濟**

日新洞 **李鶴壽 李虎洙 李鴻洙**

古邑面日新洞 **李弼圭**

葛峴洞 **葛峴學院**

馬山面東倉洞 **鳳陽學院** 院長 洪□□

京義線古邑驛前 **朝鮮運送株式會社代行營業所** 電話古邑七番

京義線古邑驛前 **第一自轉車商會**

京義線古邑驛前 コントロールミシン機販賣 **新興自轉車店** 主 金永俊

京義線古邑驛前 蕎麥製粉 白米製造 精麥販賣 **古邑製粉工場** 主 李星圭

京義線古邑驛前聖潔教會前 **古邑湯屋** 主 金振洙

京義線古邑驛前 各種鐵工製造 **光邑鐵工所**

京義線古邑驛前 吉本式一人用一馬籾摺製造 **金星商會**

京義線古邑驛前 食料品一切 雜貨及小賣 **明信商店** 主 張□

京義線古邑驛前 **平壤醫院** 院長 表瑞□

京義線古邑驛前五川 **張泰龍**

京義線古邑驛前 綢緞布木 各種石油 毛絲絹綿 **李道欽商店** 電話古邑二一番

京義線古邑驛前 綢緞布木商 **盧孝根商店**

京義線古邑驛前 綢緞布木 精白米業 海陸產物 **顏商店** 主 金洛亨

古邑 **金塡植**

逸海洞 **盧洪錫**

日新洞 **李宅圭**

京義線古邑驛前 **洪鍾世** 電話古邑十三番

逸海洞 **林光宣**

古邑驛前 精白米製造 **泰永商會** 電話古邑二三番

京義線古邑驛前 玄米製造 穀物貿易 **東星商會**

古德面觀海洞 **觀海消費組合**

古德面觀海洞 **雲信商會**

京義線古邑驛前 **寶光堂時計店**

京義線古邑驛前 綢緞布木商 **光林商會**

京義線古邑驛前 **古邑司法書士事務所**

京義線古邑驛前五山 **水源商店** 主 金日煥

光東洞 **文基榮**

京義線古邑驛前 **金朝熙**

古邑 **鄭元釆**

京義線古邑驛前 **盧昌範**

竹川

碧城郡竹川 **姜錫鳳**

碧城郡竹川 **弘濟醫院** 院長 朴應奉

碧城郡竹川 **和信連鎖店** 主 李鎔□

碧城郡竹川 綢緞布木 和洋雜貨 **中央商會** 李根□ 李鎔□

碧城郡竹川 絹綿布 **朴惟培**

朝鮮日報

新年號 其五

噴火口上의歐洲政局

現狀打破主義에 兩老大國戰慄!

風雨難測의植民地返還問題

英佛

伊太利의佛領튜니스、코르시카返還要求問題로 또다시歐洲政局은混亂狀態에빠지어 現狀維持策에條念이업는 英佛兩國의苦悶은 一層深刻하게되엿다 묜헨四國會談에依하야 쳬코問題가 獨逸의要求대로解決된後 英獨、獨佛、英伊、佛伊間에는 互相間國交調整交涉이繼續된結果 第一로 英伊協定이發効되고 英佛協調가 强化되며 獨佛間에도 不侵略、不戰爭을主旨로한 共同宣言이成立되야 英佛獨伊四國間의協定締結로써 現狀維持派이며 獨裁主義國家인 獨伊樞軸과 現狀維持派이며 民主主義國家인英佛樞軸이 互相接近됨에따라 歐洲政局은 大體로 安定될듯이 期待되든때에 十一月三十日 伊太利議會에서 튜니스、코르시카要求問題가 이러나서/그間好轉되여가든 佛伊關係가 急激히 再惡化될뿐만아니라 모처럼 安定될氣運이보이든 歐洲政局은 또다시 緊張되야 英佛의現狀維持政策은 커다란脅威를 밧게되엿다。

前番에 英佛兩國의 讓步에依하야 解決된 쳬코問題나 今番伊太利의 튜니스、코르시카要求問題나 그問題의 根本原因은結局 獨伊兩國의 現狀打破政策에 依하는것으로 英佛兩國의 苦悶은 어떠케하면 現狀을 維持하야 現在그들이가지고잇는 領土와權益을 確保할가 하는데잇거니와 이에 英佛은 쳬코問題、伊에承認問題等과가튼 問題에잇서 若干의讓步를하면서 現狀을維持하기에 汲汲하고잇스나 獨伊側은 英佛의 그가튼讓步로는 滿足치안코 獨逸은舊獨領植民地返還을要求하며 伊太利는 튜니스、코르시카等返還과밋 地中海의覇權을 主張하야 끄칠바를모르는 情勢로서 今年의 歐洲政局이야말로 文字그대로 多事多端하게될것이다。

◇

現在에는 튜니스、코르시카要求問題를 圍繞한 佛伊關係가歐洲政局의 最前面에나타나잇스나 亦是今後歐洲의 動向은 獨逸의 舊植民地返還要求와 멋이에對應할英國의 態度如何로써 決定될것으로 튜니스問題는 所謂『가지지못한나라』의『가진나라』에 對한植民地再分割要求의 試金石으로서 注目을 끌고잇다。

튜니스問題는 今番에 突然이러난것가트나 其實은 相當히오래前부터 佛伊間에 問題되여오든것으로 一八八一年 튜니스가 佛蘭西의 保護領이된때부터 佛國과 伊太利는 서로 그覇權을 다투엇다 그當時튜니스에 在住하든 伊太利人은 約二萬內外이든것이 今番 伊議會에서 챠노外相이 外交演說을 하든中 議員들은 이『튜니스』『코르시카』라고 絕叫하야 드디여 表面化한것인데 佛政府는 寸土라도 伊太利에 領土를 割讓할意思는업다고强硬한 態度를 取하고잇는바 伊政府는 어떠한態度로 그目的을貫徹하려 할것인가 그態度如何에따라서는 佛伊關係는 最惡의境遇를 豫想치안흘수 업게되엿다 그러나 英佛消息通의 觀[illegible]와가티 伊太利는튜니스、코르시카要求問題를 내어걸고 西班牙問題의 徹底的解決達成、地中海問題의 有利解決을 꾀하는程度라고하면 佛伊關係는 最後의事態에 이르지안코 解決지울수도잇슬것이나 西班牙問題解決이遷延되야 西班牙에 親伊政府가樹立되면 발레아리諸島가 伊太利의 支配下에 들어갈것은 明確한것으로 발레아리諸島가 伊太利의 支配下에 들게되면 北阿弗利加와 佛本國과를 連絡하는 生命線이 全然切斷되야 佛國에 致命的打擊을 줄것은 勿論이고 또튜니스가 伊太利領이되게되면 未久에 英領 말타島에도 危險이 미칠것이며 設或말타島에는 何等變化가업다 하더라도 시실리―판텔라리아―튜니스를連結하므로써 말타島의 軍略的價値를 減殺시키고紅海南端의 도메라栗城과 아울러 東地中海 紅海의·英國交通路線을 正面으로 威脅할것은 틀림업는 일이다 이와가티 伊太利의 튜니스·코르시카返還要求의 結局의 目的은 地中海의 헤게모니를 잡자는것으로 領土割讓을 要求當하는佛國에뿐만 아니라 地中海에 重大生命線을가지고잇는 英國에도 一大脅威가 아닐수업다 十二月十二日 英國下院 議員이 튜니스問題로 萬一 佛伊가開戰할境遇에 英國은 佛國을援助하여야할것이냐하는 質問에 對하야 쳄벌린英首相은 英國은 佛國을 援助할 條約的責任은업다고對答하야 英佛言論界에 物議를 일으키고잇스나 萬一에 佛伊가 開戰하게되면 英國은 左右間 佛國과協同戰線을 取하지안홀수업슬것은 英佛關係와 地中海에잇서서의 英國의 權益으로보아 明確한바로 英政府는伊太利政府에對하야 이미 屢次態度緩和를 要請하엿다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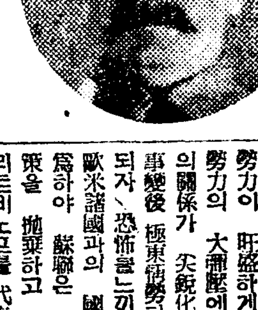
◇

쳬코問題以後 將來의 歐洲外交는 獨逸의 舊植民地要求問題를中心으로 展開되리라고 歐洲外交界에서는 一般的으로 觀測하는바로 메멜地方에 對한 合併工作이 그具體的行動의 第一步라고보이는데 獨逸은 果然어떠한 態度로써 要求할것인가! 今番伊太利의 튜니스要求를 契機로 獨伊兩國이共同行動을取한다고하면 植民地返還問題는 急激히 發展될것이매 英佛兩國은 더욱이協調를 强化하야 獨伊와 對立하게될것으로 伯林 羅馬樞軸과倫敦 巴里樞軸과의 對立은쳬코問題解決前보다도 一層深刻케될것이다 獨伊를相對로 戰爭을하야 設或勝利를 어덧다자「가지지못한나라」인獨伊로 부터 何等所得이 업슬것은 勿論이오 萬[illegible] 敗戰의 苦杯를 맛보게되면 英佛은 그야말로 四分五裂이될것을 잘알고잇는 쳄벌린英首相은現狀維持를 하기爲하야 自國內에서도 一部의 反對를바드면서 所謂現實主義外交를 主張하야/佛蘭西를이끌러 獨伊兩國에 讓步를하면서 接近工作을 하여오든터이며 또英佛兩國民도 戰爭을 回避하는意味에서 平和政策을 歡迎하여오는터인즉 萬若에 獨伊가 今後獨斷的態度로써 植民地返還問題로 再分割을 要求하야歐洲의 現狀維持가 到底히不可能하게된다고하면 그때는 結局에 干戈를相交케될것으로 現在英佛의苦悶은 讓步나 戰爭이냐하는 卽消極政策을 取할것인가 積極政策을 取할것인가하는 두點에잇다고볼것이다。(寫眞上은 쳄英首相 달佛首相)

英佛에接近圖謀 孤立離脫을劃策

묜헨會談後新外交動向

蘇聯



蘇聯과가티 世界의 他諸國과 階級的으로 敵對的이오가장深刻한 本質的對立關係에處해잇는國家는 他國家로부터反蘇블럭이 結成될 危險性이 極히 濃厚하다 萬若列國이 一致團結하야 政治的、經濟的、軍事的으로 蘇聯에壓迫을 加하게된다면 蘇聯의存立은 重大威脅을 밧지안흘수가업다 그런때문에 蘇聯은 孤立的立場을 淸算하고 資本主義諸國과 不可侵條約、相互援助條約、通商協定、關稅協定、運輸協定、其他一切의政治、經濟關係를 密接히 設定하고 諸外國의 對蘇協同戰線을 不可能케하기에 努力하여와다 特히大戰後 베르사이유條約의 重壓으로 破局的經濟狀態에 陷入하게된 獨逸이 히틀러總統의 出現으로 나치스勢力이 旺盛하게되자 國內共産의關係가 尖銳化되고 一方 滿洲事變後 極東情勢가 急迫을告하게되자、恐怖를느낀 蘇聯은드디어 歐米諸國과의 國交를緊密히하기爲하야 蘇聯은 傳統的反聯盟政策을 抛棄하고 聯盟에加入한後 리트비노프를 代表로派遣하야 國際舞臺에서 重大發言權을어더 國際的孤立으로부터離脫、資本主義諸國과의 協調的關係를 緊密히하는一方 歐洲各國과 亞細亞의 隣接乃至近接諸國과 不可侵條約을 締結하야 反蘇戰爭의 危機解消에 全力하여왓다 그러나聯盟加入에依하야 蘇聯은 複雜多岐한 歐洲外交內部에 參加하게되며 그影響과 支配와牽制로因하야 從來의自由로운立場을 放棄치안흘수업는 矛盾에到着하고 말엇다 이때문에 蘇聯은 人民戰線運動이란 新戰術을 採擇하게된바 이人民戰線運動이 佛國에서 成功되고 西班牙의 紛爭을 擴大化케하엿고 支那에잇서는今次事變의 一因이 되게한것이다 何如間 蘇聯은 一九三二年 國際聯盟에 加入한以來 外交方針의目標를 英佛米等 資本主義國家와의 타이업乃至 依存關係를 設定하야 反蘇戰線 結成阻止에 두어온것은 事實이다 그러면 現在蘇聯과 英佛獨伊와의 關係는 어떠한가 于先 蘇聯과英佛兩國과의 關係는 根本的으로相容되는것은 아니나 大體로 良好한 關係에잇섯스며 米國과의關係도 政治的經濟的理由로 友好關係를持續하여왓스나 그것은 蘇聯을 國際的包圍外交界에잇서서日獨伊防共協定이締結되여 脅威를느끼게된 蘇聯이 英佛과 對抗的合理運衝을企圖하엿든때문이다 그러나 英佛은 對蘇關係의 根本利害에잇서 絕對되는點이 만흔때문에 蘇聯의 意圖대로 進步되지안엇스며 特히英國은 蘇聯과의 連衝을 매우 躊躇하는것이 쳬코問題로因한 묜헨四國協定締結以來 英佛兩國이 蘇聯과의 共同戰線을 버리는 態度를 取하게되여 蘇聯은 國際的으로 孤立狀態에 빠지고말엇다 그것은 英國이 所謂現實主義를 標榜하는 쳄벌린外交에 依하야 英伊協定을 締結하고 伊太利와의 懸案을 解決하고 蘇聯과 互相不可侵條約을 締結한 佛國이 歐世紀以來의 宿命的인 敵對關係를 一掃하고 獨逸과 互相不可侵宣言에 調印한때문인데 獨伊樞軸에對한 英佛兩國의 轉換이 비록 그것이 本質的轉換은아니라고하여도 蘇聯으로서는 對獨伊樞軸 共同戰線의 崩壞를 認定하고 焦慮하지안흘수업는것이다。

그리고 蘇聯과 伊太利와의關係는 西班牙問題以來 公然한仇敵關係에 잇게 되엿스며 獨逸과의關係는 最近獨逸의 우크라이나進出에 脅威되여 猛烈한反獨宣傳을 開始하고잇는것은周知의事實인바 그보다도 쳬코問題의 解決이 蘇聯에게 致命的打擊을 준것이니 그것은 獨逸의 쳬코進出에依하야 軍事的으로 蘇聯을 脅威할前哨가 업서젓슬뿐만 아니라 蘇聯은 歐洲赤化工作의 唯一한 前進基地를 喪失하게된때문이다 쳬코問題가 獨逸側에 有利하게 解決되는날에는 事態가 그러리될것을 豫想하고 蘇聯은 어떠케해서든지 獨逸側要求를 壓服하고 쳬코의 現狀維持를 確保코저 努力하엿든것이다 그러나 結果는 獨逸의强硬政策과 英佛의 讓步로써 쳬코問題는 解決을짓게되엿다。蘇聯이 消極的 態度를 取하게된 것은 野心的인 肅淸工作에 依한 國內政情不安과 이로因한 英佛의反感과 또한獨逸과의 正面衝突할 兵力의 自信이 업섯든때문이다

이가티 蘇聯은 西班牙內亂을 好機로한 赤化工作도 戰況膠着狀態로 如意히進展치못하며 쳬코를 前進基地로한 歐洲赤化工作도 破綻되고 말게되여 國際的으로 孤立狀態에 陷入되고말엇는데 다못 波蘭과의 不可侵條約再確認으로 겨우獨逸의 進出을 防禦할뿐이다。그런때문에 蘇聯은 今後 對內的으로 政治는 共産黨과 蘇聯機關再建에依한强化 經濟는産業組織의肅淸에依한改革 그리고國內實力總動員으로 國防强化赤化工作에 注力하는一方 對外的으로는 所謂人民戰線派의 現狀打破派인獨伊에對하야 現狀維持를主唱하는 英佛兩國과의 外交關係調整에全力하야써 國際的孤立狀態를 離脫하기에 斷末魔的執拗한努力과 策動을 繼續할것은 必至로日獨伊防共樞軸의 今後任務는極히重大하다할것이다(寫眞은 스·탈린)

墺太利를併呑코 一路東南歐로!

獨逸

베르사이유條約은 軍國獨逸의 再起를 未然에 또는 永久히 防止하라는 聯合國側 特히 英佛의 用意周到한 計劃아래에서 매저진 歷史的條約이엿다 그러나 獨逸은 이條約이 締結된지 十五年未滿에 明於히 再起하고말엇다 베르사이유條約廢棄 再軍備宣言 라인進軍、잘地方合併、國際聯盟脫退、植民地返還要求等 實로 最近數年間은 爆彈的宣言과 그實行을爲하야 全國力을 기우리고잇다 그리하야 獨逸은 伸長또伸長하고잇다 그런데 이巨大한 獨逸의 거름거리에서 가장 焦燥하고 잇는것은 英佛이다 英佛은 한글가티 [illegible]의 [illegible]的行動에 對하야 그[illegible]을 생각하고잇고、또 이것이 近年 英佛兩國의 政事의 全部엿다 그러므로 한마디로 말하면 英佛은 獨逸이란 爆彈의 뒤收拾을 하고잇는셈이오 歐洲政界는 獨逸伸長을 中心으로 돌고잇는셈이다 獨逸은 自國의 發展을 爲하야 한가지 有力한方策을 가지고잇스니 그것은 곳日獨伊防共樞軸이다 獨逸은 이樞軸을 武器로 昭和十三年初 一月에는 爲先 안으로 國防軍의 肅淸을斷行하고 그와同時에노이라트外相을 辭免시키고 日獨伊防共協定의 功勞者 리벤트로프를 外相에登用하야 外交의一元化를 圖謀하고 伊太利의 諒解를 求한後 모든 準備를가추어가지고 四月十二日 마츰내 오래동안世界의 耳目을 끌고잇던 獨墺合倂을 宣言하엿다 그리하야 獨逸은 面積으로 五十萬平方粁人口로 七千三百餘萬人의 歐洲第一의大國으로 飛躍하엿다 勿論 英佛等各國의 抗議가 잇섯스나 本是부터 이것은 問題도 되지안는바로서 獨逸의 東方進出은 容易하게 成功된것이다 그러나 獨逸은 決코 여기에 滿足치아니하엿다 다음에온 問題는 豫想과가티 쳬코슬로바키아의 주데텐地方分讓問題엿다 마치 墺太利合倂에 나치스黨을 利用하드시 이번에는 주데텐獨逸黨을 利用하야 英國의 仲裁도 아무 所得이업시 結局은獨逸의目的을滿足시키고말엇다 그런데所謂 묜헨四個國條約은쳬코를犧牲시킴으로써 獨逸의慾望을 어느 程度에 制限하고 獨伊樞軸을 牽制하야 歐洲의 平和를 維持하려는것이엿다 그래서 그後 所謂 英獨協定、獨佛不可侵條約의 締結을 보앗고 다시 佛伊締結、英伊會談이 行하여질것이라고 보이더니 伊太利의 튜니스、코르시카의 返還要求로 말미아마 歐洲에는 또다시 검은구름이 떠돌게始作하엿스니 英國의 獨伊牽制策은 도리혀 어느樞軸을 漸漸더 鞏固하게하는 逆効果를내고잇는것이 看過하지못할事實이다 어쨋든간에 히틀러總統은獨墺合倂宣言後인 五月上旬 伊太利를訪問하엿고 十一月에는 日獨伊文化協定을 締結하여서 伯林―羅馬乃至 東京―伯林―羅馬樞軸을 漸漸더 굿게하엿다 그리하야 十二月에 이르러서는 메멜地方의 合倂意思를明示하엿다 이地方은 元來 舊獨逸領으로보아도 매우 重要한곳인 바 베르사이유條約에依하야 리투아니아의 治下에 屈하게되엿고 一九二四年 日英佛伊四國間에 메멜地方保護條約이 成立되여 自治가 賦與되엿섯다 이것이또한 第二주데텐의 運命을 가지고잇는것은 明確한일인데 이問題에잇서서 蘇聯과不可侵條約까지 締結한 波蘭의態度가 어떠냐하는것은 今後 매우 注目되는點이다 어떠든 獨逸은 過去一年間 墺太利合倂、주데텐地方合倂 메멜問題의 惹起等 年來의 爆彈宣言은 오히려 今年에 이르러 더 만흔 收穫을 거두엇다고 할것이다 그러나 獨逸의 伸長은 決코 여기서 끗치느냐하면 決코 그러치안타 要새 또다시 陸軍兵力을 大擴充하야 各各要地에 配置하는모양으로 보든지 그意氣로보나 압흐로도 前進할것은 거의 疑問할餘地가 업는바이나 다만 波蘭으로 가느냐 단지하로 가느냐는것만이 一點의疑問을 품게할뿐이다 이리하야 過去一年間 獨逸이차즌業績은 非常 領土를 擴大하엿다는 形式的成果에 끗치는것이 아니고 歐洲政界에 影響주는바 實로크다고할것이니 첫재獨逸의東南歐進出로말미아마 小協商國들이 沒落의過程을 밟게되엿고 이에따라 英佛은 政治的으로나 經濟的으로나 後退하지안흘수업게되엿스며 우크라이나로 步一步 前進하는獨逸에 對하야 蘇聯의焦燥란 決코 가볍게볼 事實이 못되는것이다 過去一年間 獨逸의 國際的地位向上은 이제 누가무어라고하던지 끔적도하지안흐리 만큼 硬固하여진것이다 그러나 獨逸의 이攻勢에對하야 英佛인들 東手할理는 萬無하다 英佛은 들어가서 한결가티 軍備擴充을 생각하고잇다 獨逸을中心으로하는 一九三九年의 歐洲政界는 果然 어떠할것인가!(寫眞은 히틀러總統)

世界政局과米國의地位(上)

世界制覇를野望

李勳求

世界는 이 베르사이유條約으로 勝敗를 낸지가 不過十八年에 人類는 貧弱한回想力을 가젓는지 저大戰이 가르키여준慘禍의 敎訓을 完全히 忘却하고 보담規模가 크고 보담 禍害가 끈을 戰爭을 準備하고잇는것이 現下世界政局이다 列强이 海軍 空軍 陸軍의整備强化에 唯恐不及의 熱意와 氣力을 가지고奔忙하는것은 곳그것이다 英國이 그러하고 佛國이 그러하며 伊太利가 그러하고 獨逸이 그러한것은 勿論이요 北方의 赤色蘇聯이 內部肅整으로 赤軍의 强化를 企圖하고 잇는것은 世人이 熟知하는바이다 더욱이 世界諸弱少國의 動向도 또한 將來할 風雲의 日에對應하기 爲하야 各其渾體의力을 軍備에集中하고 잇지안는 나라가 업다 이와가튼 雰圍氣中에서 世界의 六十%를가지고 一億三千萬의 進步된 民衆을 가진 米國의動向은 實로 그잇지는바影響이 著大한것이다 此點에 關하야 簡略하게나마 管見을 陳述하는것은 無益의 徒勞가아닐가한다。

現在世界는 思想戰에 잇서서 한便에는 英米佛을 系列로한 所謂 데모크라시의 陣營이 잇고 또다른편에는 獨伊를 主軸으로한 所謂全體主義의 陣營이 잇다 게다가 極左의 共産主義를 實行함으로 赤色의 魔手를 뻐치랴는 所謂人民戰線의 蘇聯이 歐亞兩洲에 걸치어서 虎視眈眈赤化의 機會를 엿보고 잇다。

東亞에는 人類의 共存共榮이라는

人道

와 正義에 立脚한 日本帝國이잇서서 聯蘇容共의 迷夢에서 彷徨하는 支那를 覺醒시키고 東洋의 永遠한平和를 建設하려는 日本帝國의 偉業이 進行途中에 잇다。所謂 데모크라시를 標榜하는 一連의 國家는 다『가진』나라로 될수록은 世界政局의 現狀維持를 希求하고 잇스며 全體主義를 國是로하는 나라는 다『가지지못한』國家로써 內部에 膨脹되는『힘』을 外部에 洩出하여서 될수록 現狀을 打破하고新局面을 開拓하려고 애쓰고잇다。

이와가튼 傾向의 例證은 過去二三年동안을 두고 國際的으로 이러난 大事件과 外交交涉의 全部다 毎日毎日 傳하여오는 國際뉴―쓰로 新聞雜誌의 大題目을 잡은 記事가 하나도이 事實을 辯證하여주지 안는것이 업다 그러므로 本論에는 具體的事件을 例擧하여서 이데모크라시와 全體主義的 政局의動向을 還擾할 必要를 느끼지안는다 다만 위에서말한바와 가티 米國은 데모크라시國家의하나로서 아니 데모크라시를 擁護하는 世界最强의 國家로 또 最大의 柱石으로서 自處하고 잇다、그러므로 그動向에 對하여서 以下 詳細하게 觀察하여보기로하겟다。

그러면 먼저 米國의 內部情勢를 스케취하여보겟다 元來

米國

은 그地理的關係로 歐洲나 또는 其他强國에게 陸上으로부터 外部的 侵害를 바들 機會가 매우 적은나라이다 그러므로 米國은 强한 陸軍을 가질 必要가 업다 따라서 米國의 陸軍은 國內治安維持에 充分할程度인 常兵約十萬이 잇슬뿐이다 反面에 海岸線의 延長은 相當히 큰것이엇고 또 歐洲列强에 對應할 海軍力이 必要함을 느끼다 그러므로 론돈會議以來 日英米의 三·五·五比率을固執하엿슬뿐아니라 對英海上制覇權을 恒常念頭에 잇지아니하고 海軍整備에 汲汲하여왓다 最近에 實施되는中의빈슨案이完成되는 一九四二年度에는 大艦巨砲로 戰鬪可能한 艦艇는 主力艦以下 補助艦까지 五百數十隻으로 百九十萬噸에 達하야 世界最强의 海軍國이 될것이요 또作戰計畫에 잇서서도 近海防制보다는 차라리 渡洋作戰에重點을 두고잇다。

米國의 空軍은 一九三一年來로 飛躍的增大를 示하엿다。一九三七年六月末調査에 依하면 飛行中隊數가 一二五 機數가 一、四〇〇臺에 達하엿는데 其外에民間航空機로 戰時編制에 依하야 戰鬪可能한 機數가 約九千餘臺가 잇섯다 또 지난十一月十一日 루즈벨트大統領은 新聞記者團에 對하야 世界情勢의 變化로 科學進步를 考慮하야 米國及 米洲全體의 防衛上 空軍勢力의

增强

을 計畫할것을言明하엿다。 그러므로 一九四二年度에 가면 적어도 現在의 倍乃至 三倍의 空軍勢力을 가지게될것이다(寫眞은 루米大統領)

甲山

甲山邑中央通 菓子食料 日鮮酒類 卸問屋 松月堂 主 沈明松 電話二三番

甲山邑內 料理 一樂亭 主 崔泰星 電話二五番

甲山邑內 木材 李東律

甲山邑 金性濟 電話一九番

甲山邑 華商 協成興

甲山邑內 華商 德和利

甲山邑內 木材 三共商會 電話二四番

甲山邑內 食料品 料理 朴丙道商店 錦華園

甲山邑內 醫學士 長平醫院 趙來炳 電話二〇番

甲山邑 料理 明月館 主 全七星 電話二六番

甲山邑內 金昌林

甲山郡山南面豊陽里 豊陽鑛山事務所

甲山邑內 中央麵屋 主 金明煥

甲山邑內 諸金物 陶磁器 北興商店 主 李柱元

甲山邑內中央通 百貨 共信商會

咸南甲山邑南門通 各種印刷 大成商店 主 金景禧

咸南甲山邑 綢緞 綿布 雜貨 德慶長

甲山邑內 綢緞 布木 川合商會 主 朴庚秉

甲山邑內 金焌鉅 電話一四番

甲山邑內 朴和秉 電話一四番

甲山邑內 朴俊秉 電話一四番

甲山邑內 嶺南理髮舘 主 文表業

甲山邑內 金瑒在

甲山邑內 魚穀商 白連周

甲山邑內 安鳳源 電話一八番

甲山邑內 日鮮酒類 中華料理 精肉販賣 成金食堂 主 鄭成朝

甲山邑內 東昌堂菓子店 主 金弼憲

甲山邑內 京友寫眞舘 主 朴周秉

甲山邑內 半島旅舘 主 洪淳善

甲山邑內 司法書士 金炯鳳事務所

甲山邑內 大成旅舘 主 廉大浩

甲山邑內 綢緞 綿布 金和淳商店

咸南甲山邑內 各種陶磁器 諸金物百貨 新元本店 主 姜中根

甲山邑中央通 高濟潤藥房

甲山邑內 中華料理 唯一新園 主 劉永祥

甲山邑內 綢緞 布木 吳炳直商店

甲山邑中央通 綿布 雜貨 池昌吉商店

甲山邑內市場通 海産物 古物商 各種皮物 南明鑛商店

甲山邑內 東一時計店 主 許東絶

甲山邑中央通 綢緞 布木 李鼎錫商店

甲山郡甲山面億年里 李基俊

甲山郡甲山面億年里 李根和

甲山郡甲山面仲坪里 金光源

甲山邑內 東興鐵工所 主 李萬載

甲山邑 唯一洋服店 主 李昌華

甲山邑中央通 百貨 朴昌浩商店

甲山邑中央通 百貨 金秉湧商店

甲山邑內 百貨 崔鳳永商店

甲山邑內 醫生 金斗河

甲山邑內 醫生 金秉七

甲山邑內 百貨 大林商店 主 張承均

甲山邑內 金物 陶器 朴寅焞商店

甲山邑內 文房具 朴道秉

甲山邑中央通 百貨 明星商店 主 李在琰

甲山邑內 金明活

甲山邑內 金錫龜

苫灘

苫灘釀酎場 黃晧俊

三成醫院 院長 朴箕鎬

黃海道長淵郡苫灘市 福盛長 主 孫鶴齡

苫灘 貨物自動車部

苫灘和信連鎖店

長淵郡速達面苫灘里 苫灘醫院 醫師 李相龍

尹永煥

長淵齒科分院 院長 朴嚴重

黃海道苫灘市 鷄林材木商會

苫灘勤勞組合 組合長 吳元一

海西藥局 東洋旅舘主 張德均

苫灘市 中央旅舘 主 朴寅夏

苫灘市 三信商會

江亭里 李善植

黃芝淵

碧城郡代車面江亭里 信成醫院 黃達順

黃海道長淵苫灘市 金益商店主 金成洛

天一藥酒釀酎場 姜俊永

精米業 李仲會

標準堂時計舖 裵善章

雜貨卸賣 東一商會 主 李昌浩

古物商 韓錫根

海産物座業 金鳳祥

菓子問屋 玉美堂 任冕植

宋奎成

海産物商 精米業 姜儀晟

冷麵屋 金鳳來

海産物 綢緞布木 ゴム靴 金澤信商店

綢緞布木 鄭璧和商店

綢緞布木 ゴム靴 鄭長和商店

長淵郡苫灘市 各種ゴム靴 アサヒ運動靴 アサヒ地下タビ 金龍雲商店

海陸運送業 保險代理店 吳元一回漕部

藥種賣藥 萬壽堂藥局 主 李[illegible]

朝日洋服店 吳明三

ポンプ 釣具 日通 普信商會 主 金天洙

江亭里 賣藥 書籍 閔承植

黃海道苫灘市 潤根自轉車商會

白最俊

綢緞綿布 李進源商店

岐陽

江西郡東洋面 岐陽更生會

平南線岐陽驛前 岐陽公立小學校 職員一同

江西郡草里面鉢仙里 草里公立小學校 職員一同

一面戰爭、一面建設
今次聖戰의特色
事變終局은日滿支結合可能時

近代日本이 生長發展하는데 잇서 가장큰 戰爭으로 日淸과 日露의 兩役을 들 것이나 日淸戰役은 明治二十七年八月一日에 시작하야 그이듬해 三月에 뭇낫스니 一年未滿이요 日露戰役은 明治三十七年二月八日에 시작되야 그이듬해 十月에 뭇낫스니 一年半남짓한데 今番의 支那事變은 해로 이미 셋을 거듭할뿐더러 近一年半이 지난 오늘날에 잇서서도 조금도 長期抗戰을 要하는 形便이라 時日關係로만보아도 日本近代史上 未曾有의 戰爭임을 알수잇다. 더구나 占領地域은 北中南支의 察哈爾 綏遠 山西 河北 山東 河南 安徽 江蘇 浙江 湖北 廣東等 十一省에 亘하야 그面積만도 八三百萬平方킬로에 達하는터로 戰線이 또한 近二千五百킬로에 이르는지라 出動兵力으로나 其他의 모든 方面으로나 明確한 것은 모른다고 하겟지만은 실로 空前未曾有임에는 틀림이 업슬것이다. 이番의 事變이야말로 日淸日露兩戰役보담 日本帝國의 더 큰 試鍊이다. 朝野一致團結해서 이 難關의 克服에 힘쓰지 안해서는안될것이다. 그러나 十年이고 二十年이고 最後의一瞬間까지에 不撓의 決意를 굿게 하고잇다고 하더라도 最短期間과 最少犧牲으로써 所期目的의 達成을 希望하는 생각조차 버리지 못하는것이 人情의 弱點이다. 여기서 本記者는 여러분과 한께 지난 兩年동안의 偉大한戰績을 回顧하고 今後의 進展實狀을 펴어써 時局認識을 더 한번 徹底히 하고자 하는 바다.

戰爭은 언제까지?

事變經過

昭和十二年 七月七日夜半 蘆溝橋上 不法한 一發의 銃聲을 發端삼아서 帝國政府는 七月十一日 北支派兵을 中外에 聲明한後 貴衆兩院 言論機關 財界의代表를 召集하야 抗日支那膺懲의 擧國的 結束을 굿게 하얏고 支那側에 조금도 反省치 안코 七月二十五日 다시 廊坊의 衝突을 이릐킴에따라서 七月二十七日 帝國政府는 內閣書記官長의 談으로自衛行動의 不得已함을 發表케 하얏스나 恒常 不擴大의 方針으로써 臨하얏스니 政府의 兩次 聲明에도 平和的 解決을 切望한다고 高調하얏슬뿐이 아니라 七月二十五日 樞府의 定例會議後 各顧問官과 閣僚間의 懇談에도 되도록 不擴大方針을 取하기로할 에 되얏섯다. 이외가튼 不擴大方針에 不拘코 現地로부터는 支那側의 無反省한 態度와 거기 對한 抗戰의 不可避가 되푸리되매 드되어 八月二十八日부터 二十九軍의 總攻擊을 開始하야 北平、天津의 두重要地點을 一擧에 占領하얏고 八月九日 上海서 大山中尉가 殺害를 當하고 八月十一日 上海에까지 戰火가 波及됨에 따라서 九月十一日에는 政府主催 國民精神總動員 大演說會席上에서 近衛首相 스스로가 不擴大方針의 抛棄를 聲言키에 이르른것이다. 本來 國民政府內에라고 帝國의實力을 아는 一部가 엇지안한만큼 거기에 和戰兩論이 갈리엇든 모양이나 國民政府의 多年間 抗日敎育에 依한 一般의 無謀한 主戰論이 大勢를 支配하는만큼 國民政府의 首腦者들도自縄自縛이되여 고만거기따라가고 말엇다. 그러한 裏面의 조흔 例證으로는 七月十四日 北平서 열린 二十九軍의 軍事會議에서 某某 두要人이 自重論을 提出햇다가 賣國奴로 指稱되여 部下에게 죽을번 하엿다는 이야기와 또 그얼마뒤 軍政部長 何應欽을 自重派라고해서 左右의 攻擊이 甚하기때문으로 派任시키엇다는 이야기다 何如튼 北支事變은 支那事變으로 進展되는同時에 七月十一日 揚子江口以南 汕頭까지의 支那海岸封鎖는 九月五日 靑島 第三國領土 租借地를 除한以外의 全支海岸封鎖로 그區域이 擴大되면서 北中支에 잇서서는 本格的인 軍事行動이 開始되엿다 그래서 北支一帶는 無人의境과 가티 擊破되야 各省이 續續平定되여너와 一時 沮拒의 [illegible]을 豪語하엿다고하고 七月一日 板垣陸相은 第三國介入不許와 蔣政權否認의 斷乎한 方針을 또 한번 闡明하엿다. 그러자 九月二十九日 宇垣氏가 外務大臣을 辭任할뿐이 아니라 帝國政府는 한편으로 南支에까지 軍事行動을 擴大하야 十月二十二日 廣東을 攻落시키고 또 한편으로 漢口進攻을 催促하야 十月二十七日 그마자 陷落시키고 보매 그러한 말은 自然히 無根한浪說로 判明되엿다。廣東과 漢口가 連續하야 깨어진 뒤 十一月三日 近衛首相은 다시 重大한 聲明을 發表하엿스니 그 要旨는 비록 國民政府라도 支那를 更生하고 全然 更新한 一政權으로서 支那再建에 來參함에잇서서는 日本이 拒否치안는 뜻과 萬若 列國이 帝國의 眞意를理解하고 이 東亞新情勢에 卽하야 그 政策을 攺正코자 한다면 帝國이 東洋平和를 爲하야 協力을 不辭한다는 뜻이다. 그러고 또 다시 十一月三十日에는 御前會議를 開催하고 東亞新秩序에伴한 日支國交調整의 根本方針을 確立시키엇다고 하나 아즉 그內容이 發表되지 안햇는바 十二月一日 樞府會議에서 首相의 答辯으로 보아서 今番의武力으로만 解決키에는 困難하고 優性的推移를 要하니까 그事變의 終了期도, 日滿支建設의 豫測이 서게 될 時期 勅許를 仰하야 決定할 方針이란 것만 알게 되얏다。

支那側作戰計畫

世間에서는 흔히 支那軍이라면 日淸戰爭當時의 그들을 聯想하나 決코 그들은 그때와 가튼 烏合之衆이 아니다。國民政府가 成立된 以後 제대로 訓練을 밧고 또 제대로 現代的武器의 補給을 밧고 잇는데다가 多年內亂에 實戰의 經驗도 相當히 가젓다고 보아야 올라設使 그러한 進展이 업다고 하더라도 地利에 밝고 그 地方風土에 익고 또 多少 抗日敎育에 依한 그 惡影響도 기괴바키어 잇는 것을 이저서는 안된다. 海軍이나 空軍은 勿論이요 陸軍도 皇軍에 比하야 敵對가 못 되는 것은 말할 것이 업지마는 그만한 敵軍을 相對로 싸우는데 잇서서 皇軍의 적지 안한 苦心이 숨어 잇는 것이다. 무엇 보다도 敵軍은 全體的 統率이 不足함으로 軍略的 行動에 잇서서 一絲不亂한 皇軍을 딸아갈수 업는것이 事實이니 果敢神速한 行動으로 北平天津의 두地點을 占領한 것, 京綏線을 들고 들어감으로 京津地方平地方面에 對한 右側背의 脅威를 除去함과 한께 滿洲國內侵入의 企圖를 粉碎한 것, 杭州灣의 敵前上陸으로 上海의 攻略을 손쉽게 한 것, 바이야스灣의 敵前上陸으로 廣東을 빼앗는 同時에 漢口의 守備도 不可能케 한 것等 모다 軍의 行動은 실로 敵을 놀래고 남음이 잇다. 重慶은 姑捨하고 昆明에 이르기까지도 오즉 時間問題요 乘勝長驅할것이 敵軍自身이 더 잘 認識하고 잇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들은 不得已 消耗戰法에 依한 殲滅戰의 回避와 게릴라戰의 採用을 主張하는 모냥이나 그동안 그들이 軍力의 太半을 喪失하얏다는것으로 미루어서는 그여시 그들의 豫想과 가티 오래 지탕해지리라고 누가 생각할것인가。그들은 漢口서 重慶까지大部隊作戰이 困難하야 南部江西로 時日의 遷延을 피더서 아직도 抗日의 迷夢을 깨닷지못하는지도 모르되 皇軍이 한번 움즉이는 곳에 그 翻滅함이어 떠라는 것은 이미 廣東의 會戰으로 自明해진바가 아닌가。그러나 近衛首相의 聲明과 가티 今番의 支那事變은 오직 武力으로써 結果를 짓기에는 좀더 複雜한 事情이 잇다. 그럼으로써 帝國政府에서도 그 時期를 잘 보아서 事變終了의 勅許를 仰하자는 것이다.

事變과列國의動向

今番의 支那事變에 잇서 蘇聯은 國民政府에 武器를 提供하고 飛行將校를 派遣하는 等 露骨的으로 援助할뿐 아니라 張鼓峰事件을 爲始하야 요지음의 漁業條約等 全히 帝國에對한 不遜한 行動을 거듭하고잇지만은 그것은 오히려 蘇聯自體의 常套手段이라고도 보겟스되 佛國이 蘇聯에 盲從한 帝國의 警告에不拘코 佛領을 通하야 蔣政權에 武器輸送한다는 것은 甚히 怪異한 行動이라고 아니할수 업다. 또 英國은 事變의 發生初期로부터 帝國에對한 不平의 言動을 일삼아 왓다고 하더라도 輸出補償制度를 擴張해서 蔣政權에 一千萬磅을 借款하는것이 帝國臣民의 感情을 刺戟하는 바어늘 從來愼重한態度를 보이던 米國조차 英國과 共同步調를 取하야 二千五百萬弗의 크레디트를 斷行한다는 것은 不可解의 일이다。勿論 英米의 財政的援助가 多少 蔣政權의 餘命을 延長시키는데는 도움이 업슬리도 업더라도 新中國開設에 對한 帝國政府와의 協力을 拒否하는것이나 마찬가지다 그것은 有田外相이 聲明한바와가티 政治的 제스츄어로서자 못 危險한 제스츄어가 아닐까 한다。本來 米國은 滿洲事變當時로부터 恒常 帝國에對하야非友好的態度를 取해 온것이 事實이다 今番支那事變에 잇서서도 이때것 愼重한態度를取해온것이 도리어 疑訝스러운일이엿다 아마 世界大戰當時의 利己的經驗을 빌어서 雙方의 形勢를 傍觀하야써 自己네의 發言權을 좀더 有効케할 心算이엇는지모른다. 그러나 米國의 그러한 算盤이 언제나 맛는다고 미더서는 탈이다. 벌써부터 帝國政府에서는 米國의 對支크레디트는 設定에 對하야는 新平한 抗議를 提出하고 잇다고 傳한다。何如튼 支那事變을 에워싸고 지금 바야흐로 獨伊對英佛米蘇의 對立이 두렷이 나타나잇다。英國이 아모리 獨伊와의 親善을 도모하야 四國協定에 成功하얏자 東亞에對한 限 防共樞軸으로서의 帝國의盟邦임을 해살치는 못한다。

事變終了時期

그러니까 帝國政府에서 勅許를 仰하야 事變의 終了를 決定한다고 하더라도 그 때는 日滿支三國의 建設에 對한 豫測이 설 때에 지나지 안는 것으로 그 以後 그建設의 完成이야말로 東亞의 新主인 帝國에 잇서 그 얼마나 무겁고 큰 任務라는 것을 이저서는 안된다. 그런데 그 建設의 完成에는 첫재 極東赤化를 꿈꾸고 잇는 蘇聯의 勢力을 斷乎히 물리처야만 되고 둘째 利己的立場으로부터 帝國의 東亞大業을 欣快케 생각치 안는 英米의 策動을 根絶시켜야만 되는데 그들의 그러한 態度는 비단 新中國建設에만 支障을 이루는 것이 아니요 事變終了의 決定에도 阻害가 되고 잇다는 것을 알어야 한다。그 러케 본다면 事變終了와 建設完成은 그도한 表裏의 問題다。지금 帝國政府로서도 이點에 잇서 가장 苦心을 하고 잇스리라고 생각한다。

(寫眞은 武漢攻略戰中一場面)

新支那를建設
·容共抗日政權潰滅

今番 事變이 特別히 困難하다는 所以然은 政府當局者들이 자주指摘한바와가티 一面戰爭 一面建設이란 그 特異性에서 오는것이니 卽 帝國은 蔣政權의膺懲으로써 끄칠 것이 아니요 다시한 거름 나아가서는 友邦으로서의 新中國의 建設을 도모해야 한다는 말이다。그러니까 蔣政權을 뭇까지迫擊해서 武力行動을 終結시킨다는 것은 또 쉬운 일이로되 新中國의 建設이란 一年二年의 短時日로는 容易치 못한 大業이다。어떠케 해서 蔣政權을 빨리撲滅할까 그래야만 新中國의 基礎가 더 얼른促成될것이요 어떠케 해야만 臨時、維新의 두 政府를 急速히生長시킬까 그래야만 抗日蔣政權의뿌리를 뽑게될것이다 그러므로 帝國政府도 速戰卽決을 생각지안코 長期抗戰을 決意하게 된것이다。그런데 今番事變의 또 한가지의 特異性이 잇스니 그것은 곳 東條前陸軍次官이 指摘한바와가티 帝國의國防上 蘇支同時作戰을 도모해야 한다는 點에 잇다。本來 支那事變에 對한 帝國의根本動機가 中國의 赤化를막는데 잇다는 것은 累次政府로서 聲言한바인데支那事變으로 因해서 그根本動機가 흐릿게되어서는 決코되지안흘 일이다 그러나 單純히 支那에만 對한것이거나 또는 蘇支同時作戰에對한 것이거나 거기에는 列國의 動向을 不絶히 注視할必要가잇다 盟邦의 獨伊는 今番의 支那事變에잇서서도 恒常 友好的態度를 取해왓지마는 英佛米의 三國은 반드시 그러치 못 하다。

事變發生後 重要都市占領日字

- 事變發生 昭和十二年七月七日
- 上海全市陷落 同 十一月十二日
- 太原陷落 同 十一月九日
- 南京陷落 同 十二月十三日
- 安慶陷落 十三年五月十二日
- 徐州陷落 同 五月十九日
- 開封陷落 同 六月五日
- 湖口陷落 同 七月四日
- 九江陷落 同 七月廿六日
- 廣東陷落 同 十月廿一日
- 漢口突入 同 十月廿五日
- 武昌突入 同 十月廿六日
- 武漢三鎭占領 同 十月廿七日

總動員法全

經濟統制의本格化
金融、貿易、物資等各部門에

金融統制 十四年度의 豫算總額이 臨時軍事費追加豫算을 合하야 入十七億乃至九十億에 達하게될을따라 公債發行額도 [illegible] 戰時金融의 第一線으로써 興銀의 地位는 益益加重될것이다。이와가티 生産力擴充方面의 金融은 **興銀**을通하야 比較的圓滑히될것이며 國債의消化가 圓滑을缺하게되면 長期建設도 遂行不能에빠지게될것임으로 國債의 [illegible] 億一千二百萬圓의 激增으로 一年七個月間에 實로現存資本의五割이 重工業部面에向하야 集積되엇다 이資本著增으로 因하야 重工業資本의 工業資本中에 잇서서의 地位는顯著하게向上되어 昭和十一年末에는 其全額의 三割四分이든것이 三割七分으로上昇되 [illegible] 力不足에對하야는 熟練工을 短時日內에 養成하는것도 極히困難한일이다。그뿐아니라 生産力擴充이라는 絕對命令에는 資本家의營利觀念도 어느程度까지是正 或은 犧牲을 當하여야할 또한가지의 難關이잇는데 長期建設을爲하야는 資本家의利潤如何에不拘코

生産·力擴充을斷行하여야할 絕對的必要가잇스니만큼 可及的 資本家의不安도 緩和하야 積極的으로 生産力을擴充시키는同時에 所期의效果를 엇고저 實刀『國家總動員法』의發動을 보게된것이다。

一時的인것이아니고 國家發展의 必然性에서 나오는것이다 軍只唯一의光明은 輸出平和産業進出인데 이것은 准軍需工業이라고도 할만한것으로 軍需資材의 輸入力確保를爲하야 그殷盛이 軍需工業에準하야 要望되는바이다。

第二次物動計畫 十四年度의 豫算總額은 八十七億乃至九十億에 達할것이어서 이와가튼 紹彩大豫算이 編成됨에 따라는 다시말할것도업지 어떤品目의 供給을 確保하여야한다。萬一그러치못한 境遇에는 [illegible] 物資와의 相關關係에잇서서 [illegible] 合하야 九十億으로 推算한다하면 假令其七割五分이 物資需給에 向케되는境遇에는 六十七億五千萬圓의 物資需給이必要하게될것이다。그런데 이와가튼彪大한放出資金에 對應하야 **物資**를 圓滑히 調達할수잇슬는지가 中心問題이다 特히事變勃發以來로 이미第二周年을마지하엿스니만큼 其間에잇서서의 諸般物資의消耗도 相當한程度에 達하야 諸商品의在荷가 漸減傾向에잇는事實이 此問題를 一層困難히하고잇는바이다 卽 至今까지는 過去의一定한在荷를 販賣 使用 消費함으로써 現在의 諸統制｜其中에도 消費統制의影響을 中和하여온것이다 그것이在荷가漸減함을따라 中和的役割의效果가 稀薄하여지고其效果가 稀薄하여짐을따라諸統制의影響이 **一層**强烈히나타날것이分明하다 그뿐아니라 政府에서는今年四月以降 十五年三月末까지의 [illegible] 物資動員計畫에 對하야 [illegible]

賀

新京

新京市梅ケ枝町三丁目 綢緞布木 日用雜貨 松島商會 方義敎
新京梅枝町四丁目十二ノ四 綢緞布木 日用雜貨 新共商會
新京朝日通り三五 食料雜貨 三一商會 電話③三八八一番
新京三笠町三丁目十四番地 御料理 上海館 支店 トキワ 電話③六四九二番
新京梅ケ枝町四丁目十二ノ四 朝鮮日報社新京支局 顧問 李鴻周 支局長 康濟義 記者 崔世赫 記者 康弘楫
朴準秉 新京長春大街二〇八ノ八 電話二ノ五二八六番
新京梅枝町四丁目 完全設備 大同旅舘 電話(3)二二二三番
新京梅枝町四丁目 平壤亭 李基淳
新京二笠町三丁目 朝鮮料理 朝日舘 電話(3)三二〇四番
新京入船町四丁目十三番地 綢緞布木 穀物委託 滿京商會
新京東三條通五九 小兒科、內科 産婦人科、皮膚科 至誠堂醫院 電話(3)五六〇六
新京梅枝町四丁目 朝鮮藥局 京一堂藥房 金景圭 取次電話(3)六四三二
吉田精米所 主 尹明根 尹寶根 電話(3)六一六九
新京永樂町三ノ一九 大和寫眞舘 尹榮祥 電話(3)五一五二番
新京東三馬路福德街 永隆號精米所 電(2)五五八六

共信商會 李鳳洙 電話(3)四七五九
新京東三條通四十七番地 高輪商會新京支店 電話(3)三八一六番
新京萬寶山 藥種 池世鎭
新京市朝日通四九 海産物食料雜貨 興安洋行
永吉縣第五區 永昌優級學校後援會 會長 金東鎭
新京 協和繩叺組合 組合長 理事 同 同 監事 同 李鴻周 金鐘寬 洪智裕 李學振 林鍾元 李昌榮
協和會新京朝鮮人分會 南宅祐
吉林省伊通縣孤楡樹 金鎭浩
新京梅枝町四丁目 東亞商會
新京三笠町 朝鮮料理 有明
新京日本橋通 朝鮮料理 大和館

晉州邑長 山下正道
徐相弼
明治町 鄭石柱精米所 電話四二四番
大東精米所 電話一三〇番
金融組合 株式會社 木材 廣信商會 電話四六番
本報晉州支局 顧問 金東式 同 許治九 支局長 愼鏡緯 總務兼記者 許璉九
河萬濮
晉州 合同印刷株式會社 電話二二二番
株式會社 姜汶鉉商店 電話一六二番
朴相郞
時代洋服店 電話四五四番 振替八七七七番
文山酒造場 主 角谷槌五郞
義谷寺 住持 吳濟峰
千鍾煥
肥料 原料 セメント 金甲龍商店 電話四一〇番
丸一ゴム株式會社 電話四三三番
淸水合資會社
海陸物産 朴起用商店 電話二二二番
班城 鄭泯敎
班城驛前 三興精米所 李基煥
班城驛前 績光興業社 社長 許萬采 專務 許容九
陜川藥酒株式會社 晉州特約店 三星商會
一成金融組合

楊市

木曜會 琴澈
江華人蔘組合
鴨綠江土地改良株式會社 職員一同 電話一六番
三橋川水利組合 組合長 李弼俊
楊下面事務所 面長 鄭瑞鳳 電話五番
忠沉水利組合 組合長 白學俊
龍川郡楊市 名山醫院 院長 張日煥 電話二〇番
龍川郡楊市 楊市醫院 院長 李時貞
龍川郡楊市 龍楊醫院 院長 朴永湜
張濟醫院 院長 張丙燁 電話八番
龍川郡楊市 泰誠齒科醫院 李昇郁
合名會社 阿川組 本社 京城府旭町一丁目一八一 出張所 平北龍川郡楊市 南市線出張所
建築金物 電氣器具 セメント 三一金物店 崔英碩 崔英煥 電話 平北龍川郡楊市七番 振替京城一九四五四番
三橋川水利組合 電話一〇番
楊市金融組合 電話七番
楊市金融組合龍淵支所 理事 趙長河
博愛堂藥房 電話一一番
龍川郡楊市 英信洋服店 主 金基周
日盛麵店 電話一九番
龍川楊市 洋品百貨 靴鞄金物 五松洋品店
龍川郡楊市 昌記飯館
中華料理 中央飯店

和龍縣 金融合作社 南陽坪金融會 理事 任在彬
間島省朝陽川驛前 カフェー 日滿會館 女給 スータ マリヤ 百合子 英子
南陽坪國民優級學校 職員一同
滿洲國間島省龍井街 富裕商會 電話一一七番
間島煙草株式會社 取締役社長 林惠 專務取締役 全澤恩 電話三五九番
龍井街 穀物商 金盛洋行 電話一四八番
龍井街 綢布商 李永植商店 電話三一八番
間島省龍井街 中央醫院
間島省龍井街 松屋
和龍縣稅捐局 赫曾蔭
龍井街 方泰翊
和龍縣智新村 海星國民學校
間島省延吉縣朝陽川市 穀物商 金成奎商店 電話三三番
間島省延吉縣 朝陽川農業學校
間島省朝陽川市 濟東醫院 院長 金河均
龍井街大通 德信洋服店
滿洲國間島省延吉縣龍井 乾材藥局 間島藥業社
劉玉珂
動力機械商會
三本洋行 電話三三七番
鄭利吉
和龍縣小學校長 平田勇
和龍縣公立城區學校長 閔俊超
和龍縣福民診療所 金宗鉉
和龍縣智新村公所
朝陽川市 穀物貿易商 金昌奎商店 電話二一番
嶺美 飛行堂 電話二十五番
校生 金玉心 金慶德 申南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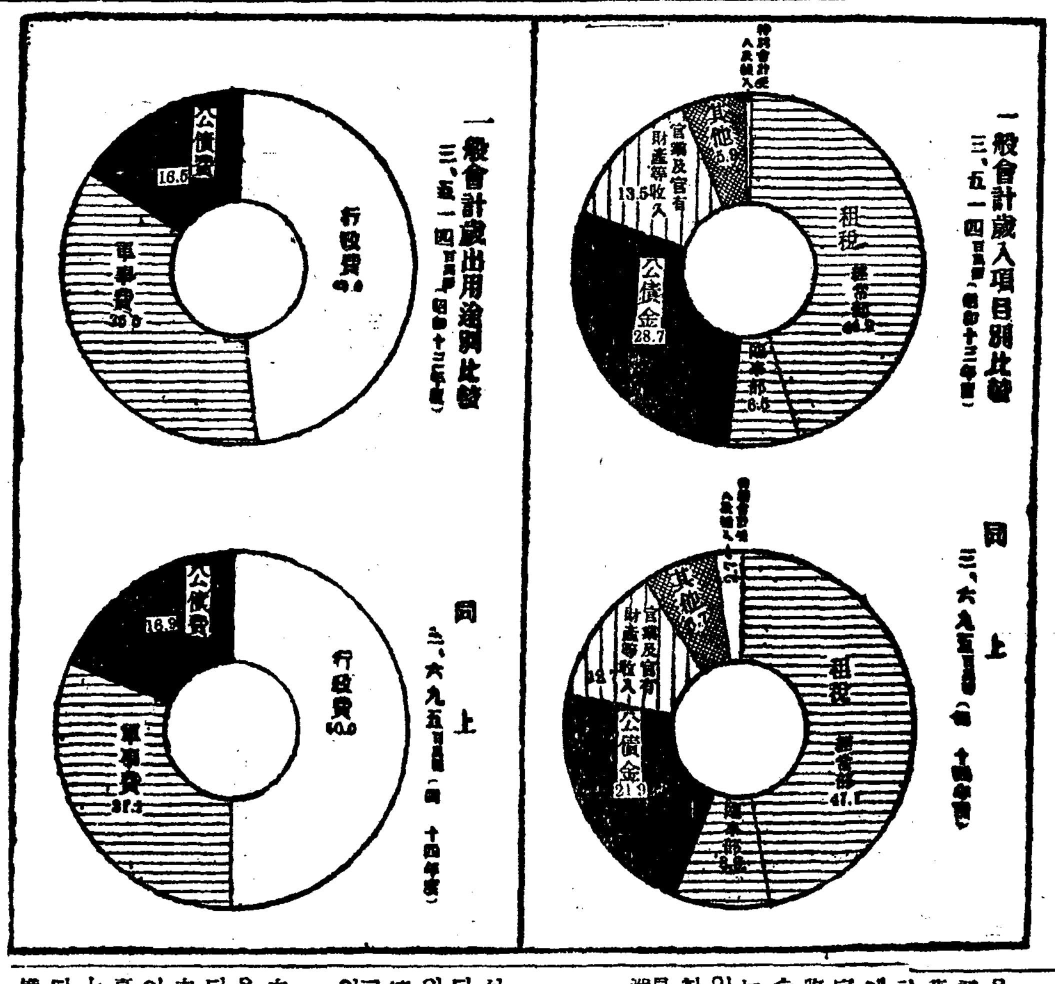
經濟는 어데까지

面的發動

라는先決 皇軍의손에드러오는 것이다。上海陷落을前後하야 盟邦의 斡旋에 依하야 支那가 防共協定에 参加할것과 日本이支那領土로부터 撤兵할것을 條件으로 日支調停에 出馬하려는 獨逸도 잇섯스나 거기 對하야 外務當局에서는 第三國의 介入을不許하는 原則은 變함이업고 오직 民族의 努力을 取함에는 사양치안는다고 發表하엿고 支那側에서는 日本이 撤兵하지안는限 和議가不可能하다고 發表하엿다。 여기서 帝國政府는 斷乎膺懲의方針을 더한層 굿게하야 十二月十三日 敵의 首都南京을攻落시키고 敵의軍事的 세根據地 漢口와또는 그臨時首都重慶에까지라도 追擊할 氣勢아래 昭和十三年 一月十六日 蔣政權을相對로 하지안는다는 重大聲明을 發하기에 이른것이다。이 聲明을 압서기 約一個月인 十二月十四日에는 北平서 中華民國臨時政府가 誕生되고 또그를 지나기 約二個月餘인 三月二十八日에는 南京서 中國維新政府가 組織되얏다。그로써 帝國의 對支政策을 理解하는 新生中國이 建立되기 시작하는 同時에 蔣政權은 一個의 地方政權으로 轉落하게된 셈이다。皇軍은 다시 그威勢를 가다듬어서 그로부터 約다섯달뒤인 五月十九日에 徐州를 陷落시키고 뒤쫏차 漢口로突進하얏다。萬一 敵軍의 黃河決潰와 가튼 暴戾한 行動이 아니드라면 全國民渴望의 漢口陷落도 훨씬 더 迅速하얏을것임에 틀림이 업다。그동안 外相으로 新任된 宇垣氏와 駐日英大使 크레-기氏 間에 會談이 거듭되매 世間에는 英國이 調停에 當하는 것이나 아닌가고 忿然한 推測을 行하엿스나 거기對하야 六月二日 蔣介石은 香港英字紙記者를 會見코 第三國調停의 必要가 업슴

도。에生產力擴充資金 籌措資金을 供給하여야하겟고또支那開發을 爲하야서도 莫大한 資金의 圓滑한 調達을 爲하야는金融部門에잇서서도極度의 統制强化到來가不可避일것으로보인다 그러데 現下의戰時金融體制는 資本主義的限度內에서 其機能을 極力利用하야 戰爭目的의 遂行에 當하고잇고 또그것이 相當히 圓滑히 遂行되고잇는데 戰時金融의 第一線으로써 興業銀行으로하여금 이것을 擔當하게하고 政府元利保證의興業債券의發行을 許可하고잇다。今年에 잇서서도 依然膨大한生產力擴充資金이 需要될것이니興業銀行은 益益多額의 興業債券을 發行하여야할것인데 그것의 消化가 依然良好할는지가 問題인바 市中

銀行 의 立場에서보면 國債保有는 飽和傾向이고 이以上 手持國債가 增加하는것은 金利採算上 不利한것이다。그럼으로 國債를 사는것보다는 高利廻의 社債類를 살것이니 興業債券과가튼것은 良好한 投資物로되여 興業債券의賣行은 그다지 念慮되지안을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이번議會에 『臨時資金調整法』改正法律案을 提出하야 興業債券의 發行限度를 現在의 五億圓에서 다시 六億圓으로 擴大하기로 하고 또他方 興銀의 倍額增資가 內定된 事實을 보면



消化를爲하야 現在보다도 一層强力的인方法이 講究될것이다爲先 考慮되는것은 貯蓄의强制이니 至今까지는 貯蓄奬勵運動에 이라는 精神的道義的運動에 갓치엇스나 長期建設下에서는『貯蓄組合法』따가든것이 法律的인것으로되어 絶對强制的으로 國民의貯蓄을할 義務를負擔하게될것도豫想된다 다음에는 公債의 强制保有어니 池田藏相은 去年十二月四日의 車中談에에서서 公債의 强制保有는 考慮하고잇지 안는다고 言明하엿스나 이것은

公債 의消化가 現在의成績을 持續할수잇는것을 前提로한 言明으로보이나 今後에 잇서서 萬一公債消化가 不圓滑하게된다하면 早晩强制保有問題가 日程에 오를것이다 그뿐아니라 一定利潤의 超過額을 增稅로써徵收하는때는 諸種의 困難이 잇슬것임으로 國債保有를 强制하는 手段이 必至일것으로도 보인다。其外에 郵便局貯金等에依한 國債의 大衆化運動은 一層昂揚되고 그것을 爲하야 公債消化機構가 再檢討될것이다。

生產力擴充及 平和產業問題

生產力擴充은 現下情勢에잇서서는 結局軍備擴充과 同義語이다 그러므로 事變以來로 日本의產業構成은 一路重工業部門의擴充發展에 邁進하고잇다 그리고 事變第二年을마지한 今年에 잇서서

東亞 新秩序의 再建이 武力戰에서 長期建設段階에移行됨을따라 이것은 一層決定的으로되는것이다 그런데 政府의生產力擴充의提唱은 如實한成果를보이어 昭和十二年七月의資本現在高를보면 日本의重工業資本은二十七億二千六百萬圓에 達하고잇다 이것을 昭和十一年의 十八億一千三百萬圓에 比較하면 九

억다。그러나이比率은 其反面에잇서서 아직工業部門이全工業構成中에서서

支配 的地位를獲得하지못하고잇는事實을 表明하고잇는것이다。即我國의全產業資本百四十二億六千七百萬圓에比하면 重工業資本은 僅히二割에도達하지못하야 重工業資本이 아직貧弱한것을暴露하고잇다 이래서는到底히 東亞의新建設體制를 確立할日本產業으로서 不充分한것이分明하다 이와가티 重工業의構成이아직低位에잇스므로 重工業產業의 實際의供給額도 實際需要에對比하야 훨신低位에잇슬것이 推定된다 明年度의膨大豫算中에 果然얼마가軍需資財에 向케될는지 未詳이나 如何튼이豫算의使途는 漸次軍需物資에서 資本財에移行하게될것으로보이는데 資本財의 大部分을占하는것이

重工 業產業의生產物인것은 거의分明하다

그런데 政府에서는 至今까지 모든힘을다하야 生產力擴充에努力하여왓다。即資金調達을爲하야는 率先『臨時資金調整法』으로써 各種의便宜를講究하야 相當한效果를내여왓는데 難關은資金問題보다도 材料와勞働力不足에잇다。我國은元來『가지지못한나라』의하나로서 資材의國內自給에는 一定한限度가잇고 또勞働

爲替水準의維持

長期建設에對應하야 莫大한物資輸入을 確保함에는 爲替市勢의 堅持가 絶對必要한要件이다 이미 對英

一志 二片死守를 國策의하나로써 其維持에 모든힘을다ㅣ하여오바이나 今後에잇서서도此方針에는變함이 업슬것으로보인다。但最近에는 歐洲政局의 不安으로 磅貨가 激動을하고잇서 我國이磅에『링크』하고잇는것은 弗에對한圓의地位를 弱化시켜 米國으로부터의軍需品輸入에잇서서 不利한 立場에잇스나 一面에잇서서 이만한 程度의

下落 으로써는 國策을 變更할必要까지는 업스므로 磅이 一層더 低落되기前에는 依然對英一志二片主義를 堅持하여갈것으로보인다。

爲替、貿易政策

貿易振興策에對하야는 어미 모든角度에서 論議되고 어제부터는 議論의域을 脫하야 實行期에들어온 感이잇다。그러데 諸國의貿易振興對策은 確實히 一定한効果를내여 昭和十三年十二月十日까지의 我國輸出累計는 二六六八、三三九千圓으로 前年同期보다 四四四、四八七千圓의減少이고

輸入 累計는 二六二一、三二二千圓으로 前年同期보다 一、三三六、七八八千圓의 減少이며 出超總額은 四七、〇二七千圓으로 前年同期에는 入超가 六四五、二七四千圓이엇다。이것을 率로보면 輸出은 三割四分二厘의減少 輸入은 三割一厘의減少이엇는데 이와가티 前年의 入超가 六億餘의巨額에 達하엿든데不拘하고 十二年에는 出超가 四千七百萬圓에나 達하엿다는 것은 爲先貿易對策이 相當한 效果를내인것을 알수잇겟다。그러나 벌써부터 論議된바와가티 이러한 數字上에나타난 實績을보고 그것을그대로 樂觀할수는업는것이다。即 이러한 貿易均衡의好轉은 輸出의 增加에依한것이아니고 全혀 輸入의 抑壓에 依하야 達成된것이다。前者의

數字 를보아도 十二年十二月十日까지의 輸出累計는 四億四千四百四十八萬七千圓의 減少를보인데對하야 輸入累計는 十一億三千三百六十七萬八千圓의減少이다。此兩者의減少額合計十五億八千百二十七萬五千圓은 그만큼 我國產業界가 輸入輸出兩方面에잇서서 萎縮되고 따라서產業活動이 그만큼萎退되엇다는것을 말하는것이다。또그뿐아니라 內右는 全輸入을集計한것이므로 內地만에對하야보면 貿易均衡의好化라는것도 그다지 顯著하지못하고 또實際問題로써重要한外貨

決濟 가必要한 第三國에對한貿易 均衡은 그다지 조치못하야 相當한 入超를 보이고잇다。即 滿洲 關東州 支那等의所謂 圓圈을除外한 對第三國貿易의 十三年一月부터 十月末까지의累計는 輸出이 十二億七百萬圓 輸入이十七億三百萬圓으로 差引四億九千六百萬圓의入超이어서 昨年同期의入超 九億三千九百萬圓에 比較하면 約五割의入超減이나 一昨年同期의入超 三億三千二百萬圓에 比하면 一億七千萬圓의 入超增加이다右를十一年

同期 에比較하야 表示하면 如左하다。

圓圈及第三國貿易對照 (一月―十月累計)(單位千圓)

輸出	十二年	十一年比增減▲
滿洲國	三五三、九〇八	一三〇、五三一
關東州	四九〇、〇五六	一四五、一四〇
支那	一四一、六二七	三三、一〇九
第三國	一、二〇七、九九一	▲四四、三二七
合計	二、一九三、八二三	▲二七、四四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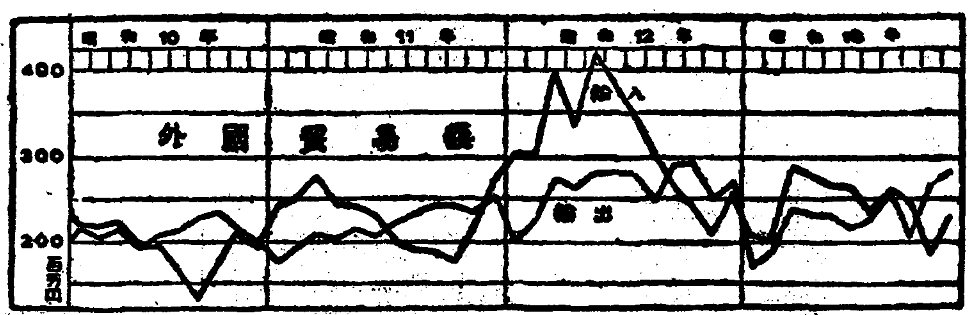
輸入	十二年	十一年比增減▲
滿洲國	三五八、〇三〇	二、三五三
關東州	五〇、一六六	三三、五五五
支那	一三三、八六四	六六、三〇一
第三國	一、七〇三、六六四	▲三四九、七九九
合計	二、二四六、七二八	▲八八六、三一四

差引	十二年	十一年
滿洲國	入三、〇四一	入四四、〇三〇
關東州	出三六、八六九	出三七、六八四
支那	出一〇七、七一三	出二、九二五
第三國	入四九六、四四五	入三三一、〇〇五
合計	入二〇、九五四	入一〇一、八二七

그런데 此中에 對圓圈

貿易 을抽出하야보면 九億二千四百六十萬一千圓의 輸出에 對하야 輸入은 四億五千九百十萬圓으로 이出超額은 四億六千五百五十二萬九千圓으로 要컨대 最近의貿易好轉은 圓圈內 特히 關東州向 支那向輸出의旺盛에 基因된것으로 第三國은輸出入이 모두減少되고 特히輸出의 減少는 輸入減少의 五二倍에達하엿다。即四億九千六百萬圓의外貨支拂이 必要하엿는데 아직까지도 圓圈向輸出은 增加하는 傾向에잇고 一方輸入은 圓圈으로부터의 그것이 漸減되는傾向에잇스니만큼 이問題는 益益

重大 性을띄게되엿다。그런데 今後의問題는 第三國에對한 輸出을 如何히 振興시킬것인가 即我國의 絶對外支拂을 如何히 減少시킬것인가 하는데잇슬것이다。그런데 第三國에對한 輸出이 極度로 萎縮된原因은 輸入制限의 結果에서오는 輸出原料의不足에 잇섯스니만큼 于先 輸出品의原料로 되는것의 輸入을緩和하는方策에 對하야 企圖積極的으로 考慮하여야 할것이다。그러나 其反面에잇서서 輸入制限도 더욱發展될것이다。商品輸出이不振狀態에잇는以上 또對外크레딧트의設定이 困難한以上 輸入制限은 强化될것이다。그러므로 日常消費에充當되는 商品輸入은 益益制限되어 國民生活은 此方面으로부터도 去益緊縮될것을 覺悟하여야하겟다



以待하바다 不振을極하야야는데 其의根本原因은 原料의供給不足乃至 杜絶과 物價騰貴를抑壓하는 諸方策의實施等이다。即 平和產業에對한 原料供給은 軍工業擴充의 絶對的必要에 依하야 極히制限 禁止되어 生產活動이 極度로 萎縮되엿다가 一方最高公定價格制度의 實施에依하야 價格의自由로운 運動을防害시켜 平和產業部門은 生產 販賣가모두 顯著하게 減退되고 따라서一方 原料在荷도 顯著하게 消費되어 特히原料의 大部分을

海外 에서輸入하지안흐면안되는 我國에잇서서는 今後에至大한問題를 投하게된것이다。特히今後에잇서서도 蘇支兩正面作戰을考慮하고 其前提下에 戰鬪力의消耗와蓄積을 同時에 하여가야할 現勢이니만큼 國防力充實을爲하여는 國策은去益 重工業의保護助成에 向하게되어 좀처럼輕工業을援助할 餘裕가 생기지안흘것으로보인다。 그러므로 日本產業이 其重點을 軍工業으로 移行하게되는것은 決코

物資의 供給을 맛스도록 自然 悪性「인플레」가 發現될憂慮가잇는것이다。그러므로 政府에서는 昨年一月에 企劃院을中心으로 爲先 十二年末까지의 物資需給計畫을 作成하고 다시 六月池田藏商相의 손으로 長期經濟戰의 根本原則ㅡ物資總動員計畫을 樹立하야 同月二十七日에 其實行方針으로써 爲替市勢의 堅持 輸出振興에서 轉失業對策에 이르기까지의 十項目의 基本原則을 公開하고 右聲明書는 다시 國內使用制限을 强化할 品目으로써 鋼材以下三十三種을 列擧하엿다。六月二十九日에 于先

綿製 品에 對한民需制限이 斷行된것을 實施하야 其後繼續的으로 諸種의制限令이 公布되어 今日까지에 二千種에達하고 또其他의것도 行政的壓力에依하야 相當한 程度까지 消費抑制의 實効를보이엇다。그런데 長期建設의 段階에 들어옴을따라 物資總動員의必要는 益益緊要性을 加하게된것이다。 十四年度의 長期建設資金을 戰費其他全部를

사이따하는데 여기에는 數年度의 超彪大豫算의 圓滑한 實施를 期하야 生產力擴充計畫遂行과 아울러 改訂樹立할것으로其重點을 新年度의 我國 輸入力의 增强에 두려라한다。我國은 元來 國內資源이 貧弱하야 物資의大部分을 海外로부터 輸入하여야하는만큼 其의輸入力을確保하는것이가장緊要한所以이다。要컨대 第二次 物動計畫도 池田藏商相談에 엿는바와가티 『國內生產의增加 資源의開發及利用 物資의配給及 消費統制物價調整

貯蓄 獎勵 輸出增進 對外支拂節約 金增産 廢品回收 發明獎勵及利用等에 對하야 從來取하여온 方針을 繼續하고 다시 이것을 强化徹底시키는데잇슬것이다。그리고 其强化徹底를 爲하야 國家總動員法이 相次的으로 發動될것인데 爲先 第十大條(事業設備의 新設擴張 또는 改良에關한勅令) 第十條(物資의使用收用에關한勅令) 第二十二條(技術者養成에關한勅令) 第二十九條(戰時特許收用에關한勅令)等의 發動問題가 日程에올랏다。

產金政策의檢討

中小鑛業家座談會 ②

어째든지파내자 機關設立이急先務

▲金潤秀氏=當局에對한 한가지의 要望은 말슴드리겟습니다어째든지 파야한니다 金增產을 爲하야는 如何間 試掘을 盛히하여야 하겟는데 지금에는 試掘權이잇서 一金百圓만가젓스면 試掘權을 獲得할수잇스나 朝鮮에는 아직 試掘權이 업습니다 어째든 파내야하겟는데 朝鮮에서는 一百圓의資金만잇서 必要하게되어잇서 試掘을 自由가 업습니다 그러므로 朝鮮에도 試掘權을 附與하야 百圓만가젓스면 請願하야 손수파는 自由를주엇스면조켓습니다 即德大가좀더活

德大의功績偉大 朝鮮鑛業界의恩人

▲李鍾淸部長=朝鮮의金鑛이國策으로크게 役割을하고 잇는데 大鑛業會社에서 技師가와서探鑛한것은 別로업지안습니까 지금파내고잇는것은 모두朝鮮사람의손으로 發見된것이지요朝鮮의德大는 그功績이 偉大한것으로서 이德大를 살녀야할업슬가요

▲金潤秀氏=말슴하신것가티 試掘權이 잇스면 火藥을使用할수잇는데 元來朝鮮의產金에잇서서 多大한功績이 잇는德大의 豐富한經驗을 活用할餘地鑛區餘地를 주엇스면 조켓습니다 그러케 하려면 모든手續을좀더 簡易化시키는것이絶對로必要할것입니다

▲李容珪氏=現在朝鮮에서는勿論『手掘』을할수는잇스나 火藥을 使用할수업는것이 問題입니다 即試掘權을 주어서火藥을 使用할수잇게하여 달라는것입니다

를 擴大시키는것이 조켓습니다 事實에잇서서 德大는 技術者보다도 優秀한 境遇가 만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當局에 對한要望도 잇거니와 朝鮮人資產家人士들에 對하야도 于先 鑛業에對한認識을 좀更改하여달라고 要望하고십습니다 即至今까지는 資產家에對하야 鑛業을請하는때도 鑛山家에對한 認識不足으로 鑛山에對한 待遇가조치못하엿습니다 좀더資產家들이 認識을다시하야 鑛山家에對하야 援助를하여주엇스면 조켓습니다

예전에는 鑛하는사람은 집廢讓하든지 숨어서쉬쉬하얏고 銀行가튼데도 들어갈쉬가도못하얏든일을 생각하면 한심하지오

狂山家라酷評 農業보다安全

▲崔學成氏=그럿습니다 勿論資產家의援助가 必要합니다 그러나또一方에잇서서는 鑛山家들自身의修養도 必要할것입니다 아직도地方에잇서서는 鑛山家를 狂山家라고 부르는사람도적지안허 鑛山家를속처럼信用하지안는 悲哀한사람도잇스나 實際로 過去에잇서서는 鑛山家自身이 狂山家인지을한적도 不少이엿습니다 元來저는 鑛業이라는것은 農事보다도 더安全한것이라고 생각하고잇습니다。그것은 農事라는것은 天災地變、또 天候等의 自然的條件에 支配를만히밧는것이나 鑛業은鑛脈의延長、金保有量、確定鑛量等을 科學的으로 調査한後 着手하면 農事보다도더 安全한事業입니다。

▲李鍾淸部長=德大制度를 法規化한다는말이잇지안습니까

▲崔學成氏=德大制度를 法規化한다는말도잇지만 德大는 金買入이許可制로된後는 그의役割이 縮少된것이第一缺陷일것입니다

그것도 그럴것이 鉛商에게잡金을賣渡하다와는데 鉛商의消滅로 德大는 金融手段을 喪失하여버렷스므로 德大는減退一路를 밟고잇습니다。

▲金基德氏=朝鮮의 產金事業이 積極的으로 實行되기는 昭和六年부터 시작되엿는데 其間融에는 資金이必要한까닭으로 產金振興會社가 設立된것이라고봅니다 그러데 朝鮮의產金增産計劃은 新規開發을目標로하는것이아니라 戰時資源供給의 應急對策으로서 이미開發된 鑛山이相當한 成績을내이고 아프로도 有望하다고鑛山의 價値가認定되여야만그것을 促進하라는것이 現在增産計劃의 目標가아닌가합니다 저는 增産을 두가지方面으로 봅니다 하나는아직發見되지 안흔鑛山을 新規로開發하는것과또하나는 現在開發이 進展中에잇는것을 促進하야 多量採鑛에 主力하는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中小鑛業家가當局에 要望하는것은 前者의면이더緊迫하다고생각합니다

朝鮮佛敎新京布敎所 尹首成

新京市二條町 三省堂製本所

寧越

江原道寧越郡下東面正陽里 大倉土木株式會社 兪松島事務所

寧越郡北面磨磋里 兪松島事務所內 俞俊吉 朴承武 朴松山 吳箕煥

江原道寧越郡北面磨磋里 永壽堂藥院 姜畊云 舊名 學求

寧越郡寧越面永興里 東昌商會

寧越郡北面文谷里 煉瓦工場一同

寧越邑 親切叮嚀 寧越食堂

寧越邑 永信木工場主 成者泰 成者仁

寧越郡寧越面芳節里 區長 嚴秀煥

寧越邑 寧一理髮館

寧越郡北面磨磋里 東一洋服店

寧越郡上東面草上里 金興成

新京三條町 朝鮮料理 日滿館

新京三條町 朝鮮料理 思君館

江原道寧越邑 朝鮮日報支局

寧越郡上東面九來里高頭岩 稻葉鑛業所

旌善郡新東面禮美市 代書士 全賛玉

江原道旌善郡新東面禮美市 源興商店主 金宗源

寧越郡上東面九來里高頭岩 高頭旅館主 千鍾祿

旌善郡新東川禮美市 昌興旅館 主 黃昌道

旌善郡新東面禮美市 美星製菓店主 朴逸星

慶北奉化郡春陽面下山坪里 商業 金榮培

寧越郡上東面草上里 金水釀造場 主 劉永奎

寧越郡上東面藤田里 面協議會員 辛珪漢

晉州

永和興業株式會社 社長 金琪部

晉州水曜會

晉州釀造合資會社

晉州酒造株式會社

晉陽酒造株式會社

嶺南藥酒株式會社

陜川郡鳳山面 高現鑛山事務所

晉州郡智水面 智水鑛山事務所

實業春秋會

晉州稅務署

晉州朝鮮酒酒造組合

班城佛敎布敎所 住持 金奉述

一班城面 崔東潤

許萬正

一班城面長 黃大容

文聖範

印刷一切 晉州開文社 電話三五一番

天主敎會 金神父

月星洋服店

普和堂藥房 主 許有

李丙鎬

布木商 具仁會商店 電話三三六番

鄭台範

布木商 三二商會 電話三四五番

東洋染織所 秋謙鎬 電話四五一番

尹炳用

大邱地方專賣局晉州出張所職員一同

趙萬濟

肥料海産物 株式會社 協成商會 電話三二二番

江華

江華邑內 森信運輸株式會社

江華產業組合 電話八番

江華郡敎育會

京城府麻浦町一二六番地 龍江汽船株式會社

合一尋常小學校 吳永燮

江華釀造株式會社

京畿道會議員 金根鎬

江華郵便所 古川喜一郎

喬桐郵便所 朴鳳九

溫水郵便所 金永植

喬桐 李仁性

江華穀物協會

私立晉成學校

平安商會 電話一七番

龍井

間島省 和龍縣公署

間島省龍井街 映畫常設 龍井劇場 電話五〇五番

滿洲國間島省龍井街 恩眞國民高等學校 電話二〇二番 振替新京二五六〇番

滿洲國間島省龍井街 龍井貿易株式會社

延吉敎區海星學校 敎育總監部 副主幹 裴光被

間島省龍井街 平壤洋襪製造商會 金一龍

間島省龍井街 間島穀物株式會社

間島省龍井街 間島林業株式會社

間島省龍井街 龍井國立醫院

龍井街本町與井界路 電話七番 星五洋服店

間島省龍井街 間島無盡株式會社 龍井支店

龍井街 濟昌病院

龍井街大通路 電話四五八番 朝鮮料理 海龍館 主 姜古粉 一等名妓十八名

龍井街公所 職員一同

間島省龍井街 間島興業株式會社

本店龍井街大通路電話三七六番 支店牡丹江西長安街電話四〇一八 小林式瓦斯發動機 ヨシダ式發動機 精米機附屬品一切 其他各種機械販賣 農產機械商會

本店龍井街驛通路 電話四五六番 支店 牡丹江市西牡丹街 電話二五三四番 三光硝子工業所

間島龍井街大通路 各國時計及貴金屬寶石 眼鏡萬年筆販賣 月星堂時計店 主 黃忠日

滿洲國間島省 龍井商工公會

滿洲國間島省龍井街大通路 羅紗綿布 既製品學生服 メリヤス帽子 和洋諸雜貨 直輸入 卸商 天一商會 電略テン 一五七番

間島龍井市街 株式會社協信社 電話三四七番

間島省延吉縣龍井街 間島產業株式會社 電話四番 取締役社長 金一龍 專務取締役 趙河彬

泰興鑛業社 主 方泰燮 電話三六四番

和龍縣長 楊嗣驤

滿洲國協和會和龍縣本部 朱泰奎

龍井街 電話二三九番 同春醫院長 崔寬實

和龍縣德新村長 金龍雲

金泰善

朝鮮運送株式會社 嶺美代行營業所 代表者 藤山定七 電話十九番

原木製材 セメント 瑞熏商會支店 崔載堯

嶺美 鐵工業 千里工業社 金允壽

嶺美 精米 九鼎商會 主 李鼎立

嶺美 藤山燒酒 釀造商會 電話一三番

嶺美 和信連鎖 協成百貨店 電話九 振替一五六〇二番

株式會社 太宗社 電話五番 文化堂 東亞日報支局

金壽益

平安館 電話二六番 妓生 金玉珠 金成實 金桂仙 外八人

金壽長

嶺美驛前 高級洋服調進 高麗洋服店 主 李昇泰

三光百貨店 電話二七番 振替三六七 主 [illegible]成

朝鮮放送協會指定取扱所 ビクター特約店 朝日樂器店 主 姜永淑

嶺美 冷麵 溫麵 酒肉 定州館 主 徐廷厦

嶺美 中央麵屋 主 金鳳祥

嶺美 製藥問ヶ 黃金堂 トライクリーニング金成洗濯所

嶺美 嶺美醫院 醫師 方承圓

順和醫院 醫師 [illegible]善

英島運送店 嶺美貨物自動車部 電話六番

嶺美穀物商組合 電話一四番

協力細工 崔德順金物店

釜山

朝鮮釜山府凡一町七百番地 朝鮮紡織株式會社

釜山西部酒造株式會社

蓬萊酒造株式會社

釜山鎭酒造株式會社

牧島酒造株式會社

釜山府草梁町 金錫柱

朝鮮商船株式會社

多大浦漁業組合

大立護謨株式會社 釜山府釜田里三四〇ノ二 電話七七九番

大洋貿易社 釜山府草梁町

內科 小兒科專門 神經科 亞細亞醫院 醫學士 李春男 電話一三七五

釜山府凡一町 回生醫院 愼業緯

釜山府草梁町 福本洋襪工場 金成祐 電話一五〇六番

釜山府釜田里四九四ノ五 天一ゴム工業社 釜山工場

釜山府草梁町一八三 强壯チモール丸製造元 回春藥院 代表 金奭鉉

釜山府本町二丁目十六番地 中央印刷所 朴廷富

釜山府草梁町三三六 內臟外科 整形外科 一般外科 濟生外科 醫學博士 郭在禧 （電話三一六番）

釜山府瀛州町 東山小兒科 金炯璣 電話一九八〇番

釜山府草梁町 耳鼻咽喉外科 永濟醫院 李貴與

釜山府草梁町二三四 海山醫院 李冕載 電話五二二番

釜山府佐川町六八〇ノ一 喜聲ゴム工場 電話二四二二番

南鮮合同電氣株式會社 釜山支店

釜山府瀛州町 李瑾鎔醫院 電話九四五番

釜山商工會議所議員 辛壽甲 釜山府瀛仙町一六五五 電話牧島一七五番

釜山府草梁町入口 金昌齒科醫院 金昌圭 電話七六一番

釜山府佐川町 日光醫院 王致德 電話一七四七番

釜山府草梁町五九三番地 協同印刷社 電話三六八九 三〇七七番

釜山府榮町三丁 光明材木店 朴明守

釜山府瀛仙町 普生醫院 李鍾奭 電話牧島一一二番

釜山府大橋通り 慶尙南道水產會

釜山府大倉町一丁目廿一番地 二和商會 朴允弘

釜山府草梁町三九三番地ノ一 南鮮倉庫株式會社 支配人 崔翔圭 電話二〇二番

釜山府瀛州町 合資會社 蓬萊劵番 代表社員 林仙伊 電話一四一三

釜山府榮町三丁目 東明印刷所 金丙壽 電話六一一番

釜山府會議員 李榮彦

釜山府瀛州町 製菓原料食品卸商 丸星商會 電話九三一四番

釜山府草梁町六〇三 硝子·鏡·漆器·諸道具卸 大陸商會 店主 鄭采龍 電話(特)八六五番

釜山草梁町五七五番地 洋襪メリヤス綿子卸商 三和商會營業部 電話七八一番

釜山府草梁町 合名會社 鄭仁五商會 電話長二〇二一番

釜山府草梁町一三三番地 眼科 耳鼻咽喉科 東光醫院 金龍錫 電話一一三八番

釜山府瀛州町 裵相泰

釜山府草梁町五六五 金銀細工及新式セルロイド骨牌特約販賣 鏡鮮堂 支配人 鄭允模

釜山府草梁町六八 綿布商 元益商店 主 李春玉 電話長一八三六番 振替釜山七二四六番

釜山府瀛州町三三番地 靴下 軍手 メリヤス タオル 學生服 製造卸 丸大商會 主 朴邦佑 電話三七〇七番 振替釜山一四三二番

釜山府瀛州町六六八 慶南醫院 韓鎭灼

釜山府草梁町 金千壽

釜山府草梁町六五七 姜基欽

釜山府榮町三丁目 太平精米所 申德均 電話七三三

釜山府釜田里四六〇番地 釜山釀造株式會社 代表取締役 河元俊

釜山府釜田里 寶生護謨工業所 電話一四二四番

釜山府本町 金雄鎭 電話二〇二七

大成製材所 主 成渭德 釜山鎭驛前 電話三三一九番

釜山府草梁町 朴順伯 電話三四六番

釜山府草梁町五六二 玉蒲乾材藥局 崔翔甲

多大浦實用學校 職員一同

慶尙南道產業組合協會

釜山府瀛州町 朝鮮料理 瀛春館 吳鎭煥 電話二五七八

釜山商工會議所 理事 上田耕一郎

新義州

新義州 金基鴻

新義州府榮町四番地 李熙迪

新義州共榮會

利和時計店 新光百貨店 直手商號 金亨根商店 三成商店 高輪商會 國境婦人商會 泰信洋服店 永順商店 大東書林

二隆商會 大昌商店 牧一商會 大和洋品店 和義商店 順明商店 文元堂 文吉商店 鐵山商店 三共百貨店

東光商會 白頭商會 金澤商店 仁泰時計店 七龍商店 高麗洋行 應和商店 西北商店

新義州府老松町四 辯護士 朴榮徽

新義州 金義明

新義州府會議員 鄭元燮

新義州府敷浦洞四一六番地 朝鮮穀物工業社

新義州稅關通 國鉉商店

新義州府眞砂町 內科 小兒科 濟衆醫院 院長 李熙遇 電話三一三番

新義州土曜會員（順序不同）
王子製紙株式會社朝鮮工場
朝鮮銀行新義州支店
朝鮮殖產銀行新義州支店
朝鮮商業銀行新義州支店
朝鮮貯蓄銀行新義州支店
朝鮮運送株式會社新義州支店
共同保管株式會社

新義州府鴨川町一番地 新義州製材合同株式會社

新義州府 柴田祐光

新義州各公立學校長會

新義州府老松町二〇 合資會社 信一商會 代表社員 崔允涉

若竹町一七番地 朝鮮料理 太西館 電話六二一

平安北道會議員 姜利璜

新義州眞砂町 姜海龍醫院

老松町一五 和洋料理 赤玉 電三一五

新義州圓大組合

新義州府老松町一八 高級綢緞專門 玉商會 金應洛 電話六七七番

株式會社 新延鐵工所 代表取締役 朴龍水

平安北道廳 高等官食堂

新義州眞砂町五丁目 金鳳文

新義州府本町四 國境商事株式會社

新義州府 多獅島鐵道株式會社

趙尙鈺

合資會社 豊林商會 雜木ベニヤ板製作 雜木 杉松 紅松製材 新義州府梅町五四番地 電話(長)三六九番 振替京城一八七二五番 取引銀行 朝鮮商業銀行新義州支店

新義州眞砂町四丁目 三和堂藥局 藥劑師 田基恒 電話長三八番 振替京城一二七三一番

日滿運輸株式會社 安用善

新義州 表谷佐平

新義州府老松町三 辯護士 桂明壽

新義州府彌勒洞三ノ四 新義州 第一產業組合

新義州 第二產業組合

新義州老松町 文房具 紙類 綿布 雜貨 文化堂 電話七一三番 振替京城一七五五番

新義州府眞砂町四丁目三ノ一番地 各種고무 貿易商 朝鮮고무商會 李昌健

新義州 義山材木店 金基德 電話九五二番

新義州江岸驛前 (ト) 國境通運社 李載奎 電話長六一八番

新義州府梅町 義昌製材所 宋寬哲

新義州府霊井町六 精米 籾麥 及製粉業 新正商店 電八六四番

新義州府彌勒洞 德山醫院長 金承鎭

朝鮮新義州榮町四丁目 精米業 貿易商 新興商會 電話百〇八番 電略(シ)又(シン)

平安北道各金融組合 朝鮮金融組合聯合會 平安北道支部

新義州府初音町四ノ四番地 忠和醫院 院長 鄭宗成 電話一二三九番

新義州驛通 金滿商行 電話九七二番

新義州府

新義州府老松町五 東洋醫院長 崔允鼎

新義州 白基肇

新義州府砂町六丁目七ノ二 朝鮮 高粱酒株式會社 電話長一九三 振替京城一二五〇五番

新義州府眞砂町 辯護士 神保信吉

新義州府眞砂町四丁目三 光城煉瓦工場 電話二七四番

光城面長 金學鉉

新義州 私立日新學校

新義州府彌勒洞一二三番地 杞柳 柳工藝 細工 製造販賣 授產事業 新義州振興組合 電話一〇九四番 長五一六番

新義州金融組合

新義州府老松町四番地 辯護士 朴天一 電話二九一番

新義州 全基欽

新義州府榮町五丁目 平北穀物協會

內科 小兒科 產婦人科 明山醫院 黃明坤 電話一二二番

新義州府老松町十四 高等料理 青松 金昌鶴 方龍淵 電話九五九

木材問屋 碧潼商會 李肯夏 成璋根 李範仁

新義州稅務署

新義州府眞砂町五丁目壹ノ一 和義金融組合

新義州府老松町七番地 カフェ 老松軒 福永義明 電話五五九番

新義州府眞砂町六丁目 金井商會

新義州府彌勒洞 龍成號精米所

新義州老松町 順興商店 電話一一六一

新義州府眞砂町 青山材木店 鄭載曜

新義州府老松町四番地 春山乾材藥局 趙炳華

新義州府初音町一六 桑原材木商會 鄭芝寬 電話一八四番

新義州タイヤー修繕工場 金學鎬 崔盛根 韓昌大

金星商會 具益均

新義州 鮮滿交通株式會社

名古屋

一般工作機 精密機械 製作 宮川工作所 主 趙三山 名古屋市昭和區堀江町三ノ一六 電話瑞穗(73)一八四六

東京シャンプー名古屋總代理店 販賣部長 田茂用 名古屋市中區七本町二ノ八 電話南③一九五三番 振替名古屋四六三八番

古鐵商店 主 崔達坤 昭和區福江町五ノ八 電話瑞穗(37)二三三五

精密諸機械 航空機用 精密諸螺子 松山鐵工所 主 李豐來 昭和區小針町三丁目 電話瑞穗(37)二九九五

鶴龜タクシー 安庚濬 名古屋昭和區雁道町三ノ四 電話瑞穗(73)一五七八

カフエー 朝日食堂 主 李吳朴 贇君好 子珪子 中區老松町九丁目

共益商會 專務 趙在源 中區板橋町一ノ八二 振替名古屋三七九九八

아리랑카페ー 主 石榮達 中區老松町一〇ノ七

金奎泰 南區立寺町

조선어로印刷는本所로! 名古屋市中區大須境內二四號 印刷 百般 光禮印刷所 主 金禮浩

慶州館 主 李泰周 昭和區白金町四ノ二

七星堂漢藥房 韓學奎 名古屋西區櫻木町四ノ一〇

布木商 金丁泰 名古屋市昭和區御器所町門屋敷三二

朴來壽

愛知縣協和會 新榮支部補導員 金義贇 中區營老町一丁目

平和堂藥房 主 李錫來 昭和區吹上町二ノ四

海陸物產 都賣商 吳商店 主 吳仁煥 中川區八熊町中街道

金三伊 名古屋市昭和區堀江町四ノ一

古物商 金元根 昭和區鎌田町一ノ二

名古屋市昭和區鎌田町三ノ一五 李震世

古鐵商 主 朴宗洙 昭和區鎌田町 電話瑞穗二八六〇

內鮮向布木商 主 李棋永 中區松元町一丁目一六

釜山館 主 朴仁善 昭和區白金町

布木其他 朝鮮海產物 都賣商 主 申仁祚 中村區柳町二ノ二

姜性七 中村區牧野町砂田五〇

大衆酒場 上南組 金鍾順 名古屋市昭和區堀江町五ノ五

精米商 李仁守 中村區則武町

布木商 李鉉麒 昭和區鎌田町

布木商 尹琯昊 昭和區福江町

米穀商 金鍾琇 名古屋市昭和區堀江町一ノ二

古鐵商 許鳳秀 昭和區木村町一ノ八 電話南一二五

古鐵銅商 朴昌夏 中區西日置町二丁目

統營館 主 李哲榮 昭和區福江町五ノ四

古鐵商 松田商店 主 楊秉南 中區流町五 電話(6)七六八四

李吉世 昭和區西島町

京樂園 鄭芳子、金山玉、鄭京子 昭和區福江町

仲仕請負業 岩本金太郎 本名 金鳳守 昭和區堀江町七ノ九

李禧世 昭和區堀江町

諸機械 鐵工 高級鍍金 李周京 昭和區福江町四ノ三

東中食堂 許龍秀

朝鮮日報

新年號 其六

【스포-츠訓話】
一、嚴肅은스포-츠의 第一의美德이다
一、自己를訓練함은 各競技에잇서서 義務이다
一、純眞하게싸호지안흐면 競技의美點은皆無이다
一、武士道의精神은 스포-츠의道德的優美가된다

世界記錄에挑戰할 氷上朝鮮의意氣

都市對抗을序幕으로活氣띠울銀盤界

全日本의霸權은누구에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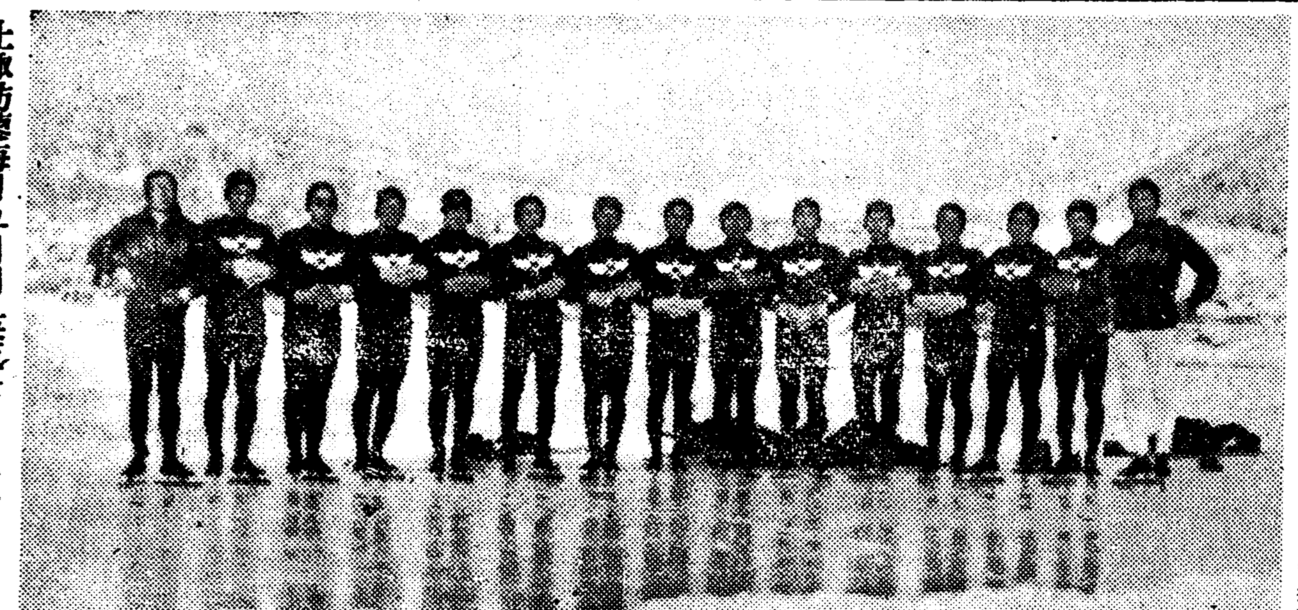
해마다躍進을보이던 氷上競技界는지난해에 이르러서 全日本의王座만은 連續獲得하엿스나그實記錄上으로는 崔龍振君의五百米四十三秒六이란 收獲이잇섯슬뿐으로 이러타할만한 進境이업섯슴은 寂寞의感이 업지안엇다 沈滯한氣分을 깨끗이 시처버린 新春氷上競技界는 限업는 光明에 가득찻다 이미在東京펭귄俱樂部員들이 諏訪湖 赤城山頂링크에서 練習記錄會에서 지은記錄을 보드래도 그들에게對한期待는 크다아니 할수업다 우리는 올림픽參不參을 念頭에둘必要조차업다 다만世界記錄에의挑戰이唯一한 目標일것이다 이해의 첫幕을 오는 七日午後一時에 淸凉里링크에서 열리는本社後援의 第四回全朝鮮都市對抗氷上競技大會이다 이 大會에서朝鮮內의 精銳들의 力量을 尺度할수잇슬것이다 이都市對抗에는 各地에서 추려뽑은 猛將들이 總登場할터인데 全日本의覇者 崔龍振君이 學窓生活을 떠난後 社會人으로서 처음으로마지하는 씨-슨이라 練習不足으로因한 實力低下를 豫想케하는데 五百米와 千五百米는 그런대로 面目을 維持할는지 모르나 五千米와一萬米에는 練習時에 十八分臺를내이는 新銳 金演集(咸興)君과 超中學級의金河吉(松都中) 李明天(徽文)等이 오히려 活氣에 넘치고잇다 八日에 行할 朝鮮神宮氷上大會에서 四、五名의 朝鮮代表를 選拔할터인데 前記選手들과 新義州의 金鍾會、任秉奎君等은 勿論이요 方峴의 許景日君、平壤 安州等地의 無名勇士들이 어울린 爭覇戰이야말로 戰前豫想을 許치안는다 朝鮮內의 豫選이끗나면 一月十七日부터 諏訪湖링크에서 열리는 第十回全日本氷上選手權大會에 朝鮮代表가 參加할터인데 이大會는 氷上朝鮮의 第一線을 거러가는 東京펭귄軍의 張祐植、安重熙、張日弘、崔昊洙、尹寬楨、李仁源、金永俊、鄭庚彦、朴性用君等이 五、六日에 열릴 全日本學生大會를 마치고 自信滿滿한가운데 大擧參戰할터이며 滿洲氷上界의 第一人者朴鬪哲(無敵)君을 비롯한 安達、牛島、三代君等이 出場하고 內地에서는 早大의安洞、山下、中村等의 錚錚한鬪將들이 動員하야 今年度氷上選手權을 다투기로되엿는데 昨年의覇者崔君이 長距離에不安을늣기고잇스니만치 遠期에는 難色이보이며 張祐植君은 短距離에密한關係로 選手權을바라기는 어려울것이다 이리하야 朴鶴哲、南洞、尹寬楨、崔昊洙君等의 激烈한爭霸戰이 展開될것으로 豫想되는바 더욱이劃期的記錄을 期待케한다 그리고 十一日과 十二兩日間에 亦是諏訪湖링크에서열리는 第九回 全日本中等大會에는 開城松都中學의制覇가 거의確定的이라고豫測된다 끄트로世界記錄과 朝鮮記錄을 對照하야보면 다음과가티懸隔한 差異를보이고잇스나例를들면 朝鮮에서五百米를四十三秒六에 走破할수잇다면『오슬로』나『산모리츠』가튼곳의 氷質에서는 一秒乃至一秒五를 短縮할수잇스니 四十二秒一의 實力을가지게되므로 世界制覇의 宿願도 實現되기에 어렵지안흘것이다

世界最高記錄

五百米41秒8 엥그네스탕겐(諾威)
千五百米2分14秒9 스태스루드(諾威)
五千米8分17秒2 바랑그루드(諾威)
一萬米17分14秒4 바랑그루드(諾威)

朝鮮最高記錄

五百米43秒6 崔龍振(府銀)
千五百米2分25秒金正淵(總督府)
五千米8分49秒9金正淵(同上)
一萬米18分2秒7金正淵(同上)



上諏訪湖링크에서 英氣를 기르는 펭귄軍

스포-츠界展望(其二)

【가운데는 世界에자랑할 跳躍界의至寶 金源權君의 포-즈】

昨年度朝鮮陸上最高記錄

百米 金裕澤(高商) 一〇秒八
二百米 韓晃奎(養正) 二二秒二
四百米 李廣變(養正) 五〇秒三
八百米 中村(鐵道) 一分五八秒三
千五百米 中村(鐵道) 四分七秒二
五千米 梁任得(慶南) 一五分四二秒六
一萬米 柳長春(遞信) 卅二分廿秒三
마라손 柳長春(遞信) 二時間卅分八秒八
高障碍 李華宗(府廳) 一五秒
中障碍 李常榮(遞信) 五八秒六
低障碍 高鳳梧(京師) 二七秒八
三段跳 金源權(普專) 一五米六三
投鎗擲 白承旭(普專) 四四米二八
走高跳 金源鼎(京城) 一米八七
走幅跳 金源權(普專) 七米五四
投圓盤 朴寶圭(府廳) 四〇米三三
投砲丸 柴田(東一) 一三米
投 鎗 李秉璜(京城) 五五米二六
棒高跳 富田(鐵道) 三米九〇

女子部

六十米 酒谷(二女) 八秒五
百米 酒谷(二女) 一三秒五
二百米 梁英淳(同德) 二九秒一
四百米 柳根姬(春川) 一分一〇秒
八十米障碍 津島(一女) 一四秒八
投砲丸 朴南玉(慶北) 八米四六
走幅跳 津島(一女) 四米七九
走高跳 小林(龍谷) 一米三七
投圓盤 山邊(女師) 二五米一六
投槍 山邊(女師) 三〇米五一

蹴球界의目標는歐洲로 戰法研究에精進하라

【蹴球界】

全日本蹴球制覇의 偉業을達成한 戊寅年은 저물고 希望에 가득찬 새해는 [illegible]다 新春부터 우리蹴球界에 던저진 새로운課題는 歐羅巴遠征을 計畫하라는 意義잇는問題이다 이것은勿論一朝一夕에 이루기는 難事이나 그러나 目標를歐洲에두고 先進國의 蹴球戰法을 專心研究하여야할 時期는 이미왓고 닥처왓다 陽春四月에는本社主催의 第二回全朝鮮都市對抗蹴球大會가大衆的人氣를 어끌른 가운데 展開될것으로 벌써부터 蹴球人의 가슴을 날뛰게한다 蹴球朝鮮에 들려올첫 消息은 東京에서 待機中에잇던 普專蹴球團의 捷報일것이다 來一月一日로부터 五日까지 東京明治神宮外苑球場에서 開催될 大日本蹴球協會主催의 第一回全日本實業專門學校蹴球選手權大會에 朝鮮에서는 斯界의强陣 普成專門蹴球部가 勇躍參戰케 되엿는데 戰前豫想은 朝鮮에잇서서도 지난해에 延專에 連다라 두번이나 覇權을 獲得한것은 勿論 이려니와 同軍中에는 올림픽候補選手朴奎楨을 비롯하야 三地域對抗蹴球에出場하엿던 玄孝燮閔丙大等의 第一線의 巨將들이 잇는만큼 內地의慶應、早大、關學을 相對로하야도 戰前豫想을 許치안흐리만치 陣容은 자못 堅實하야 이번第一回 專門校大會에 參加한 大倉高商、名古屋高商高松高商、昭和高商、高千穗商商和歌山高商、日本齒科、橫濱商專、長崎高商、東商大專門部、福島高商、靑山學院、早大專門部等十三個校는 無難히 擊破하고凱旋할것 大會의 榮冠을 占領하리라 普專軍이 獲得할것이라는것이 아마 順當한 豫想일것이다

全日本蹴球界를征服한 朝鮮軍

【럭비界】

新春럭비-界의 巨彈! 西部럭비-協會主催의 第十四回全日本高等專門學校 럭비-選手權大會는 一月二、四、六、八日의 四日間 大阪花園競技場에서 擧行하게되엿는데 朝鮮에서는 普成專門럭비-部가 代表權을 獲得하게되여 戰地大阪에서 待機中에잇다 普專은 前記大會에이미 七次나 參戰하야 實力이잇슴에도不拘하고 第十一回때에는 決勝戰에서 明大豫科軍에게 惜敗한것을비롯하야 第十二回에는 三重高農에게 十九對十一로 물러섯스며 第十三回(昨年度)에는 强豪 早稻田高等學院에게 十一對六으로 敗退하야 雄志를 達成치못하엿스나 이번에는 鬪志滿滿하야 京代表로選出된 早稻田專門部와 慶應豫科를 비롯하야 大阪紀和代表의 同志社高商과 朝鮮에서出場한 普專等이 優勝候補의 話題에오르고잇다 그리고 普專軍은 大會첫날인 二日午後二時十分에行할 第一回戰에서 秋田鑛專軍과 對戰케되엿는데 어떠한 相當한强陣이라 激戰을豫想케하는바 決定된十二地域代表는 다음과갓다

◀同志社高商 ◀北大豫科 ◀早大專門 ◀大連高商 ◀慶應豫科 ◀東北高商 ◀福岡高商 ◀神戶高商 ◀秋田鑛專 ◀浪速高校 ◀高知高校 ◀普成專門

【銀盤의霸者 崔龍振君】

【驛傳界】

中等驛傳競走界의霸者!培材中學은 一月八日에 關西大學主催로 열리는 第十五回 全日本中等學校大阪…神戶間往復(三十八哩六)驛傳競走大會에 出場하게되엿는데 昨年에는 全코-스를 三時間四十一分二十一秒로 走破하야 覇權을 잡은뒤이라 今年에는 더욱陣容을充分히하야 池永龍、吳昌濬、白昌鶴、李鍾蘇、金益俊、劉寬興等六名選手가 連續制覇를目標로 來四日에 壯途에 오르게되엿스며 이미壯途에오른 同校卓球部에서도 來四、五兩日間 東京麻布小學校講堂에서 열리는 第五回全日本中等學校卓球對抗(東鄕優勝旗爭奪)戰에 出場하야 主將崔振恒、金稷埈、洪性澤、鄭允成、朴應善等의 五名은 全日本中等制霸의 野望에불타고잇다 以上과가티 出場遠征請球와 拳鬪를 비롯하야 淑明庭球東京遠征 普專蹴球東京遠征 京師덕비와 普專럭비-大阪遠征 松都中學氷上諏訪遠征 培材卓球東京遠征、朝鮮氷上代表諏訪遠征等十個團體가 모다外征中에 新年을마지하야 劈頭부터 朝鮮健兒의躍進譜는 바다의 이쪽저쪽에서 요란이 들녀오게 되엿다 이러케 意義깁게 마즌 己卯年의 스포-츠界는 벌써부터 多事多端할것을 豫期하고잇는데 무엇보담도 크게 期待를 이끄는것은 今年에는 日獨文化協定에 依한 스포-츠交歡이 잇슬모양인데 獨逸의 陸上競技、蹴球、拳鬪等을 招聘하게 된다면 朝鮮에도 적지안은 收獲을남길것으로 豫想된다 그리고 年中에 布哇에서 孫、南兩君의 出馬를 [illegible]한다고傳하고잇섯는데 이것이 實現된다면 世界舞臺에서 雄飛할 마라손朝鮮의威名은 또한번떨치게될것으로期待된다 (高鳳梧記)

【大阪서待機中의普專럭비-軍】

【東京서活躍中의 普專蹴球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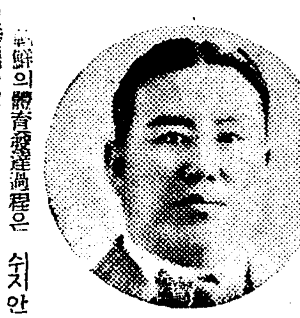
昨年度水上最高記錄

◇水上競技
百米自由型 金致主(徽文) 一分一〇秒八
二百米自由型 鄭安謨(平壤) 二分二四秒八
四百米自由型 池光浩(普專) 五分四六秒九
百米背泳 尹舜熙(養正) 一分二七秒一
二百米背泳 尹舜熙(養正) 三分四秒五
百米平泳 金[illegible](釜山) 一分二五秒
二百米平泳 [illegible](普專) 三分〇秒七

◇氷上競技
五百米 崔龍振(펭귄) 四三秒六
千五百米 崔龍振(펭귄) 二分二六秒六
三千米 張祐植(펭귄) 五分一五秒七
五千米 張祐植(펭귄) 九分〇秒一
一萬米 張祐植(펭귄) 一八分四四秒九

體育大衆化에對하야

中央體育研究所師範 徐相天



朝鮮의體育發達過程은 수지안흔變遷하고잇다 이過程을나누워 三階段으로생각할수잇다 첫재는 啓蒙期인데 즉體育이란思想이처음드러와 微微한發展을하고잇슬때 다시말하면 幼年期라고말할수잇고 둘재는 選手尊重時代 一般化되어가되 程度가밋지못하고 卽大衆的一般化는 큰發展이잇서도 局部的으로는 一部選手에서는 世界的水平線에갓가히가는時期를생각하고싶다 三에는 體育一般化라는 階段인데大衆的으로 長久한時期를두고 努力에努力을더하여 千辛萬苦해서 겨우 나아갈수잇는 階段이다。昨年까지는 朝鮮의體育運動이 搖籃期로부터 겨우 第二階段에드러가서 過去의成績에比하야 一段의進步를 보히수엇스니 全東洋的選手를 多數히낸은 勿論이려니와 世界的選手도 내게되엿다。全東洋的으로 蹴球며 籠球陸上競技 拳鬪 氷上 自轉車 力道等 本是西洋사람과 東洋사람이 다르엇스므로 硏究조뒤떠러저해더라도 해서못밋칠바는 아닐것이다。今年末에 蘇峰 李丙學先生이 力道選手八人을 引率하고 渡東하여 七體級中에서 一體級은選手의事情으로못가고 그外에간六體級에는 全部優勝하고 한사람도 入選되지안흔사람이업시 全部入選되고 그中南壽逸君이 올림픽記錄을 突破한것은 去年에 孫君이『마라손』에지은 世界的記錄과가티 今年度의 큰收穫이다。이와가티 世界的記錄을지으면 그選手와 그國家가 榮光될뿐아니라 나도하면 世界的으로 무엇이든지되겟고나하는 高貴한信念을 歷史와함께 百千代를나려가며 뒤에오는 나이젊은동모들에게 주게되니 그얼마나 조흔일인가 各方面을通하야 文學이나 藝術이나 各部門을通하야 體育이 一層急進的으로 世界的水準에갓가이 向하고잇스는것은否定할수업는 事實이다 그러나體育一般化라는큰眼目으로 볼때에는寒心한程度에잇다。

이 已卯年부터는 優良한選手도더 一層내뿐아니라 體育一般化에나아가지안으면 안될것이다 朝鮮을體育一般化라는 眼目으로 볼때에는 至極히重態에 處하고잇다 이體育一般化에는 새로운運動方法으로도 조흐나 在來의 [illegible]運動으로『씨름』이라든가『건네』가『줄다리기』라든가 [illegible]으로도 改良獎勵하면 頗히有効할것이다 新式運動習得의 機會를갓기어려운 農村子女 例컨데 柔道나野球等運動의指導를밧기어려운사람도『건네뛰기』나『널뛰기』그實興味잇는이요老幼의別이업고 運動量도適하게하면 弱하게할수잇고 强하게하면 强하게할수잇는 合理的運動이다。한길 [illegible] 體操의 眼目으로보면 平均運動도되고 [illegible]運動도되고 器械運動도되고 [illegible] 在來의손運動은 改良普及치안흔다는 理致에合하지안는일이다。그러나 우리가 너무 新式運動에만 置重해고 在來運動은 너무等閑히햇다고볼수잇스며 當局에서도 在來運動이라면等閑히取扱햇다고 하지안흘수업섯는데 今番에와서 學務當局에서 朝鮮在來運動도 特別獎勵한다는方針은 이點에留意한것이길생각한다 內外多端한此際 大衆的으로一層强健한生命을 要求하는 오늘날『體育運動一般化』라는 큰希望으로서 이해를보내고 새해를마지하고자한다

(寫眞은 徐相天氏)

【推上과리프트에 世界新記錄을지은 南壽逸君의雄姿】

(지난해中等[illegible]에서 [illegible]한培材中學蹴球團)

戊寅스포-츠界NO·I

許多한 記錄을 남기고 저무른戊寅스포-츠界를 回顧하야 一年동안 남기고간 收穫을 들추어서 各部門의 NO·I을 選定하여보는것은 興味잇는 일이라하겟다 出等한 戰績을남기고도 어에빠지게된團體 또는 個人이 잇슬는지도모르나 어에對하야는 널리諒解를비는바이며 其部門에잇서서 記錄上으로나 또는戰績이 가장 優秀한團體와 選手를 登載한것이다

◀軟式庭球=黃甲成、權綱仁組
◀蹴球=咸興蹴球團
◀씨름=宋炳奎(黃州)
◀陸上競技=金源權(普專)
◀重量擧=南壽逸(京電)
◀拳鬪=金明錫(朝拳)
◀卓球=崔楨恒(培材)
◀自轉車=李潤白(延專)
◀氷上競技=崔龍振(府銀)
◀中等野球=東萊中學
◀中等蹴球=培材中學
◀籠球=普成專門
◀柔道=李鮮吉(春川)
◀水上競技=盧貞鎬([illegible])
◀레스링=金鍾興(明大)
◀中等陸上=培材中學
◀中等籠球=平壤三中
◀專門排球=普成專門
◀女子籠球=淑明高女
◀女子卓球=金菊培(大邱)
◀女子陸上=李明姬(海州)
◀中等庭球=張在潤金成學(養正)
◀專門庭球=安井張日翊植(高商)

愛國生命保險株式會社 京城出張所 所長 崔宇植 京城府黃金町二丁目五十三番地 電話本局②二八六〇番 本社 東京日比谷

京城府南大門通二丁目百九番地 株式會社 廣昌商會 社長 趙善用

京城鍾路二丁目二〇 內外圖書出版發行 都賣散賣業 德興書林 主 金東縉 振替京城二九〇一 電話光化門一一八九番

絹織棉布商 東一商會 吳重燮 京城府鍾路三丁目

京城鍾路三丁目 孫鍾洙

金萬庸

京城府寬勳町一四二番地 北星堂書店 金鍾大 電話光(3)二五二八番 振替京城二二四〇〇番

新富座 富井實太郎

慈祥局 尹泰

京城府鍾路二丁目三三 天風堂藥房 金尙謙

新田留次郎

京城府鍾路二丁目九九番地 布木商 李德裕 鉛町一二一番地 不老汗蒸院 電話光化門長二一六七番

株式會社朝鮮機械製作所 常務取締役 廣島敏行

朝鮮內外 映畵配給業組合

京城府黃金町四ノ六五 丸加鐵鋼商會 崔商仁 電話本局②五五〇七

式場裝飾 造花衣裳 萬花堂禮式部 西大門一丁目八五 電光二〇九三

建築業 建陽社 京城府嘉會町三一ノ三 電話光化門③一三一九

絹布商 金熙俊商店 京城鍾路一丁目 電光七五九番

京城府公平町一一九番地 發明學會 電話光一九四三番 振替京城一八四六三番

京城府南大門通四丁目六六 絹綿布商 李彰夏商店 電話本局②七一三番 六九八七番

京城南大門市場 果物委託問屋 元胤洙商店 金光洙 電話本局二三九八番

京城南大門市場 商人聯合會

京城南大門市場內 諸果物乾魚 油菓糖類品 各種子干茸 張基瑛商店 電話本局四七四九番 振替京城八一三〇番

京城府公平町五九番地 朴吉龍建築事務所 電話光化門一五六四番

京城府西大門町一丁目 朝鮮第一自動車學院 尹用圭 黃致命 全永坤 韓鼎鎬 朴大永 具聖書

電氣蓄音機 高級ラヂオ 電氣器具 各種卸問屋 京城府南大門通一ノ一二七 東一電氣商會 電本六五一九番 振替京城二六五〇二番

全般運動具專門商 崔學基運動具店 代表者 崔學基 [illegible]

元山

元山府萬石洞二番地
乾材藥種貿易
春源局
主 李基燮
電話一〇二一番
振替京城二九〇七七番

元山府南村洞
朝鮮料理 元祖
海東軒
電話八六五番

元山府本町五丁目三六
鑛山、土地、保險、穀物業
金成社
電話一七四番
振替京城一九八九二番

朝鮮第二區機船底曳網
漁業水産組合

元山穀物商組合
元山精米業組合

德源府內面事務所
德源赤田面事務所
安邊瑞谷面事務所

元山府

元山土曜會

元山商工會議所

元山
中外印刷所
主 朴鳳林
電話一七二番

元山銘石洞
半島醫院
院長 車亨恩
電話二〇三番

元山府上洞
東山醫院
院長 李相基
電話二九二番

元山府上里一洞

元山府海岸通五丁目
金剛鐵工所
主 金圭弘
電話八六二番

元山府海岸通六丁目
昌成商店
主 金鏞保

元山府銘石洞
金物 ラヂオ 電具部
一〇堂
主 董源敏
電話六八二番

元山府旭町二丁目
內外穀物委託及通關仲立業
鮮滿洋行
電話九二九番

元山府海岸通六丁目
三山商會 魏楨鶴
電話{五一五 九八八番

元山府銘石洞
北鮮土地測量社
李圭明

元山本町五丁目
シンガー裁縫機械會社元山分店
主任 朴仕淳

元山府南村洞
二興商店
電話七三三番

海産物貿易商
金永根
電話五六七番

元山府海岸通一丁目
三興精米所
主 金玉鉉

元山府銘石洞
穀物藥材貿易
農元局

元山府南村洞
昭和商店
主 朴宗億

元山府銘石洞
元光社
主 康德三
電話五三六番

元山府海岸通一丁目
兄弟薪炭商會

元山府銘石洞一二六
北鮮酒造株式會社
電話五四七番
振替京城一八、三五〇番

元一燒酎醸造合資會社
主 姜灝

元山府上洞
朝鮮中華料理
朝鮮館
電話八九六番

元山府海岸通六丁目
上田水産工場
電話三九一番

元山
韓泳奭

元山府南村洞
文化樂器店
電話七九七番

元山府海岸通六丁目
大洋商會
洪淳默

元山府海岸通六丁目
永和商會

元山府海岸通六丁目
韓興商會
電話四〇九番

元山府南村洞
東洋寫眞館
李基燦

元山驛前
元興旅館

元山府旭町二丁目
穀物貿易
徐相泰商店
電話一〇三七番

安邊培花面栗川里
金洪集

元山驛前
藥局
劉睦

元山府上洞
辯護士
宋寅台

元山
李周錫

元山肝油株式會社

私立廣德小學校

元山府海岸通一丁目
東盛商店

文坪

德源郡北城面事務所
職員一同

德源郡府內面於隱里
海星尋常小學校

德源北城
海星講習所

咸南文川郡明龜面□□里
韓善燦

文坪市
文命救世醫院長
李英漢

文川松田灣通明學院
院長
金昌勳

文坪市
北城公立尋常小學校

德源郡府內面豐村里
李始華

文坪市
設備完全
萬金食堂

文坪市
皆求利商店

文坪市
三和商會

磐石

磐石縣公署
縣長 姚祖訓
副縣長 深田袈裟吉

滿洲國奉吉線磐石驛前
穀物貿易
精米業
無砂米販賣
文化米
肥料農具
日光精米所
禹用俊
黃炳九
金禎贊
電話一二七番
林元模
金仁河
禹用學

磐石縣城驛前通
無名氏

磐石縣城東門外
磐石釀造場
電話一〇二番

磐石縣城小南門外
和洋雜貨
海陸物産
學生用品
各種膠皮
三星商會

磐石驛前
三養社 磐石農場
權東采
電話一一九番

磐石驛前通り
野田式ゴムロール
各種農具
製繩叺繩貿易業
興農商會
電話一二七番

吉林省磐石縣城內
高級洋服禮服
磐石洋服店

磐石縣呼蘭鎭村
義和精米所
朴在勳

磐石縣呼蘭鎭村
穀物貿易 精米業
吉興精米所

磐石縣呼蘭鎭村
吉昌精米所
鄭範鍾
申舜永

吉林省磐石縣學校組合
金永大
李政會

滿洲國奉吉線磐石驛前
穀物貿易 精米業
培英精米所
李顔善
兪錫崇

吉林省磐石縣城東門外
穀物貿易 精米業
昭和精米所

吉林省磐石縣城小南門外
布木雜貨
大昌商店

磐石縣煙筒山街
煙筒山街公所

吉林省磐石縣城東門外
磐石印刷社
金馨九
電話一二〇番

吉林省磐石縣城東門外
和洋雜貨 海陸物産
東興商會

吉林省磐石縣城小南門外
振興商會
孫振華
電話一〇六番

吉林省磐石縣城東門外
中央麵屋
電話六七番

磐石縣煙筒山街
布木 和洋雜貨
宣興支店
李□浚

磐石縣煙筒山街
布木 和洋雜貨
吉順商會

磐石縣煙筒山街
平和醫院
李丁運

吉林省磐石縣城小南門外
司法代書人
朴□植

吉林省磐石縣城東門外
金達澤

吉林省磐石縣城內
吉興商會
朴泰基

磐石縣呼蘭鎭村
布木 和洋雜貨 海陸物産
五和商店
金□□

梁山

梁山郡廳

佛刹大本山
通度寺

梁山郡下北面事務所
面長 安永高
外職員一同

梁山郡上北面事務所
面長 鄭國謨

梁山郡上北面石溪里
石溪酒造場
主 鄭彛奭

梁山面長
李世鍾

梁山金融組合

梁山郡下北面草山里
李瀚榮

梁山郡下北面□池里
面協議員
黃圻柱

梁山郡下北面白鹿里
面協議員
朴仲旲

梁山郡下北面
龍淵酒造場

勿禁產業組合

梁山郡上北面石溪里
安鍾石

梁山郡上北面石溪里
金千甲

梁山郡院洞面院里
裵彬

梁山郡熊上面三湖里
文致善

梁山郡熊上面長
宋錫武

梁山郡東面石山里
李東熙

梁山郡下北面芝山里
李奉祚

梁山郡下北面芝山里
金性玟

梁山郡下北面砂防事業所
安龍煥

梁山郡下北面□池里
無名氏

梁山郡勿禁面勿禁里
金性坤

梁山郡勿禁面勿禁里
朴壽鳳

梁山郡上北面石溪里
上北商店

梁山郡下北面□池里
喪中欠禮
金萬守

看東

中和郡看東市
穀物貿易
陸產商會
趙應達
崔宗學

和洋百貨
東光商會
趙永達

中和郡看東市

楊平邑內
楊平酒造株式會社
社長 崔錫俊
電話二〇番

京慶線楊平驛前
朝鮮料理
迎春館
主 權善洙
電話二五番

楊平邑內
穀物貿易 委託販賣
楊平精米所
主 崔錫俊

楊平邑內
水陸運送 穀物貿易 肥料石油 精米業
楊平商會
李丁煥
電話□番
振替京城二三六〇番

楊平邑內
綿布商 度量衡 教科書販賣
朴鴻緒商店
電話二八番
振替京城三三九八九番

京慶線楊平驛前
白飯、湯飯 비빔밥、떡국 冷麵、加里 溫麵
목노주점
中央屋
主 李命孫
電話一〇番

楊平郡青雲面龍頭里
龍頭酒造場
金景漢

楊平郡青雲面多大里
楊平金山
鑛主 任孝永
金今生

楊平郡雪岳面新川里
綢緞布木 和洋雜貨
美原百貨店
朝鮮、東亞、每日各新聞分局
新仲買人
趙哲熙

楊平邑內
穀物貿易 海陸物産
姜順庚商店
電話一五番

楊平郡
楊平面事務所職員一同
江上面事務所職員一同
玉泉面事務所職員一同
西宗面事務所職員一同
楊西面事務所職員一同
雪岳面事務所職員一同
丹月面事務所職員一同
青雲面事務所職員一同
楊東面事務所職員一同
砥堤面事務所職員一同
龍門面事務所職員一同

楊平郡楊東面石谷里
楊昌醸造場
主 李種承

楊平郡廳
職員一同

楊平邑內

雲田驛前
明月館

雲田驛前
料理業
梁秉友
電話一八番

雲田驛前
二合精米所

雲田驛前
三忍商會

金信稷

京義線雲田驛前
玄米業
信興商會

雲田驛前
永信旅館
電話一〇番

京義線雲田驛前
朝鮮運送株式會社代行店

雲田驛前
文道濟

雲田驛前
雜貨商
協同商會
電話一七番

雲田驛前
布木商
安允權

雲田驛前
布木商
朴昌洛

雲田驛前
永信商會
電話一九番

雲田驛前
玄米業
同仁商會
電話二〇番

廣島

各種和漢生藥 賣藥原料 粉末・剉切藥料 製造發賣元
藥種貿易問屋
高麗堂商會
裵炳麟
廣島市廣野橋電停東半丁
電話特長五七五一番
振替廣島一五三一九番

本籍 慶南昌寧郡大合面茅田里
現住所 廣島市南蟹屋町六八九
縣協和會指導員
張泰熙
電話八四五六番

朝鮮料理
朝鮮館
主 梁五錫
廣島市宇品町二丁目

廣島市宇品町十五丁目
朝鮮料理
京城館
主 李小順

吳市阿賀東濱町
銅鐵地金 ウエスト商 各種屑物
木本德太郎
主 李鍾旲

廣島市東觀音町二丁目二五一
廣島共興組合
組合長 金夢邱
副組合長 李鳳大
理事 成泰佑 鄭從在 鄭基潤 田壽龍 金秉國 李桂榮

廣島市楠木町一丁目
三篠昭和會
會長 周文洪

東洋宣教會
廣島聖潔教會
廣島市東觀音町一丁目

岩タク食堂
主 淺野金一郎
朝鮮會本部 會長 金允己
電話四五番

牛島夜學會
會長 金桂準
副會長 宋且出
住所 廣島市大須町

□町三二〇

廣島市橫川町一丁目一〇七八
古物問屋
金聖守商店

廣島市福島町五三番地
古物諸工業原料商
洪相燮商店
電話八〇二〇番

廣島市中廣町
古物問屋
姜萬伊商店

廣島市廣瀨北町一ノ一
朝鮮料理
秋月館
朴均成

慶尙南道陝川郡妙山面館基里
韓應民
住所 廣島市外船越町

廣島市皆實町二丁目
古物問屋
李石伊

廣島市東觀音町二丁目一五五
古物問屋
李正萬商店
松谷一郎

廣島市吉島町六七三ノ一
古物問屋
崔相甲

廣島市上天滿町四八六
化元堂漢藥房
曹成發

吳市眞賀仲田町一八ノ五
古物商
木下十吉

山口縣玖珂郡柳井町五本松新開裏
土木請負業
柳占祚
コト大原柳一

廣島市東觀音町二丁目一五〇
交易問屋
柴屋商店
朴□甲

廣島市西雲町四五八
古物商
成永文

廣島市福島町本通八五ノ三
各工業諸原料問屋
金斗彥商店

廣島市楠木町一丁目
小間物化粧品
上原商店
店主 朴且俊

廣島縣安藝郡船越町引地三七七
朝鮮布帛 海産物
韓璋錫商店

岩國町宮島屋前□□
料理
主 具季用
島田李一

廣島市中廣町九五五
姜得天
慶南固城

自轉車商
丁命岩
本店 廣島市□□
支店 廣島市尾長町二七七

廣島市皆實町二丁目
柳允金

廣島市船入本町一九五
酒類醬油乾魚物商
李成龍商店

朝鮮日報廣島販賣所
所長 都順權
主任 鄭鍾喆
都永約 權永準 金仁培 安尙洙

妙香山

寧邊郡妙香山普賢寺

元山府仲町二丁目三二 帽子專門 卸小賣商 マルビル帽子店 社長 □□ 電話一、二九八番 振替京城二七九九六番
分店 元山府南村洞一四一 マルビル帽子店 電話(マル文)八(マ)

元山府南村洞七四 東洋釀酒所 電話八一八番

元山府上洞一五〇 參茸唐草乾材貿易商 杞仙局 主 李奎三 電話一二四 振替京城二二一四九九番

安邊培花金融組合 組合長 韓炳稷

德源郡縣面地境里 穀物貿易 二興商會 主 李善洪

元山運送業組合

元山府南村洞 高等料理 錦雅園 電話 九九〇 五六四番

工業用材、油類、物品配給 三益商會 主 金永斗 元山府場村洞一三四 電話一〇一七番

元山府上里一洞 酒類醬油 罐詰菓子 三報本店 電話八二、六番 振替京城二六、一四七番

元山府榮町一八 滿春紹介所 主 全澤相 電話七六四番

元山公立學校職員會

元山府銘石洞 平安蕎麥精米所 洪鍾植 電話八二三番

安邊郡□□面後里 東奎

元山樓氏高等女學校

元山進誠尋常小學校 電話八二四番

元山府醫師會

元山再製鹽業組合

元山驛前町二丁目 三益商店 主 李□□

永興灣漁業組合

元山救世病院

元山府海岸通三丁目一番地 丸元穀物協會

元山府上里一洞 大東醫院 醫師 夫壬敎 電話一一六六番

元山府旭町二丁目 朴辰英商店 電話八六九番

元山□□ 儀昌旅舘 電話一一〇八番

元山驛前 金剛旅舘 電話九二三番

安邊郡□□面上□里 金利集

安邊郡培花面□□里 李鍾粲 李鍾得

□川 田夏富

元山고무同業會

元山府上里一洞 金鍾煥齒科醫院 電話六九八番

元山海星尋常小學校

元山商業株式會社

光明尋常小學校

明星尋常小學校

□□寺 元山布敎所

元山米穀商組合

元山魚仲買人組合

元山府北村洞 海陸貿易 委託賣買 明成泰 電話五六〇番

元山精米所 韓致恒

元山府海岸通六丁目 肥料穀物 元德商店 主 姜□顯 電話四九九番

元山府本町四丁目 金錫憲商店 電話九八〇番

元山驛前 鮮光洋品店 崔△用

元山驛前 大林洋品店 金慶埈

元山驛前 五福商店 電話一一八五番

元山府本町五丁目 德林運送店 電話二九二番

元山驛前 不二印刷所 主 李宪默

滿洲國奉吉線磐石驛前 穀物貿易 精米業 協盛公司 電話六八番
代表者 梁文彬 鄭海鵬 金鳳九 鄭鎭善
(吉林產業株式會社磐石出張所)

㊞ 磐石金融會
理事 崔圭康 梁壽馹 金逸淵 姜晴昱 文英烈 鄭恒善 崔洪 金禎會

滿洲國奉吉線磐石驛前 穀物貿易 精米業 同和精米所 電話三三番

磐石縣煙筒山街 穀物貿易、精米業、農具肥料 農務社 鄭學文 白洛順

滿洲帝國協和會磐石本部
本部長 姚祖訓
本部副長 深田袈裟吉
事務長 本田祥三
青訓指導員 青野武夫
外職員一同

磐石稅捐局
局長 景德全
副局長 宮下操
外職員一同

磐石街公所 職員一同

磐石警察署長 松本文兵衛

磐石電電局長 中村榮作

磐石驛長 後藤靜雄

吉林省磐石縣城小南門外 高級洋服 東亞洋服店 主 申養俊

吉林省磐石縣城小南門外 三和國民優級學校職員一同

磐石縣煙筒山街 三明國民優級學校職員一同

磐石縣呼蘭鎭村 三信國民優級學校職員一同

磐石驛前 朝鮮燒酒製造元 永興釀造場 電話一一番

磐石縣城小南門外 司法代書人 龍山旅舘 李起鍾 電話一五一番

吉林省磐石縣城內 公醫診療所 磐石醫院 電話六五番

吉林省磐石縣城小南門外 青山醫院 醫師 金鳳武 電話一一三番

磐石縣呼蘭鎭村 普仁醫院 醫師 李燦卿

磐石縣呼蘭鎭村 順天醫院 醫師 朴雲培

滿洲國吉林省磐石縣城大南門外 金源根

吉林省磐石縣城內 秋秉兆

磐石縣太平屯 太平農場 裵永惪

吉林省磐石縣城小南門外 司法代書人 李在鳳

磐石縣城小南門外 喫茶 洋酒 樂園カフエー 電話五六番

吉林省磐石縣城小南門外 晝夜撮影 協和寫眞舘 電話七八番

吉林省磐石縣城小南門外 農具販賣 三和商會

吉林省磐石縣城內 協和洋服店 電話一二四番

磐石縣煙筒山街 湖嶺釀造場 高允桔

磐石縣煙筒山街 半島寫眞舘 吳鳳祿

磐石縣煙筒山街 穀物貿易 精米業 平和商店

磐石縣煙筒山街 綢緞布木 海陸物產 大昌商會支店

磐石小南門外 布木雜貨 三浦商店 電話一〇七番

磐石警察署 李五翼

吉林省磐石縣城內 日、月鋪院 白禮錫

吉林省磐石縣城小南門外 磐石齒科醫院 李成培 電話一四〇番

磐石縣東門外 朝鮮料理 金剛園

吉林省磐石縣城東門外 朝鮮料理 同興食堂

吉林省磐石縣城內 平安旅舘 沈尙浩

吉林省磐石縣城小南門外 吉興旅舘 申榮龍

奉吉線煙筒山驛前 協信精米所 主 權五建

中和郡看東 □東合同自動車部 林鎭植 吳準植

中和郡看東 崔崙釀造場

中和郡看東 東善醫院 崔東鎬

中和郡看東市 天道敎會聯合會

中和郡看東市 和洋雜貨 石油 振興商會 金澤洙

看東面事務所 職員一同

精信精米所 金□九

看東消防組

趙東熙

看東郵便所長 鄭益煥

中和郡看東 司法書士 行政代書士 李玉璘

松下旅舘 松下ナル

中和郡看東市 平和醫院 李□□

中和郡看東市 綢緞布木商 新興商會 主 崔致賢

平壤江南商會代理店 永信自轉車店 主 車□□

中和郡看東 有志 李明呂

看東公立尋常小學校長 竹之內秀夫

烏山

京釜線烏山市場通 洋品百貨 徐点童商店

京釜線烏山市內 時計 眼鏡 蓄音器 修繕一切專門 附屬品 烏山時計商會 卓然春

京釜線烏山市場通 綢緞布木 永信商會 主 李定淳 金國鎭

京釜線烏山驛前市場通 綢緞布木 金五龍商店 電話一七番

京釜線烏山驛前 タイヤ ハッテイ ゼル ヤンマーデイーゼル 京烏鐵工所 主 朴根燮

京釜線烏山驛前 美容理髮舘

京釜線烏山市 普信堂時計店 主人 金在昌

京釜線烏山市場通 和洋中華料理 新京園 李弘圭

京釜線烏山驛前 日新裁縫所 主 韓順鳳

京釜線烏山驛前 三盛商會 主 崔煥福

京釜線烏山驛前 信興洋服店 張□□

楊平

楊平警察署 職員一同

楊平金融組合 職員一同

楊平邑內 京春鐵道株式會社 趙鏞瑗

京畿道楊平邑內 楊平トラック運送部
穀物肥料精米 食鹽木材柴炭 委託賣買貿易 卸賣貸切 貨物水陸運送
㊉ 廣盛商會 高會辰 電話一四番
支店 京城府禮智町三〇四 電光三二〇九番

楊平西公立尋常小學校 職員一同

京城地方專賣局 楊平販賣所

京畿道楊平郡邑內 專賣品賣捌 中央堂藥房 主 趙炳虎

京畿道楊平邑 公醫 愼誠醫院 尹金龍 電話三〇番

楊平郡邑內 逢春舘 金連洙 電話一七番

楊平寫眞舘

穀物貿易 肥料 石油 和洋雜貨 楊平和信商會 電話一八番

楊平邑內 材木 薪炭 丸二商會 鈴木彰吾郞 電話一九番

楊平郡□□面 新豊釀造場

洪川郡北面 京城三韓商會製材所出張所長 兪明根

清平川 金融組合新川支所 職員一同

004351

濟衆醫院 分院(多文里 楊平里) 公醫 金玉千

馬龍金融組合 職員一同

龍頭金融組合 職員一同

兩水金融組合 職員一同

東拓楊平林業所 職員一同

京畿道楊平郡楊東面石谷里 勝呂組出張所

楊平邑內 中央 □□ 鴻春舘 電話一六番

楊平邑內 金物商 河大來

楊平邑內 淸岡齒科醫院

楊平郵便所長

龍頭郵便所長

楊平郡□□面新□里 李學來

楊平郡西宗面汶湖里 眞野茂一

兩水郵便所長 元勳常

楊平郡西宗面水入里 李中世

京畿道楊平郡西宗面水入里七〇三 米穀 布木 雜貨 漢南商會 主 南泰熙

京畿道楊平郡龍門面多文里 鐵道醫務室

雲田

三合精米所 雲田支店 電話五番

京義線雲田驛前 穀物貿易 玄米製造 肥料收買 委託販賣 雲南商會 電話八番

京義線雲田驛前 同成精米所 電話(二六番)

定州郡大田面雲田洞 白亮濟 電話二二番

京義線雲田驛前 淸雲商會 電話二九番

京義線雲田驛前 玄米製造 平雲商會

雲田驛前 雲浦麵店 電話一一番

雲田驛前 醫師 醫院 金秉傑 電話三三番

穀物貿易 釀酒收買 義信商會 電話一七

雲田驛前 同仁水利組合 電話七番

雲田 雲田郵便所

雲田驛前雲山洞 信用組合精米所 電話一二番

雲田驛前 大田面事務所 電話四番

□□ 吉東石

廣島市十日市町十三丁目 古物商 古物買入 金同介

吳市阿賀町入舟正門前 古物商 崔相圭

吳市海岸通七丁目三五 古物商 金子一郞 電話二七八六番

廣島市福島町九〇ノ一六 モス毛絲 古着商 洋服類 田壽龍商店 電話五三八二番

廣島市南三篠町一二七六 清物商 朴鍾泰

岩國町驛前 古物商 李德周

土木請負業 吉川事務所

廣島市福島町 綢緞布木海陸物產卸商 朴五允商店 廣島市南三篠町一三五八 (福島町本通) 振替口座廣島一六九二〇番

廣島市福島町 綢緞布木海陸物產卸商 李贊五商店 電話五三八三番 振替廣島一七六二二番

岩國町材木町 朝鮮料理 密陽舘 主 李命倫事 松田新吉

廣島市宇品町鶴池三九 勞力供給請負業 田中組 主 方根鎭

廣島縣賀茂郡西條町 松山一郞事 裵板祚

廣島市宇品町三丁目 朴夢守

岩國町錦見驛前 貨物自動車部 主 李在春事 岩城信夫

廣島市宇品町十丁目一六二 全光月

朝鮮料理 大同舘 主 鄭泯喆 山口縣岩國町錦見

鴻羽堂漢藥房 主 白鴻基 廣島縣吳市綠本通十三丁目十三

淸泉堂漢藥房 主 金善弘 廣島市福島町西通り

弘濟堂大藥房 主 李弘濟 廣島市北榮町三三九

泰川郡陽和寺
住持 崔仁昊
會計 朴致善
書記 金炳善
山監 金龍大
外職員一同

滿浦線妙香山驛前 運送業 朝鮮運送株式會社妙香山代行營業所
㊂ 丸三商會妙香山支店 雜穀物、海產物、木材商 本店滿浦線院里驛

熙川郡熙川面邑下洞 土木建築請負業 嚴永道

妙香山驛前 丸藤運送部

妙香山驛前 泰安旅舘 申泰益

滿浦線妙香山驛前 普通學校長 裵晉英 外敎員一同

寧邊郡泰山寶賢寺 佛敎專門講院 講師 金文玉 講友會一同

本末寺評議員 寧邊郡龍山面龍門寺 金瑨晟

滿浦線妙香山驛前 三益社妙香山出張所

本末寺評議員 義州郡□□寺 張性俊

所長 李重鉉

本末寺評議員 定州郡玉泉面開元寺 李膺璉

滿浦線妙香山郵便所 所長 張相牛

大本山妙香山寶賢寺 明月堂房主 安德演

本末寺評議員 熙川郡眞面寺有山林事業所 朴達容

定州郡高安面深源寺 住持 金瑀鎭

价川郡朝陽面 改良炭專門 吉贇伯

寧邊郡妙香山寶賢寺 記念品販賣 共榮商會 主 □□

新義州府梅枝町佛敎堂 布敎師 金月峰

寧邊郡泰平面舘下洞 泰熙鑛山

滿浦線妙香山驛前 有志 金孝炳

滿浦線妙香山驛前 康龍田

興德

全北興德釀造組合

高敞郡富安面中興里 朴炎燁

全北興德 朴昌鎭

全北興德 金龍載

全北興德 滿福旅舘 主 朴元哲

全北興德 松島支店 吉田稔

全北興德 朴長根

全北興德 權聖夏

全北興德 沈甲植

全北興德 洋服店 興一 主 朴南哲

興德郵便所長 淺野喜八郞

全北興德 興德面事務所 職員一同

星內面事務所 職員一同

新林面事務所 職員一同

富安面事務所 職員一同

全北興德金融組合 寺崎直枝

高敞郡星內面新大里 金大鉉

興德面後浦里 後浦釀造所

高敞郡富安面□山里 李鑄淵

치위에지지않게하고
호흡기병과감기를예방하여주는
三千里江山방방곡곡에서 대환영을
받고잇는口中殺菌劑 衛生口錠「가오ー루」는
여러분의건강을 늘 보호하여주는약
인고로 올치위에도 지지않게하여주
며 감기와인후병을 예방하여주어서
이重大한時局에맛당한 生活戰線의
튼튼한勇士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므로
음식물을자신후 출입하실때
사람모힌곳에게실때 일에실
이나거나 또는 피곤하실때
늘 가오ー루를 두세알식복용하여
주시면 心身의各機能의 活動力이
다시금회복되고 몸튼튼하게 올치위
를 무사히보내실수잇게하여줍니다
입으로 들어오는병을막고 정신을상쾌케하는
口中殺菌劑
衛生口錠
가오ー루
AROMATIC CACHOUS
KAOL
TRADE MARK
THROAT EASE AND BREATH PERFUME
INVALUABLE TO SINGERS AND SPEAKERS
定價와容量
袋入(十錢)百粒
同(二十錢)二百五十粒
携帶用防濕罐入(廿五錢)三百粒
懷中用容器付(三十錢)三百粒
御勾玉形容器付(五十錢)五百粒
鞠形容器付(五十錢)五百粒
美術容器付(五十錢)五百粒
保健容器付(五十錢)五百粒
藥用瓶入(五十錢)八百粒
同(一圓)二千二百粒
피곤하실때
출입하실때
사람모힌곳에게실때
음식을잡수신후
本舖
東京市日本橋區水天宮前
株式會社 安藤井筒堂藥品部

朝鮮日報 新年號 其七

全州

全州府會議員 辯護士 金鍾根

設計監督 施工製圖 建築相談 全州府大和町（消防組前） 金興培建築事務所 主 金興培

全州府大和町（全州橋通） 上海寫眞館 主 金完洙

全州大和郡 樂園 電話五三九番

全州府廳

朝鮮全州府 三共精米所 印昌燮

全州府清水町 李春華

全州府本町三丁目 朝鮮藥業株式會社 社長 殷春基 專務 崔彰永 支配人 文義根

益山郡金馬市 宋炳寀

六番タクシー

大本山威鳳寺 主持 柳在煥

全州府高砂町 圖書印刷 文房具商 完一堂書店 南鮮印刷所 主 徐宇容 電話五四六番

全州（道廳前） 紳士洋服調進 三洋テイラー 電話三三六番

全州産業組合 組合長 姜完善 理事 鄭台亮

全州曙町 全一商會 宋宗燮 電話一四二番

全州府大正町 東亞婦人商會全州支店 電話三五六番

朝鮮全州府大和町 榮和自轉車商店

全州七曜會

全州高砂町 カフエー オリエンタル

全州券番 朴錦花

全州券番 金玉珠

全州券番 丁遊化

全州券番 金紅蓮

完州郡廳

全州府會議員 全州商工議員 宋柱祥

全州商工議員 張炳善

全州商工會頭 大木良作

全州府會議員 金昌熙

全州 柳永昌

三南自動車商會 全州府會議員 全州商工議員 高瀨七藏 電話五一一番

全州税務署內 全州藥酒燒酎酒造組合

全州曙町一八九 米穀精米 五共商會 主 金昌琓

全州多佳町 朴榮鎬

全羅北道立全州醫院 全醫職員會

私立崇德學校

全州大和町 私立海星尋常小學校

共和自動車運輸株式會社

金融組合聯合會 全北支部

全州警察署 土曜會

全州地方專賣局長 景山宜景

全州府大和町南門通 全州齒科醫院 尹麒炳

全州府南門內 鴨江材 鮮木材 南洋材 全一材木店 電話二三番

全州府南門內 大興紙物舖

全州府曙町 全北麵子株式會社

外科 産婦人科 花柳病科 華城醫院 院長 洪在吉 電話八番

完州郡所陽面黃雲里 東陽産業組合 組合長 柳汝亨 理事 李鳳鎬

全州穀物商組合

全州大和町二九八 海産物委托販賣 梁聖基 電話五三二番

全州券番 電話二二八番

全州府多佳町一二三 太平生命全州支部 電三六九番 新泰仁驛前 新泰仁出張所 電一一八番

全州府八達町二六 建築ペンキ塗 諸美術看板 開拓社 主 尹德重

全州府高砂五八番地 昭興洋家具店 趙昊誠 電話二〇三番

全州本町 松波寫眞館 電話七三二番

全州本町 百合寫眞館

全州府大正町六丁目 米穀精米 金甲善商店

全州府本町一丁目 和洋金物 長州風釜 平壤板 硝子鍋瓶 磁器部 山大金物店 電三〇六

全州大和町 高等美容院 一昌軒 主 朴鶴鎭

全州府清水町二七七 フミヤ 一三八洗布所 責任調達 技術本位 機械洗濯 クリニング

全州大和町（南門下） 南一館

全州府高砂町 長春館 電話六二七番

全州高砂町 新德旅館 電話四五八番

全州商工會議所

全州師範學校

全農職員一同

全州初等學校職員會

全北公立高等女學校 全州公立高等女學校

上關面長 吳治元

全州府清水町 權彝元

全州醫師會

完州郡鳳東面 金恩俊

全州清水町 眞言寺主持 李法準

全北全州南門通 全一帽子店 全奇洪

完州郡伊西面龍渚里 張奉吉

全州市場內 材木都賣散賣 吳成根材木店

完州郡伊西面金坪里 鄭鎭喆

全州鮮人旅館組合

全州高砂町 豊城旅館 電話三六一番

全州遊廓組合

全州北中學校

全州府老松町 柳眞錫

全州郵便局前 松堂印刷 主 金容朴

全北全州驛前 全州サービス

全州八達町 李朋來

新溪 賀正

新溪邑內 三井物産株式會社 サクラ麥酒株式會社 特約店 酒類卸商 蕎米多量出産 德永商會 德永木蓄精米所 申元龍

新溪邑內 新溪南當市 自動車乘合營業 兄弟自動車新溪本部 主 鄭龍燮

新溪邑內 穀物 食糧 製粉 精米 製麵 打綿 新溪精米所 主 李彰容

新溪邑內 和洋家具 中島自動製粉機販賣 一切 時代家具社

新溪農機商會 主 吳壹善

新溪邑內 官許各種賣藥 有名賣藥製造 合會 都散賣 東濟藥房 鄭奎謨 振替京城二四九六五番

新溪邑內 各種蓄音器及レコード販賣 新溪樂器店 主 李容德

新溪邑內 合名會社 穀物貿易 貨物運送 肥料 新溪貿易社 職員一同

片倉生命保險株式會社平康支社新溪出張所 所長 康斗公

新溪面長 趙重髙

新溪郡多栗面 職員一同

新溪邑內 和洋雜貨 共信商店 康斗仁

新溪郡多美面歌舞里 美水鑛山

新溪郡 職員一同

新溪郡 村面長 閔元基

新溪郡沙芝面 職員一同

新溪郡 多美面長 李達學

新溪郡 古面長 金允河

新溪郡 麻西面長 朴漢雋

新溪郡赤余面 職員一同

新溪郵便所

新溪邑內 趙重傑

新溪邑內 鶴巣旅館 主 吉川稔

新溪郡沙芝面石橋里 廣濟醫院 院長 元昌仲

遮湖

咸鏡線遮湖驛 利興釀造株式會社

朝鮮運送株式會社遮湖營業所 主任 寺内駒三郎

咸南遮湖 牡丹屋 主 金洪珠 雇用者 金順子 朴仁順 閔泰順

咸南遮湖 水産業 李秉綱

咸南遮湖港 咸南倉庫株式會社 遮湖出張所

咸鏡線遮湖驛前 李有甲

咸鏡線遮湖驛前 李柱禎

櫻屋食堂

新溪郡沙芝面南當市 天一釀造場 主 金敬泰

新溪邑內 南浦寫眞館 主 金鼎成

新溪邑內 新英自轉車店 金業濬

新溪邑內 降仙館

新溪邑內 永春館

新溪邑內 料理 賞春園

新溪 元泰有

新溪邑內 東濟醫院 院長 金濟善

新溪邑內 新昌旅館 主 韓昌錫

新溪邑內 崔永鎭金物店

新溪邑內 韓錦善商店

新溪邑內 新溪齒科病院

新溪郡沙芝面南當市 鄭子龍

新溪郡古新恩市 和洋雜貨 新英商店

新溪郡古新恩市 新恩釀造場

咸南遮湖 鰮油肥同業組合

咸鏡線遮湖驛前 雇傭紹介所 張南極

咸鏡線遮湖驛前 公醫 韓秉萬

咸鏡線遮湖驛前 崔極連

咸南遮湖 李成甲

遮湖港 かもめ 野上芳太郎

遮湖漁業組合

遮湖驛前 パレース カフエー

咸鏡線遮湖驛前 鰮油肥製造業 金漢雄

咸鏡線遮湖驛前 李長根

咸鏡線遮湖驛前 海産物委托販賣 金學經 電話一四番

利原郡南面事務所 職員一同

咸鏡線遮湖港 金啓允

朝鮮咸南遮湖港 和洋菓子製造販賣 酒類各種 食料雜貨 富士屋本店 電話三六番 振替京城六一四九番

咸南利原郡南面遮湖港 海産物貿易 李慶甲

咸南遮湖港 鰮油肥製造業 張甲植

咸南遮湖港 遮湖産業株式會社 電話五二番

咸南遮湖港 雜貨商 德元商店 電話一三番 振替京城一九〇九六

咸鏡線遮湖驛前 金龍溢

咸南遮湖港 遮湖公立尋常小學校 職員一同

代書業 金泰奎

咸鏡線遮湖驛前 カフエ銀湖

金相兌醫院

咸南遮湖港 魯熙均

咸南遮湖港 永豊商會

㊟運送部 代表者 全根植

咸鏡線遮湖港 中央理髮館 主 韓仁壽

遮湖港 高等理髮館

咸南遮湖港 遮湖森林保護組合

水原

水原郡廳

水原郡農會

朝鮮京東鐵道株式會社 取締役社長 小林幹三 專務取締役 內藤眞治

水原邑

水原警察署 署長 黑沼力彌

水原邑宮町 國武農場

南北棉業株式會社 西島倉市

水原醫師會

水原邑迎華町一二四 水原燐寸會社 電話一一六番

水原驛前 農林 農具 肥料 株式會社 萬種園 振替京城四八八四番 電話二一〇番三七六番

朝鮮麵子株式會社 水原支店

水原邑梅香町 海東精米所 崔永髙 電話二一九番

水原邑細川町十三番地 京城電氣株式會社水原支店 支店長 島谷禮一

水原邑高等町 金德秀 電話一四四番 二五四番

水原驛前 穀物貿易 委託販賣 振興社 金德秀 電話三五四番

水原邑本町 水原釀造株式會社 電話二二四番

水原郡農會指定買入所 朝鮮水原 製繩販賣 三共興業株式會社 電話長三一三

銘酒 華虹鶴（カコウツル） 釀造元 水原酒造株式會社 社長 趙仁行

水原飲食店組合 組合長 金長龍 電話三一八番

水原邑梅山町 水原朝鮮酒 酒造組合

水仁線古索驛前 水仁釀造場 朴健裕 金敎益

水原驛前 朝鮮運送株式會社 水原出張所 所長 寺澤拾三郎

細柳町 印牧美雄

水原邑大坪町 水原 寺澤拾三郎 窯業 朴健裕

水原郡安龍面古索里 丸朴商會 朴健裕

水原邑大坪町 ☑精米所 寺澤拾三郎

水原驛前 水原穀物協會

朝鮮水原邑本町四丁目 運動具 書籍 水鄕堂 電話三五六番 振替京城一〇七九六番

水原邑驛路港 八達洋服店 主 林昌根

水原邑梅山町三丁目 米穀 砂糖 都賣商 洪佐燮 電話三六一

水原邑本町四丁目三三 華城興産株式會社 電話三〇〇番

京仁トラック株式會社 水原營業所

水原邑驛路 和洋菓子 食料品 百味堂 電話三一四番

水原邑 梁奎龍

京釜線水原邑市場通 雜貨都散賣商 永德商店 電話二一〇番

梅香女子小學校 校長 金泳來

京釜線水原驛前 穀肥商 京東商會 電話五八番

水原邑梅山町 大豊精米所 主 金德興

水原驛前 李成大

㊂水原荷主運輸組 朴勝根

水原驛前 穀物商 三榮商會 電話三七〇番 劉泰元

御料理仕出し 壽司 友月 電話一四一番

京釜線水原邑池野町 穀物貿易商 東一商會 電話一六四

水原邑本町 李容勳

水原驛前 水原八達繩叺組合 電話一六一番 李敦弘

水原驛前 光美理髮館 洪潤植

水原燐寸會社 小賣配給所 孫玉同

水原邑 華城券番 電話三三九番

水原邑 白花園 電話一六一番

水原郡發安市 美化洋服店 主 金鎭哲

水原郡雨汀面 朝鮮日報三槐分局 分局長 金濬斗

朝鮮日報水原支局 支分局員一同

造岳

造岳市 朴宗春

造岳郵便所 金贊奎

大興材木店 白明星

文學建設

出席人員＝金尙鎔·鄭芝溶·崔載瑞·林和·安懷南

三十年의 歷史를가진 現代朝鮮文學이 해마다 그年輪을 더해가는데따라 우리는 그러나 우리가 夙夜로애쓰는바는 우리文學으로하여금 다만이러한 自然的成長에만 한巨木을 새로이 要定하지아니하면 안될것이다。 그래서 現代우리文學이 부닷치잇가 새해의 新年에中心課題는 무엇일것인가 詩復興은 어떠케해야할것인가 作家의最 學의當面한 가장重要한일이라고 아니할수업는것이다。 그래서現在우리文學에서中堅으로 [illegible]의內容이다 이로서 걸리는몰라도 今年一年의 우리文學이나아갈길은 指示되엿

林和 내가 그동안 몃개쓰는小說이란 말하자면 小說一般論입니다. 그래서 長篇小說과 短篇小說을 形式的으로도 考察도해보고 또 一般朝鮮小說의 여러가지 現象을 되도록은 잘 理解해서 朝鮮小說의 갈길이란든지 또는 將來를 되도록은 透視해보려고 한것입니다 그런데 朝鮮서 作品이 批評의 相對로 되는것은 더만히 長篇小說이 되여야 하겟는데 長篇小說의 改造에關해서 만히關心하신 金南天氏께서 말씀을해주시지요.

金南天 그런데 長篇小說論이問題된것은 대체 作家들이 短

까 우리 長篇小說의 發達이 新聞小說과는 어떠한 關係를 갓는것일까 이것을 알고저한것입니다. 그런데 林和氏의世態小說을 보면 現在朝鮮長篇小說은 모두 世態만 그리고 性格과 環境의 統一이 업스니 여기에서 現代長篇小說은 十九世紀長篇小說로 도라가야 하겟다는 見解인모양인데 그것은 반드시 그러치안흐리라고 생각합니다

가령 現代長篇을 보드래도 조이스라던지 헉스레이라던지 지-드가튼사람은 모두 十九世紀의 長篇小說形式에 反動해서 새로운 小說形式을 樹立

고 드러가지아니하면안될줄압니다.

林和 그런데 長篇小說論은 실상 作家의對象이되는것보다는 批評家의 對象이되여야할줄압니다. 나는 小說論을 쓸때 반드시 長篇小說論에 이야기가맛치르고 豫期한것은아니고 첫재 經路로말하면 그전파가티 作品論으로 써온것이 드러가보니 自然히 長篇小說로 드러간것인데 長篇小說은 가령 朴泰遠氏의『川邊風景』을 보드라도 世態描寫와 계는업는데 이것이 內省的인 小說과 비겨본다면 相反한矛盾이잇는것갓습니다 詩나 小

햇스면 그것은 그대로 조흔 長篇小說이되지안흘까요.

林和 朝鮮서의 世態小說의成果는 作家들의 世態描寫의能力을 成長시킨것이겟지요 그러나 問題는 描寫만이아니고 描寫를 의이지아니하면 안될줄압니다. 대개 理想主義小說이 性格中心인데 가령 春園의 小說을 보드래도 그것은 確實히 性格中心의 小說들입니다.

安懷南 最近長篇小說論은 興味를 作家가 가진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네가 쓰는小說과는 어떠한 關係가잇습니까

林和 事實 이때까지 小說論이라면 短篇小說이지 長篇小說論이야 어디잇섯나요. 그리고 春園의『無情』에서 廉想涉氏의『萬歲前』가튼것도 問題를 삼지안햇지요

崔載瑞 그小說들은 어디發表되엿나요.

林和 新聞에 發表되엿지만그때는 新聞이 오늘날과가티 쩌-나리즘化하지안코 더만히 啓蒙的이엿든만큼 小說도 오늘날과가튼 新聞小說과갓지는 안햇지요

李源朝 그런데 아까 金南天氏가 오늘날 長篇小說이 問題되는것은 一般作家들이 短篇小說에 不滿을 늣기면서 長篇小說에對한 希求와 熱望이 어러나는데 따라 問題된것이라고하엿는데 [illegible] 그러케

長篇小說 ◇純粹小說과

林 和

學論 新聞小說等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世態小說論은 지금 新聞小說이 文章보담도스토리의興味만 노리는데 不滿을가서 좀더 創造的으로가자는것이고 心理小說論은 主로 歐羅巴의 새手法을 배워 人間의 內面生活을 探求하려는것이고 綜合文學論은 白鐵氏의 主張과가티 大로망建設을 主張하는것이고 新聞小說論은 李源朝氏가 分析하기를 新聞小說이라고 반드시 낫븐것이아니라 그것도 手法에따라서는 相當한 文學的效果를 나타낼수잇다고하는것인데 이러한 모든 主張을 綜合해보다면 結局은 現在 新聞小說에 對한 不滿에서 나오는것인줄압니다

白鐵 新聞小說이거나 長篇小說이거나를 勿論하고 現代小說에잇서서 性格을 創造한다는것은 不可能한일인줄압니다 現代란 時代가 벌써 性格이 업시 그저 생각하는時代이니까 長篇小說에서 性格을 創造할수는업슬줄압니다 그저世態小說이나 그러치안흐면 心理小說밧게업슬줄압니다 金南天氏의 自己告發文學이 失敗한것도 世態속에서 性格을創

는 解決안될줄압니다。 사실에 잇서서 朝鮮서의 長篇小說이라면 發表機關이 新聞雜誌박게업스니 그러한 發表機關에 發表되는 長篇小說이란 新聞小說的인 手法에 制約되지안흘수가업습니다。 그러나 요지음 누구나 다 指摘한바와가티 新聞小說로서의 興味도업고 그러타고해서 本格的인 長篇小說로서의 巨大한 구격도채우지못하는것은 結局 作家들이 이쪽에도 加擔하지못하고 저쪽에도 加擔하지못한 때문에 그러한 중간치기가 되지안는가합니다 그러니 現代作家의 長篇小說의直接關心의對象은新聞小說이아닐수업겟지요

金珖燮 事實 그럿습니다 長篇小說論이 理論的으로는 노픈데 올라가잇지마는 現實的으로는 新聞小說의 通俗性을어떠케 解決하나하는데잇습니다

李源朝 그러므로 제생각에는멀지안흔 將來에 新聞小說作家와 純粹小說作家가 判然히區分되리라고봅니다

林和 通俗性으로 말한다면 金末峰氏를 따를수가업지요 그런데 作家들이 事純粹 事通俗에 억매여서 이도 저도아닌것이 現代新聞小說이지요

金起林 昨年度에 心理小說的傾向을 가진作者가 잇다고한분이게신데 그럿분은누구입니까

崔載瑞 뭐 崔明翊氏가잇지요

白鐵 그리고 李箱이도잇지요

李源朝 林和氏는 金南天氏도 李箱의 作品파가티치는모양이나 金南天氏作品을 內省的이라고할수는잇서도 心理的이라고할수는업슬것갓습니다

崔載瑞 그러면 作家들이 新聞 [illegible]

詩論의貧困에對하야

─詩의非大衆性과叙事詩─

金尙鎔氏主導

金尙鎔 詩論의 貧困에 對해서 말씀을 무러달라시는것이나 제가 말하고시픈것은 詩論만이 아닙니다. 詩論을 이야기하는 同時에 詩까지 兼해서 말씀해보겟습니다. 다시말하면 詩論의 貧困이란는것은 詩의 貧困을말하는것이며 그와同時에 詩論과 詩의 貧困은 何必 어제 그저께에생긴일이 아니라 쩌-나리즘이 文學을 利用하는날부터 詩는 孤獨해젓습니다. 아까도 小說이야기를하실때 小說의 通俗性과 純粹性이 問題되엿지마는 詩라는것은 運命的으로 大衆과는 融和할수업습니다. 그러니까 詩는 점점 孤獨해지지요. 그리고 昨年만하드래도 우리 出版界를 도라본다면 決코 詩가 貧困햇다고 할수는업습니다 勿論 出版物中에는 小說도 잇섯지마는 그것보담도中堅과 新進을 겸처서 詩集出版이 만햇습니다. 그러나 詩集으로서는 만히 나오면 新聞이나 雜誌에 發表된 詩는 얼마되지안습니다.

崔載瑞 그건 新聞 雜誌에서 안쓰이는 때문이아닙니까 (一同笑)

金尙鎔 글세 안쓰엿다는것도 理由가되겟지마는 그보담도 詩가 원원이 非大衆이니까 어느意味에잇서서는 詩論이란不必要한것이기도 합니다. 가령 小說가튼것은 大衆을 相對로하니까 무슨 風潮란든지 環境이란든지하는것이 변하는대로 一般大衆의 關心이 그리로 쏠리게되니까 評論은 그러한 一般關心事인 小說論만을 쓰게되지 大衆이 關心하지안는詩論을쓸리이잇습니까.

金珖燮 나는 이비슷한 問題를 다른데 약간 쓰기도햇습니다마는 이것은 林和氏에게좀무러보고십습니다. 林和氏로말하면 詩人인데 詩人이면서 小說에대해서 만히쓰고 何如間 關心을 더 만히가지면 詩論에對해서 좀더 쓸것을 쓰지안흐시니 그것은 웬까닭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詩人들의詩의運命에對해서그것을 超克하려는 藝術가업거나 또는 現詩壇에 가령 어떠한 조치못한 傾向이잇드래도 그것을 撓正한다든지할 能力이 업는때문에 詩論이 貧困하지안습니까.

林和 그러면 내가 말을해야하겟군요. 그런데 적어도 내 經驗에依하면 지금 詩人들이 詩의 運命에 對해서 그것을 超克할만한 自信이업다거나그래서 詩論이 不振한다고는보지안습니다. 그것보담은 詩와 小說을 比較해보면 小說은問題를 提供하는 意圖가 詩에 比해서 훨신 더 넓고 큽니다. 더구나 長篇小說이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問題를 全幅的으로 提供하는 小說을 자연 만히 이야기하게되고 詩는 자연 뒤로 밀리게됩니다. 그래서 評論도 小說에關한것을 만히쓰게되는同時에詩論에對해서는等閑하게되지요.

金南天 그런데 金珖燮氏글을읽어보면 批評家가 文學을 이야기할때는 詩를 더만히 이야기해야한다고햇는데 그러케되면 다가튼詩人으로서 林和氏와 金珖燮氏는 意見이 서로 다른데 그點을 어떠케생각하십니까?

金珖燮 아까 金尙鎔氏도 말씀하섯지마는 詩가 非大衆인것만은 事實입니다. 그리고 小說은 만드는것이니까 理論이 必要하지마는 詩는 만드지안는것이니까 理論이 必要하지안치요.

金起林 제생각에는 詩學과 詩批評이 다 다른줄압니다. 詩學이라면 詩의科學이겟고 詩論이라면 詩의 作品批評일게고 詩評이라면 詩의 價値論이아니겟습니까 그러타면詩人은 누구나 다各各 自己의 詩學을 가지고잇슬줄압니다. 그러면도 詩論이 나오지안는것은 무슨때문일까 하는것을 한번 생각해볼 必要가 잇슬줄압니다. 그런데 詩論은 누구나 한번 自己의詩를 分析한다면 그때부터 詩論이 시작된다고 볼수잇습니다. 다시말하면 自己詩의 表現形式과 表現意欲의 마찰이생길때 一種의 創作的苦悶이생기는것이 이創作的苦悶을 告白하는것이 詩論인데 現代朝鮮詩壇을 쓰-지안는다는것 結局 詩人이 自己詩에對한 아무런 苦悶이업는때문이아닙니까.

鄭芝溶 詩論의 貧困에對해서는 여러분이 다 만히말씀하섯는데 하필 詩論뿐아니라 詩學도잇고 詩話도잇고 詩法도잇고할것입니다. 그런데 詩란는것은 첫재 不必要한 사설을 물립니다. 그러므로 詩를 쓸을쓸록 조라는말도잇고 쓸데업는사설을하는詩는 목아지를 잘러버리라는말도잇스니 詩가 이처럼 簡單하고 單純한것이라면 詩論인들 왜 쓸대업는 잔소리를해서야쓰겟습니까. 그러므로 詩論이 饒舌的인 講演이되여서는안될줄압니다. 다만 詩는 제自身이 饒舌을못하니까 그대신 詩論이잇슬수잇는데 그러므로 호라시우스의詩學가튼것은 千古不滅의聖典이라고합니다. 그러나 詩論을가추는것도 조치마는 그러치안허도 無妨할줄압니다.

作家의乖離

─批評家와─

金南天氏主導

金南天 批評家와作家의 乖離는 아까 長篇小說論을 이야기할때 金起林氏가 모-파상의 小說論中에서 作家와 批評家의 不睦이란 事實도 引用하셧지마는 나는 이批評家와 作家의 乖離라는것을 두가지 側面으로보앗스면 합니다. 한가지는 評論家의 理論과 作家의 作品이 乖離되지는것이고 다른하나는 作家自身이 한개의 創作理論을主張하엿슬때 그主張이 自己作品에 實現되게 또는 完全히 나타나지못한 境遇를 批評과 創作의乖離라고할수잇습니다. 그래서 어떠한乖離를어떠케해야 統一할수잇슬까를 생각해보앗습니다. 그런데 지금 評論家들이 대체로말하는 一般論을 作家가 作品化하지못한것이 評論과 創作의乖離라면 評論家들은 그一般論을 一般論에만 끄치지말고 좀더 作品論으로 쓰는同時에作家들도 評論家의 一般論을 그냥 馬耳東風格으로만 흘러버릴것이 아니라 좀더 自己作品에 그러한一般論을 되도록은 만히 具體的으로 作品化하는것이 조흘것이고作家가 自己主張을 作品化하는것은 勿論 表現力의 問題도잇겟지마는 作家들이 더 노피 現代的思想을 主體化해야될줄압니다.

崔載瑞 그러면 批評家와 作家는 運命的으로 乖離된다할수잇슴니까

金南天 아니지요 언제 말한바와가티 批評家의 一般論과作家의 作品化가 서로 遊離되고 作家自身으로도 제思想을 더 主體化하는데 따라서 그러한 乖離가 統一되리라는 말이지요.

崔載瑞 그런데 그것은 批評家와作家와의關係나 또는 作家自身의問題로서나 結局은 마찬가지인데 내생각 가태서는 그것이 서로 乖離되는것이 도리어 安當할것가튼데 가령 現實과 理想가튼例를 보드라도 우리네 現實과 理想은 늘 乖離되는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批評家와 作家사이에무슨 惡意가 잇서서 乖離된다면 그것은 못쓸일이지마는 그사이에 善意만잇다면 그距離는 멀수록 조흘것이 아닐까요.

金南天 그러나 批評家가 知性이 敎養이니하는것을 너무 노피 論議해노흐면 作家들이 그것을 도리어보지못하는것이아닙니까.

崔載瑞 그러나 元來批評이란는것은 明日의일이고 作品이란는것은 오늘의 일이니까 떠러지는것이 어쩌는수업는일이지요.

白鐵 나도 亦是 그러케생각합니다. 批評이란 본래 文明的이니까 이러한 文明批評을 곳作家가 消化하기는 不可能한일이지요 그러니까 批評은 압서고 作品은 뒤서지요.

安懷南 批評의歷史가 길어지면 作家의 不滿도 적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金尙鎔 그런데 作家들이대체로批評家에게 敵意를 얼마나가집니까.

白鐵 그야알 수업지요.

金尙鎔 아주無關心한것이아닙니까.

金南天 아주無關心하거나無視하는것은아닙니다.

金尙鎔 그러나 그것은自己作品에對한 批評이어떠나하는程度로 關心하는것이지 무어創作態度에까지는 影響되지안흘것이요.

崔載瑞 作品의 指示하는 코-쓰에 바로서서 바로目標만 가르켜준다면 반드시 그릇치는안흘것입니다.

金尙鎔 그런데 한作品을가지고서 어떠분은 이러라고 조케말하고 또어떠분은 아주 왕청되게말하는것은 어쩌된일입니까.

金珖燮 그야 批評家의눈이 다 다르니 그럿치요그러한例야世界的으로 더잇는것이아닙니까 엇쨋든 어하나만가지고 別問論爭이 다만호니까요.

林和 그런데 나는 評論과批評과 文藝學을 區別해보고저합니다. 評論은 文學을 中心으로한 一種의 文明批評이라면 批評은 直接作品批評이고 文藝學이라는것은 文學一般의 科學이라고 볼수잇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의 朝鮮서 文藝評論이라면 그傳統이 全部當爲論이엿습니다. 그러나 作品은 作家가 生活을 料理하는것이니까 첫재時間的으로도 그만한 差異가잇슬줄압니다. 그러니 이러한 當爲論인評論과 生活的인作品과의 距離를 連絡하는 媒介物이 必要할줄압니다. 그래 이媒介物을 나는 批評이라고봅니다.

鄭芝溶 나는첫재 評論家여러분에게要求하고 시픈것은 評論家들의 文章이 너무硬澁하고 生硬하니 스마-트하게 엣세이式으로 써주엇스면 조케습니다.

……………

興南

興南驛前 木材商 丸都出張所 李次龍 電話四二四番

興南 泰盛商店 電話(長)四三〇、三四五九番

興南內湖 東興幼稚園長 東興振興學院理事長 保光局醫生 都暐洙

朝鮮總督府出版敎科用圖書販賣所 咸南興南邑 書籍 文房具 運動具 敎育品 理化學器械 博物標本取次販賣 東文堂書店 李漢喆

咸州郡連浦市 優良醸酒 東鮮釀酒所 金道根

興南邑天機里四一 興南釀酒所 朴春三 電話一三八番

興南邑九龍里本町 額緣、繪具、手藝材料 興南手藝社 (朝鮮無料講習所)

三井生命咸興事務所 社長 金在寬 電話三三三番 咸興局私書函九二號

興南邑東興里 學校評議員 米穀組合總代 煙草小賣人協會委員 崔禹鉉

興南邑雲城里 邑會議員 文近烱

興南內湖市 連浦東鮮酒出張所 金道善

九龍里 徐晉松

內湖東振學院 電話四〇一番

興南邑九龍里 興進學院

新興學院 新興幼稚園

賀

興進學院 職員會

興進學院 院長 金學杜

興南內湖東振學院 院監 金大奎

興南邑 安興奎

興南九龍里 朴熙善 電話四一八番

興南驛前 宋在明 電話三三五番

金斗鍾 電話一一八番

興南邑九龍里 金龍海

活版石版印刷製本 山本印刷所 電話三三八番

興南內湖市場通 綢緞布木 朴泰均商店 支店天機里市場通

興南邑內湖市 食料品 各種酒類 雜貨 李漢烈商店 電話三五五番

天機里市場內 京城屋精肉店 金光八

天機里市場內 新成屋精肉店 主 黃達俊

興南驛前 第一麵屋 韓昌寬

明治火災保險株式會社 朝鮮生命保險株式會社代理店 興南和信連鎖店 電話四三

和洋食料品 各種雜貨 旅行具 成服 ゴム靴 李錫煥商店

興南邑內湖通 丸太 新炭 都賣 大林薪炭屋 宋應雲

興南東興里 共信洋服店 崔基春

興南驛前 福田硝子店

興南邑九龍里海岸 興南製鍊所御指定新炭供給所 新炭問屋 興南商會 主任 劉竹烈

興南邑九龍里市場通 百貨都賣 新興商店

興南雲城里 文廷義

興南邑九龍里 金應善

興南邑九龍里 金鳳聖

興南雲龍學院 開設者 金雲翰

興南邑龍岩里 和盛堂藥房 金奎琠

興南驛前 新豐藥房 李豐林

興南 文承運

興南邑龍岩里 金奎哲

雲龍學院後援會長 李龍林

興南邑雲上里 金在壽

興南九龍里 金大路

松上里 宋英斌

興南新上里 醬油販賣 東元商店 電話三〇五番

興南驛前 水飴卸賣 古物貿易 仁興商店 成洋鎬

興南九龍里 寫眞機械 寫眞材料 寬興商店

九龍里市場通 洋品雜貨 우리商店

上天機里 大興自轉車店

九龍里 平壤商店

興南內湖市 電明商會

柳町 松上寫眞館

柳町 片山球撞場

元興商店

吉林

富士自轉車吉林總代理店 ブリヂストンタイヤ五百組限一割引

富士覇王號 富士號 オニ號 富士進出號 其他各日米車 吉林 自轉車商會 吉林市大馬路 電話三九五六番

吉林市八緯路十六號 栗川齒科醫院 院長 文相勳

吉林市大東門外行敏胡同 各種雜貨 各種海產物 各種農具 穀物貿易 滿鮮昌糧棧 主 表俊華 電話三三四六番

吉林市六經路 吉林產業株式會社 社長 李基荇 外社員一同

吉林市臨江門外

吉林山提法司街 人絹綢緞 洋品雜貨 文房具一式 批發 同榮商會

吉林市提法司街 綢緞布木 工藝品各種 大昌商會

吉林市大東門外行敏胡同六號 青松屋 主 李永和

藥酒濁酒醸造元 長春屋醸造場 電話一六八九番

永吉縣第二區大屯 潘永昌

吉林市臨江門裡日源代書事務所 全禮鉉

吉林市北食街胡同六號 韓燦旼

司法代書人 崔豊植

吉林市提法司街八號 雜貨商 金城商會

慶北高靈郡開津面吾士洞 吉林日本憲兵隊 丁世鎬

吉林市河南街三八號 金相佾

吉林市復興里 綢緞布木 農信號

龍川郡府羅面事務所 面長 金容乾 上席書記 李仁錫 書記 林義峻 會計 金永澤 書記 金鳳仁 書記 張弘珉 書記 金鍾洛 書記 李松山 技手 金炳珍 書記 金昌伯

運餉

平北龍川郡運餉市 信山泉酒造場 黃正憲

平北龍川郡運餉市 玄米 白米 雜穀 肥料商 平和商會 (神戶海上火災保險會社代理店)

平北龍川郡運餉市 玄米 無砂米 滿洲粟 貿易 秫林山精米所 主任 白炳璉 林克峻

平北龍川郡府羅面運餉市 穀物貿易 崔用甫商店 白載坤 崔用甫

平北龍川郡府羅面北秉洞 張斗星

龍川郡外下面南機洞 高岡學院長 李文塾

平北多獅島港 張國敏

平北多獅島港 咸時哲

平北多獅島港 永興精米所 李永福

平北多獅島港 料理屋 金山館 主 金達 藝妓 田秋月 朴山玉 曹梅花 李錦善 水

平北多獅島港 精米業 旅館業 金[illegible]儉

黃海線深江驛前 運送店 崔炳大

朝鮮鐵道黃海線天台驛前 綢緞布木 丁壽永商店

黃海線天台驛前 天台運送部 主 朴雲賢

黃海線天台驛前 沈鍾喆

延白郡開道面長 孫東勳

蘭溪簡易學校

天台郵便所長 林陽燮

黃海線天台驛前 食料 雜貨 李玉來商店

黃海線天台驛前 綢緞布木 千光弼商店

海龍面學務委員 魯永祺

天台驛前 濟生醫院 院長 林正燮

黃海線天台 朝鮮料理 明月館

圃道面協議員 趙性濬

朝鮮黃海線天台驛前 綢緞布木 洋品百貨 各國肥料 燒酒食料 黃德大百貨店

延白郡海龍面天與里 有志 尹恩福

慈山

慈山醫院長 全旭鉉

慈山三聖鑛山 鑛主 李昌海

平元西部線慈山驛前 朝鮮運送株式會社 慈山代行營業所 代表者 李善郁

厚灘面長 李明奎

東洋旅館主 康處得

平壤栗及皮物貿易 鄭允弼

吳元謙 方正鉉

順天郡慈山面豊德里 李明植

慈山水利組合長 崔東稷

司法代書士 吳榮順

慈山面豊德里 崔東瀛

濟南明德學校 尹金[illegible]

…座談會

金南天·金珖燮·金起林·白鐵 =本社側 洪起文 李源朝 [illegible]=

…더기파네리고 가지는 더달리빼더 이제갓盛한光景을 이루운것은 진실로기뿐일이다. 맛거들것이아니라 보담더組織的으로 보담더體系的으로 檢討하고究明해서 이根深葉茂 는 기지가지의問題를 삿삿치뒤지고 좋트러모하보면 長篇小說은 어떠케發展해야할것인 大衆化問題는 무엇인가 創作과評論의統一은 어떠케實踐할것인가 하는것이 지금우리文 로 評壇한 作家評論家들을 一堂에모하 가장眞摯하고 가장嚴肅하게討論한것이 이座談 會것이니 새해에讀者들에게드리는첫선물이 그다지초라하지안흔것을기뻐한다(一記者)

…篇小說에 不滿을 늣기는同時에 長篇小說에對한 希望이라던지 意欲이생기게되니 갈작이그러케 問題가된것이리라고 생각합니다。그건 短篇이란現實把握이 매우局限되여 잇스니까 그것보담도 더自由스럽게또廣汎히 現實을 把握하고 描寫하려면 不得已 長篇小說박게 업는때문에 長篇小說에對한 作家들의 希求와 意欲이 생긴것이올시다。그리고 現在 朝鮮에잇서 長篇小說이라면 主로 新聞小說이니 하엿스며 朝鮮에도 그러한傾向이잇다고봅니다。그러니 朝鮮의 長篇小說을 救하는길은 十九世紀小說과 現代小說과의 어느길을 擇해야할것인가를생각하게되는데 나는主로 레아리즘과 關聯해서 만히 생각해보앗습니다。그래서 最近에 내가 쓴 長篇小說은 한사람의 作家로서 個人의 생각한바를 改造의 意圖로 쓴것에 不適하지마는 如何間環境과 性格을 統一하자면作品을 年代記나 家族史로 끌… 說이나를 勿論하고 조흔作品은 主觀的描寫와 客觀的環境파가 一致되어야 할줄압니다 가령 金南天氏가 든은 長篇小說論에서 性格을 만히論햇스나 亦是 長篇小說의 基底는 性格과 環境의統一에잇습니다 그래야 비로소 픽순이되는데 그러케되자면 構想力이 問題가될줄압니다。

安懷南 朴泰遠氏의『川邊風景』이 作者의 이데아를 表現한 性格의 創造가업다고하드래도 그것이 世態만이라도 잘描寫…

…생각하는것은 …것갓습니다 그보담 더 現實的으로 생각한다면 이때까지 新聞小說은 春園 東仁 想涉가튼 이러한 旣成文人들이거의 獨涉하다시피햇는데 昨今兩年에드러서서 新聞小說의執筆이 거의 全部 中堅作家들에게로 넘어왓습니다。그러니 이때까지 우리보담 한代먼저 저네러 金들이 新聞小說을쓰는것을 바라만보고잇든 中堅作家들이 直接自己네가 新聞小說을 쓰게되니까 新聞小說을 어떠케 써야하겟느냐하는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問題산는 長篇小說論의 現實的根據일줄압니다。그러니 朝鮮에잇서서 長篇小說論은 新聞小說論과 關聯해서 問題삼는다면 春園、東仁、想涉가튼분들의 新聞小說에서 무엇을 攝取해야하며 本格的인 長篇小說을 어야기하라면 林和氏가 말햇한 十九世紀長篇小說이나 金南天氏가 말하는 現代長篇小說에서는 무엇을 어떠게 攝取해야할것이 作家들의 當面한問題가아닙니까?

金珖燮 結局長篇小說論은 요사이 新聞小說에對한 不滿의表白이라고 볼수잇는데 長篇小說論 다음과가튼 네가지 主張으로 볼수잇습니다。卽世態小說論 心理小說論 綜合文…

論의核心 ◇通俗小說과 …氏主導

…過하려한때문이 아닌가합니다 그러意味에잇서서 金南天氏가 다시 家族史속으로 드러간것은 正當한일인줄압니다 過去에서 題材를 取하면 거기에는 性格이잇스니까요 그러오로 나는 現代小說에는 心理小說과 世態小說과 歷史小說박게업는데 新聞小說의 發達도 結局은 心理小說에서 發達해야할수박게업슬줄압니다。

林和 現實속에서나家族史속에서나 結局은 歷史的 典型的性格을 創造해야할것입니다。그리고 그것도 作家의 個性에따라 다르겟지요 가령 朴泰遠氏의『川邊風景』을 金南天氏더러 쓰라고한다면 金南天氏는 그래도 그러한 파노라마的보담은 몃개의 性格을 만드러 보앗슬것입니다。白鐵氏가 인제 말햇다드시 現代가 性格을 創造할수 업다고해서 現代小說은 世態小說이나 心理小說밧게 업다는것은 너무지나친見解가아닌가하는데요。

李源朝 저생각가타서는 現代小說의 問題는 現實的으로 생각한다면 性格創造니 心理描寫니 하는것보담 먼저 新聞小說과의 關係를 생각지안코…

…朝鮮서만의 特殊한 … 니지마는요 즉 너무 興味에다가 그것이 깨이나 그러타고할수잇슬까요。

金南天 作家들이 興味에서 그…럼까요

金起林 그런데 이것은 좀 딴이야기갓습니다마는 이번에오는 東中에서 모-파상의「피에르와장」을보니까 그序文中에 이런말이잇서요 作家는 일것 自己의世界를 하나 만드러노흐면 批評家는 그것을말하지안코 作家가 意圖도하지안햇던것이업다하고 批評家에對한 不滿을 말햇는데 우리가 長篇小說論을 이야기하는데 가령 朴泰遠氏가든다든 그小說에 性格이업시 世態描寫뿐이니 性格을 그러라고하지마는 朴氏는 性格以外에 다른 무엇을 그作品에 너흐려고 애를썻는지도 모르니까 우리는 그作者가 그作品에 무엇이 드러잇나를 차저보는것이 더必要하지안흘까요、그러면 作家와 評家의 不睦도 解決될수잇슬듯한데요。

金南天 作家와 評家의 이야기는 따로히 할터가잇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이야기하는것은 어느作品이던지 어느程度로 그것을 차저보고 난뒤에 이야기지요。

…己故鄕에잇는 農民들의 얼굴을 想像하는것이라는 것가튼것은 一種의 國際的이오 人道主義的傾向이라고봅니다。요사이 地方的이란말이 만히流行하지마는 그릇된 地方主義보담은 國際的이오 人道的이오 普遍的인것을 이데아로생각하고 그이데아에따라 最善의生活을許하는것이 理想主義인데 나는 이러한 理想主義를 매우 노피評價합니다。그래서 知性도 現實과 關係되어 問題되어야할것이지마는 내가쓴『時代的偶然의受理』는 全體로 道德的인 이데아를 생각하고쓴것입니다。

安懷南 나는 直接論壇에 參與한사람은아닙니다마는 昨年一年의評이 知性論이나 모랄論이나 人間探求나 이러한 것이 마치 한개의 體系를 이루어서 問題된것가티 말슴하신모도잇스나 제생각에는 이러한것들이 모두 一條不亂의體系가되고또 問題되여서 그런것이아니라 다各各 그때그때 問題삼고시픈것을 問題삼은것이 아닌가 만약 우리에게 보히는것이 아닌가 그러치안라면 知性論이나 모랄論파 白鐵氏의 人道主義의 國際愛니하는것이 어떠케 自然스럽게結合되는것입니까。

白鐵 現代에 잇서서는 人間을 歷史的으로 全面的으로 보지못하니까 人間의價値란 매우貧弱하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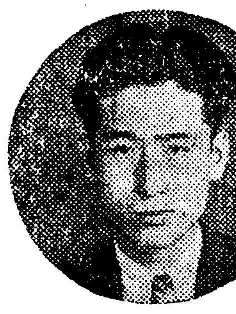
林和 知性이니 現實이니 하는것보담은 인테리의 全體的運命에關한 論議가 더 노피評價되어야 할줄압니다。

오는一年間의 評論界中心課題 崔載瑞氏主導

崔載瑞 글세요 이座談會의 出題한것을보면 모두서로 關聯이잇는모양인데 새로 一年間에 우리評論界에 中心課題가 무엇이되겟나하는것을 말하자면 먼저 昨年一年間의 우리評論界를 回顧해볼 必要가잇슬줄 압니다。그러면 昨年一年間은 대체로 知性論 長篇小說論 그리고 모랄論이 러케 두가지 乃至 세가지 潮流로 볼수가잇습니다。그런데 이러한 潮流는 다시 올라가 생각하면 再昨年度의 우리評論界의 中心課題는 두말할것도업시 휴마니즘이엿습니다。그러니 昨年度에 知性論이니 모랄論이니 長篇小說論이니하는것도結局 휴마니즘에 統括될것입니다 말하자면 이런것은 휴마니즘의 한 發展過程에잇서서 一環的 課題가아닌가합니다。휴마니즘이라면 人間性을 探求하는 것인데 그러자면 人間이 모랄을 가저야 한다던지 또는 人間性擁護라는것도 知性에서 出發해야한다는것이라던지 또는 그러한 휴마니즘을 어떠케 表現하겟느냐할때 長篇小說論이 問題된다던지 이러케 서로 關聯을 지어생각한다면 今年度의 評論界의 中心課題란는것은 一方으로모랄論을 더發展시키는 同時에제생각으로는 知性論의 發展으로 價値論을 問題삼어 봣스면합니다 價値論은 知性論의內容이니까요、그런데 林和氏가든은長篇小說論을 쓰실때모랄論과 關聯해서 생각해보신일이잇습니까?

林和 글세요 昨年에 小說論을 몃개쓰기는햇스나 뭐따로 모랄論을 염두에두고 쓰지는 안엇습니다 何如間 小說이자꾸 나오는데 傾向이자꾸달러지니까 그小說을 한번따라 가보겟나고한것이 小說論이고 그래서 世態小說은 主로 長篇小說에 關해서 나는 作家들이 世態小說論에서 쓰것인데 이 바깃만을 보는것을 指摘햇습니다。最近에 兪鎭午氏가 든든도 그作品傾向을보면 확실히 눈이 外部로 쏠리는것가튼데 이러한傾向이 자꾸 濃厚해진다면 作家가 自己自身에對해 一種의 虛妄을 느끼지안흘것인가 우리가 레아리즘을 正當으로하는것은 知性이니 論理니 眞理니하는것의 主體化하는것을 重要하게보는 것입니다。그러므로 모랄論은文學의 結果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今年度에 問題되어야할 모랄論는 抽象的인것보담 더 만히 文學의 構成에 嚴重하지아니하면 안될줄압니다。

金南天 全體的話題로서는 모랄論보담도 昨年度의 趨勢로보면 知性論 文學論과 相當히 密接한 關係를가지고오든것갓습니다。그런데 知性이란것을어떠케보면 良識이라고도보고 敎養이라고도보고 能力이라고도 보는데 長篇小說論은 우리當事者로보면 勿論 모랄論파도 關係가잇겟지마는 그래도 長篇小說論은 더만히 레아리즘파 關聯이잇슬로압니다。그리고 今年度에는 白鐵氏의『時代的偶然의受理』란는 論文가튼것도 相當히 問題되지 안흘가합니다。



白鐵 내가 말하는것은 直接우리文壇에 關한 이야기보담도 東京文壇에서 問題된것을 이야기해보것입니다。가령 火野葦平의『麥と兵隊』가튼것을 戰地에서 兵士들이 無限한 支那民衆의 얼굴을對할때 곳自…

作家의關心事 作品傾向과 金珖燮氏主導

金珖燮 갈작이와서 리-드해달나는 請을바더서 별로 생각한것이업습니다마는 白鐵氏가 말슴하기를 現代는 作家가 自己를 主張하지못하는 時代라고햇는데 그런時代이면 그時代의 雰圍氣를 그림必要가잇슬줄압니다。歷史가말하지안는歷史가 文學이라면 作家는 이時代의 暗黑이라던지 그러한것은 그대로를 그리지는 못한다고하드래도 이時代의 雰圍氣란도 그리는것이 重要한 일일줄아는데 지금 中堅作家들의作品傾向이라던지 또는 그傾向으로 미루어보아서 作家들의 關心하는것이 어디잇다고보십니까。

安懷南 아니 作家들이 그時代의雰圍氣를 그려야한다면 그야 어느時代이고 作家가 傑作을 쓰라는말과 맛찬가지가 아닐까요。

金珖燮 이時代가 가지고 잇는 모든것을그리란는말이지요

安懷南 그러나이 問題는 現役作家들의 作品傾向으로보아서 作家들이 무엇을 關心하나하는것이 아닙니까。

李源朝 出題의意圖는 그런것습니다。

金南天 何如間、요지음와서 作家들이 技巧方面에 퍽애쓰는 것가트데 讀者로서 要求한다면 첫재 偉大한性格과 기픈 人生觀을 表現해주엇스면합니다。이것이업스면 읽어도 感激할수가업고 다읽은뒤에 아무記憶이남지안는때문입니다。

崔載瑞 昨年一年間의 作品을 槪觀할때 一定明確한 傾向을指摘하기가 困難치안흔가생각합니다 或은 內省的傾向을말하고 或은 世態描寫의風潮를 指摘하는데 이것도 그리主勢的인것은아니엿고 또 作品傾向으로보아서 그리明確한 性質의 물건은아닙니다 차라리이것들은 作者의 어떠한 藝術的理念을(意識하는것은 아니지만)容解하고 暗示하라는것으로 볼수잇습니다 作者들이 구태여傾向을 明示하지안으랴고한데에 傾向이잇지안엇는가 생각합니다。

作家들은 이리저리 몸을避하야가며 藝術的良心을살리기에 滿足하라는데서 나는그들의 最大關心事를 發見하엿습니다 內省的小說 世態描寫의 小說이 昨年에流行하엿다면그것은 이러한關心의 表現이라고 나는봅니다。

林和 作家들의 關心이 어디로 쏠리고 잇느냐는 첫재作家들의 主觀的態度의 問題이기는하나 더重要한것은 그것의客觀的인 表現입니다。다시말하면 各個人이 主觀的으로 어떤것을 생각하고 잇든지間에 實際의 作品成果가 表示하는 傾向이니까요 우리 批評의 對象은 언제나 이것으로 나의보는바에 依하면昨年一年은 적어도 世態的 人世界에다 作家들이 自己를 依託하기 시작한 해가아닌가합니다。勿論 이傾向은 作家들의 個人的思考의 限界를넘어서 現代가 得하는 하나의結果가아닌가합니다。勿論 우리는 內省의世界로 드러가는 傾向을 이와對比하야 생각할수잇고 또事實 잇섯스나昨年에와서는 이傾向은 世態的傾向에 눌리는것가텃습니다 아마 우리朝鮮現代作家가 大體로 內省을 착실히 해나갈 準備가 不足하거나 或은 內省的能力이 不足하지나 아닌가하고 생각되기도합니다 이것은 아마思索力의 不足 或은 文學을 培養한 精神的傳統의 缺如에서 오지안흔가도 생각합니다。그래서 結局 市井世界의描寫로 滿足으로 모든말을하는듯합니다。그러 問題는 결국 作家들이 얼마나이世界를 把握乃至克服해나가느냐하는게 明日의 朝鮮文學의 成果가 달려 잇겟지오。

間或只今時代의文學은傾向이 업다는말도듯는데 이것은 現代文學에對한評價不可能、다시말하면 批評的絶望의表白이 아닌가 합니다。어느時代이고 그時代의 表現인것입니다。아마 올해 一年은 市井世界와作家와의 結托의一年 或은試鍊의時代일것갓습니다。

金南天 長篇小說에서는 될수잇는대로 性格을 그려야하는데 요사이보면 대개 하나는 內省的이고 하나는 世態描寫에 在力하는것가티 보히드군요。

白鐵 퍽自嘲的인 傾向도보히는데 그러傾向으로는 崔明翊氏가든이를 들수잇겟지요。

金南天 一般的으로는 內省的인傾向이 만흔것가티 보이기는하지요

李源朝 그저내남업시 文學을한다는것이 퍽安閑하게되는 대로하는듯한 傾向이잇지안습니까

咸州郡公立學校 職員一同
咸興タクシー 興南出張所
東振學院 院長 徐斗淵
興南海星學院
興南三成學院
興南邑龍岩 雲龍學院
興南永昌學院 院長 玄弘烈 會計 文永魯
興南邑事務所 職員一同
興南警察署
株式會社 東一銀行 興南支店
興南邑天機里 濟惠醫院 李寅穆 電話一〇六番
中天機里 中央醫院 李俊喆 李俊景 電話一〇八番
興南邑九龍里 毛利醫院 毛麒聖
本町一丁目 內科小兒科 弘濟醫院 方亨鍊 電話二三六番
興南 壽東醫院 電話二一六
興南九龍里本町 安永醫院
九龍里本町通 本町齒科醫院

興南驛前 專賣特許國防靴 北鮮總代理店 護謨皮靴商會
興南天機里(市場通) 時計銀細工 金銀堂銀房 主 金相吉
朝鮮咸南興南驛前 木材會社 小池商店 電話一四番
咸南興南邑內湖市 東華洋服店 主 裵垣鳳
興南邑九龍里 雲興精米所 電話二三四番
興南內湖市 永興精米所 電話二一三番
興南九龍里 泰興精米所 電話二〇六番
興南驛前 元山商會 電話一六八番
興南驛前 京興鐵工所 金喜容 取次電話二三五番
興南邑新上里 大同運搬組
天野屋洋服店 電話二二七番
內湖市 朝鮮料理 東洋舘 電話一三四番
九龍日本町通 古物貿易 興信商會 平壤行李製作所 主 崔有德
興南內湖市 銀河理髮所 金冕威
興南驛前 新炭丸太都賣 小野商店 姜文求
興南邑內 李昌連 電話二一〇番
興南驛前 京城旅舘
興南驛前 金熙根

吉興合精米所 總經理 南春守 經理 張景穆 邊泰善 張有山
吉林市新開里八一號 廣信號 主 李敏承
東亞公司運輸部 韓相虎
吉林市提法司街 綿絲布木 和洋雜貨 和信洋行 主 吳鍾泰 電話二四〇六番
吉林市臨江門外迎恩街六號 日滿精米所 電話二八一六番
金田亨
ラヂオ蓄音器販賣 東洋商會
吉林市三經路二七號 漢城旅舘 張澤祚
永吉學校組合 澤田貞 姜老永
吉林市商埠街東胡同十號 司法代書人 南在旭
奉吉線雙河鎭 新盛商店
奉吉線雙河鎭驛前 金斗千
吉林市提法司街延居胡同四號 內外科小兒科婦人科 天一醫院 電話二八二一番
吉林市新興里廿一號 吉林麵屋 電話二六一四番
吉林市提法司街十一號 甲子屋洋服店 電話二四〇六番
吉林市朝陽街 省民醫院 周述文 金聖培

吉林市七經路一九號 東一殖産商會 電話二九六五番
吉林市提法司街延居胡同 司法代書人 土地測量 金在涉
カフェー ダイナー
吉林市新興街三二 朝鮮麵屋 主 文京哲 電話二六〇五
京圖線下九台滿鐵新街 九盛公司 社長 梁朝熙
吉林市提法司街 松江理髮館 李起善
吉林市長春胡同十一號 折箱割箸 森田所箱工場
吉林市 永昌商會
吉林金融會 金相泰
吉林市提法司街延居胡同 京城下宿
吉林市八經路 成泰永
永吉縣口前 公立永代國民優級學校職員一同
海産物食料品都賣 三陽商會
吉林市新興里八一號 朝鮮料理 滿鮮舘
折箱割箸製造 廣林商會
吉林市岔路卿八十二號 崔相熙
京圖線天崗驛前 金洪秀
吉林市三經路二七號 永興釀造場出張所 電話二九二七番
吉林市朝陽街 高判東
吉林市大馬路 各種自轉車及附屬品一式 日滿洋行

平北寧川郡運餉市 朝鮮日報社運餉支局 支局長 張基敦 記者 康東善
平北寧川郡府寧面中端洞 三信精米所
平北寧川郡運餉市 綿絲布商 崔在益商店
雲山小泉島臨病治療藥泉 醫師 高光國
平北寧川郡運餉市 靈和醫院長 趙道坤
平北寧川運餉市 運餉百貨店
平北寧川郡府寧面運餉市 林炳茂
平北寧川郡府寧面運餉市 文善俊
平北寧川郡府寧面德川洞 金聖模
平北寧川郡運餉市 穀物貿易商 共益商會
大平
平南大平驛前 古平面長 金致章
平南線大平驛前 大平醫院 醫師 桂瓛淳
大同郡古平面 古平面事務所職員一同
平南線大平驛前 大平金融組合 組合長 尹綏三
平南大平驛前 大平金融組合理事 木村榮一
平南線大平驛前 大平金融組合 職員一同
平南大平驛前 大平商店 吳吉勳
平南線大平驛前 大平飮食店 韓榮瑞

平北寧川郡運餉市 龍川飯店主 畢恩官
平北多獅島港 多獅島旅館 張昌奎
平北多獅島港 米穀食料雜貨商 元光商會 主任 白炳璉
平北多獅島港 元城消費組合
平北多獅島港 韓正奎
平北多獅島港 平壤土木 多獅島港配給所
平北多獅島港 多獅島 同友物産社
平北多獅島港 蘇奎殷
平北多獅島港 日用雜貨 張弘奎商店
平北多獅島港 元城分敎場 鄭道椿
古平公立尋常小學校
平南大平驛前 文錫柱
平南大平驛前 廣海商店 韓弄珠
天台
朝鮮黃海道天台驛前 天殖産精米所

慈山面 金壬鎬
順天郡慈山面 崔
尹元模
朝鮮日報慈山支局長 金昌烈
達泉
達泉金融組合 職員一同 新東亞建設を祈る
年頭ニアタリ皇軍ノ武運長久ヲ祈ル 達泉公立尋常小學校 職員一同
信川草里面 職員一同
信川郡達泉溫泉 和洋料理 達泉食堂
信川郡達泉溫泉 各種肥料 綿絲布木商 金鳳善
信川郡達泉溫泉 溫泉旅館
信川郡達泉溫泉 朝日旅館
信川郡達泉溫泉 司法書士 李長均
信川郡達泉溫泉 文化旅館
信川郡達泉溫泉 金順愛
廣信製炭 綿絲布木商 李圭恒
龍城
長老敎 龍城里敎會 長老 朴善河
大同郡花原農場 鮮于淑
大同郡斧山面凡沙里 面協議員 徐尙吉
大同郡在京里面聞里 李瑛殷
平元線龍城驛前 源湖溫泉酒特約店 主 金秉模
大同郡在京里面玄岩里 醫生 康明恒
龍興學院後援會 會長 李仁植 副會長 金鎭元 財務 李德吉
寒寺靑年會 總務 安世麟
大同郡在京里面玄岩里 面協議員 曺世煥
大同郡在京里面間里 在約
大同郡斧山面西圖里 桂良烈
大同郡斧山面南宮里 李永璐
大同郡斧山面新興里 面協議員 朴正熙
大同郡斧山面龍山里 治山契長 金斗成
崔成萬
大同郡斧山面西山里 面協議員 李元興
平元線馬嵐驛前 興生堂醫院
大同郡柴足面乾芝里 李萬秀
大同郡斧山面龍城里 許文藤
新溪
新溪郡 司法書士 康化三 李殷俊 朴和燮 金孜福
黃海自動車運輸株式會社 新溪營業所 主任 金德奎